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오로지 니르바나를 향해 가라.

현대불교

현대불교신문
구독 후원 상담
02-2004-8212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15호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1월 14일)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이태원 참사 한 달 불교, 아픔 보듬다

조계종 사노위, 11월 28일 대통령실 앞서 기도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유가족 공간마련 촉구 서한 제출
시민대책 위원회 구성 모임 동참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도 주장해
이웃종교와 함께 12월 16일 49재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애도는 끝나지도 않았고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다. 국가와 정부는 상실감에 빠진 유가족들이 서로 공감하며 슬퍼하고, 위로할 추모공간을 마련하길 바란다."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에도 진실규명은 오리무중인 가운데,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가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노위는 11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직무실 맞은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태원 참사 한 달, 희생자 추모와 희생자 가족 의견 존중 및 소통 공간 마련 촉구 기도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기도회에서 사노위는△희생자 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진상조사를 할 것 △희생자 가족들이 모여 함께 위로와 슬픔을 나누며 진실규명을 비롯한 대책을 숙의하고 소통할 공간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이번 이태원 참사에 많은 국민이 함께 아파하고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누구나 참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진실은 주머니 속에 바늘과 같아서 변명하고 회피하며 무마하려고 할수록 그 바늘 끝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제도가 고쳐지고 재발방지 시스템이 마련되는 날까지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지지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도회 후, 사노위원 혜문 스님과 동신 스님이 대표로 요청사항을 담은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현장까지 목탁을 두드리며 행진하면서 재발방지 촉구를 다시 한 번 외쳤다. 기도회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며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추모 기도로 마무리됐다.

사노위원 혜문 스님은 "스님들의 지극한 염불소리와 행진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과 부상자, 사고현장에 있었던 이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사노위는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참사 직후인 10월 31일, 이태원 참사 이후 마련된 '이태원역 1번출구 추모공간'을 찾아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추모기도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도회에서 사노위원 스님들은 희생자의 넋을 기릴뿐 아니라 부상당한 이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기도 해 추모공간을 찾는 시민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다.

11월 9~11일에는 삼보일배 오체투지로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가족들의 소통공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을 포함해 스님 14명은 사흘동안 서울 조계사에서 남대문 경찰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 이태원 참사 현장까지 삼보일배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희생자 추모 뿐 아니라 가족과 국민의 분노, 슬픔, 고통이 조금이라도 녹아내리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사노위는 12월 16일 오후 6시 참사 현장에서 49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이웃종교와 함께하는 이날 49재에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동참, 각 종교에 맞춰 추모기도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대책위 등을 통한 연대도 실시한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사노위 자체적인 활동에서 범위를 넓혀 앞으로 구성될 시민대책위나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 등을 구심점으로 뜻을 모아 활동해 나갈 것"이라면서 "불자들도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책임이 규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불교중흥 중심에는 포교가 있다" 한국불교 전법포교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출 · 재가자와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제34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이 11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제34회 포교대상 대상(종정 표창)은 문화 · 뉴미디어 포교를 이끌고 있는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수상했다. 정념 스님은 수상소감에서 "만 가지가 다 살아가면서 포교가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불교 중흥 중심에는 포교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시상식 직후 가진 기념촬영 모습.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에 종상 · 정여 스님 선출

12월 1일 원로회의 제71차 회의서 만장일치로

대종사 명사 법계 특별전형 통과
의장 · 부의장 선출 건 차기 이월

종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에 종상 스님과 정여 스님이 새롭게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대원)는 12월 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 71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원로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신임 의원 선출이 이뤄짐에 따라 조계종은 총 20명의 원로의원을 갖추게 됐다.

종상 스님은 1969년 법주사에서 월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9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2009년 종사 법계를 품수했고 각연사와 기림사, 영혜사 주지를 역임했다.

정여 스님은 1975년 범어사에서 지유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6년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2021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고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 조계종 법규위원, 부산불교회관 관장,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법계위원이다.

원료회의는 이날 대종사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논의하고 총 32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는 △성학 스님, 성운 스님, 진관 스님, 기연 스님(직할교구) △현일 스님, 종성 스님(법주사) △중하 스님, 성연 스님(마곡사) △정휴 스님, 법보 스님, 효담 스님, 청안 스님(직지사) △돈명 스님(은해사) △대운 스님, 동봉 스님(해인사) △혜문 스님(범어사) △운성 스님, 지정 스님, 명신 스님, 법진 스님(통도사) △수인 스님(백영사) △영진 스님, 현전 스님, 영명 스님, 무상 스님(송광사) 등 25명이다. 명사 법계 품서 대상자는 △진흥 스님, 지견 스님, 재호 스님(직할교구) △희원 스님(법주사) △선공 스님, 도문 스님(이상 수덕사) △지우 스님(직지사) 등 7명이다.


종상 스님


정여 스님

회의에 앞서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는 "종단 안팎으로 해야할 일이 많을 때"라며 "원로 스님들이 특출한 지혜를 모아 종단의 미래를 위한 불사에 좋은 방안들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기탄없는 고견과 지도를 청하며 "겨울 추위를 녹이는 수행력과 종단 발전을 염원하는 원력으로 후학들의 지남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사업과 종교편향 대응 등에 대한 현안과 대책들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원로회의는 이날 안건에 올라왔던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건은 차기회의로 이월했다.

임은호 기자

천태종, 내년도 일반예산 346억 원 확정

11월 28~30일 제120차 정기종의회서 결의

천태종이 2023년도 총무원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과 각 산하단체, (재)대한불교천태종의 일반예산을 346억여 원으로 확정했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세운)는 11월 28~30일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제120차 정기종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천태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의 2023년도 예산은 345억 9,400여 만 원으로 올해 일반예산에 비해 약 5%(13억 원) 증가했다. 유가인상, 관리비 인상 등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결과다.

예산안 심의에 이어진 '기타 및 토의사항'에서 종의회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종단 현안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 · 토론했다. 종의회는 이번 종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문건으로 한 달 이내에 회신해 주길 요청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도용종정예하는 "내 자신을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남도 바로 보고 바로 알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책임질 줄 알아야 육체도 책임질 수 있고, 보살행도 행할 수 있게 된다"며 "종의회를 무사히 잘 마쳐줘서 감사하다. 각자 자신의 마음자리를 잘 살펴 종단 발전의 주춧돌이 돼 달라"고 교시를 내렸다.

신성민 기자



역사 오류·기독 편향…광화문 물길 연표 '총체적 난국'

조계종 사회부·종평위 세미나서 학자들 한목소리 비판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새롭게 조성된 광화문 광장 역사 물길의 연표가 오류의 여지 많은 잘못된 표기이고, 기독교 편향적으로 기술됐다는 주장이 전문 역사학자들을 통해 제기됐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범종)와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는 11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광화문 역사 물길 연표석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표석의 상징성에 부합하는 역사 물길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광화문 광장 역사 물길 연표석에 수록된 역사적 내용들의 편향성과 오류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교과서엔 있는 한국사, 물길 연표엔 없다

〈연표로 보는 한국역사〉의 저자인 김덕진 광주교대 교수는 한국에 유통되는 역사교과서 8종에 수록된 연표와 광화문 광장 역사 물길의 연표석을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역사교과서에서 조선시대 연표는 60개 내외가 수록돼 있고, 이는 해당 시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광화문 광장 역사 물길의 경우 630개 연표석 중 250개 내외를 조선시대에 할애했으나 역사교과서 속 연표는 상당수 누락됐다.

'조선 건국'의 경우 역사교과서 8종이 모두 1392년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역사물길 연표석은 '태조 1년 태조 즉위'가 새겨져 있다. 또한 역사교과서 6종에서 모두 기재된 '1768년 서학 금지'는 역사물길 연표석에서는 누락됐으며, 대신 김정희의 출생을 연표에 넣었다.

김 교수는 "태조 즉위가 전제가 되는 조선 건국이 누락됐다.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다는 점에서 역사 물길은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며 "서학 금지의 경우도 조선 조정에서는 체제 안정을 위한 조치로 조선 후기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도 물길의 연표석에는 이를 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류 여지 연표도 상당 수다. 조선시대 인구를 조사해 호패를 착용하게 했던 호패제도 실시를 역사 물길 연표석에는 '1402년 태종 2년 호패법 실시'라고 돼 있으나 호패제도는 1413년(태종13)에 시행됐다는 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며, 학계의 일반적 의견이기도 하다.



조계종 사회부와 종교평화위원회는 11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광화문 역사 물길 연표석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선 건국 1392년을 태조 즉위로
교과서 연표 '서학금지' 누락하고
'보우 처벌' 등 논쟁적 역사 수록

조선-근대기 불교 6건, 기독 10건
불교 대부분 부정적 역사로만 부각
"불교에 무지하거나 기독교 편향적"

또한, '1420년 세종 2년 집현전 설치'로 역사 물길 연표석에는 새겨져 있으나, 집현전은 이전 정종 때 설치됐고, 유명무실했던 집현전을 세종이 즉위하면서 이를 궁 안에 들였다. 그렇기에 학계에서는 이를 설치가 아닌 '확장'이라고 말한다.

김 교수는 "역사 물길 연표석을 검토해보니 최근 연구 성과가 폭넓게 반영돼 있지 않은 점이 여러군데 보인다"면서 "현재의 문화유산이나 역사 인물을 놓고 연표로 만들 것인가, 당대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등 방향 설정도 파악하기 힘들다. 역사 물길 연표 작성의 기획력 부재와 '로드맵 정신'이 희미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기독교 편향인 역사 물길 연표석

조선불교사 전문가인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광화문 역사 물길 연표석의 기독교 편향성에 대해 분석하고 수정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광화문 역사 물길 연표석 내 조선-일제강점기 구간의 불교 연표석은 6개이며, 기독교는 10개이다. 이 중 불교는 '1473년(성종 4) 사족 여성, 승려됨을 금지'나 '1565(명종 20)년 보우 처벌' 등 연표상 불필요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다.

반대로 기독교 역사 연표석은 이광정이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를 가져오거나, 이승훈이 천주교를 선교하기 시작한 것,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 귀츨라프가 한국에 들어온 것 등 필요 이상의 내용들이 기술돼 있다.

김 교수는 "보우 스님은 선교 양종을 부활시키고, 훗날 임진왜란 의승군을 배출할 수 있는 기틀을 삼았다. 이 같은 연구 성과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반대로 서상륜이 황해도 장연에 교회를 설립하는 것까지 서울시 공식 역사 연표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광화문 역사 물길 연표석은 불교에 무지하거나 다분히 기독교 편향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시대를 유교적 프리즘으로 바라보면 조선적 전통의 외연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서울의 역사를 정치사와 유교적 관점에서만 기술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광화문 역사 물길 연표석은 다양한 영역과 분야, 주제의 사건과 인물, 사실들이 망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동언 선인역사문화연구소장이 광화문 역사 물길 근현대 연표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전문가 발제 이후에는 황인규 동국대 교수, 김광식 동국대 교수,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조계종 사회부장 범종 스님은 "지역문화, 선양 사업 중 역사적 오류가 있는 것들이 있다. 서울시 광화문 역사 물길 연표석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오늘 확인된 오류 등 보완 사항들을 취합해 서울시에 전달하고 시정케 하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 '부처님 고행상' 한국 전시 제안

무니르 파키스탄 대사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나빌 무니르 주한 파키스탄 대사에게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에 소장된 '부처님 고행상' 한국 전시를 제안했다.

진우 스님은 11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나빌 무니르 주한 파키스탄 대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대사로부터 취임 축하 인사를 받은 진우 스님은 마라난다 스님이 4세기 경, 백제에 불교를 전한 이야기를 꺼내며 파키스탄과 한국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前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지난 2019년 파키스탄에 방문, 대통령 면담 중 '부처님 고행상'을 한국에 전시하고 싶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안다"면서 "내년이 한국과 파키스탄 수교 40주년을 맞는 만큼, 부처님 고행상의 한국 전시가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11월 28일 예방한 나빌 무니르 주한 파키스탄 대사와 진우 스님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 왼쪽)과 11월 29일 예방한 나경원 부위원장과 환담을 나누는 진우 스님(사진 오른쪽).

이에 나빌 무니르 파키스탄 대사는 "파키스탄은 한국과 불교문화를 위해 여러 협력을 이어 온 만큼 고행상 전시가 순조롭게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우 스님을 파키스탄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나경원 부위원장 예방도 진행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11월 2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어려운 소임을 맡았다고 격려하고 "정부 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불안정한 사회환경이 출산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면서 "불교계는 마음 다스림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돕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서 "사회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각계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종교, 불교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포교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마음 다스리는 법을 통해 사회 안정과 저출산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임은호 기자

"불교 인재로 성장해 전법해주길"

동국대 종단 장학생 예방서
8·9기 장학생들 감사 인사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동국대에 종단 차원의 전액 장학제도를 운영 중이다. 불자로 신심이 돈독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10명가량을 선발해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2013년부터 시작돼 현재 9기까지 선발됐으며, 약 50여 명의 학생이 조계종 총무원 장학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 장학생으로 선발된 8·9기 동국대 재학생들이 11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지난해 선발된 장학생 8기 회장과 부회장에게 한해 활동을 보고 받았고, 9기 장학생들에게는 감사편지 모음집을 선물로 받았다.

진우 스님은 "총무원 장학금은 전국의 조계종 스님들의 마음이 모인 것이다. 스님들은 시주를 받아 그 일부를 종단에 전했고, 시주는 한국 불자와 국민들에게 나온다. 여러분은 온 국민과 불자들의 정성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잊지 말고 학업에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11월 28일 총무원 장학생으로 선발된 8·9기 동국대 재학생들의 예방을 받았다.

이어 "무엇보다 종단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는 만큼 부처님 법을 잘 믿고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길 바란다. 이게 부처님을 법을 전하고 포교하는 일"이라며 "불교 인재로 잘 성장해 부처님 법도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직지사 주지 후보 장명 스님 단독출마

12월 9일 산중총회 예정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후보에 前 중앙종회 부의장 장명 스님〈사진〉이 단독출마했다.

제8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법성)는 "주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장명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명 스님은 12월 5일 예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거친 뒤 12월 9일 열리는 직지사 산중총회를 통해 당선이 확정된다. 산중총회법에 따르면 본사 주지 후보로 단독입후보할 경우 투표 절차 없이 산중총회 개회와 함께 당선을 확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명 스님은 조계종 환경위원장, 제14·15·16·17대 중앙종회의원과 17대 중앙종회 전반기 수석부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 연화사 주지를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노천당 월하대종사 열반 19주기 추모다례재

(제10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 해동고 학생 장학금 전달식)



귀의 삼보하옵니다.

영축산에 깃든 설한의 한 소식은 노천당 월하대종사의 수행 가풍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에 영축총림 통도사와 노천문도회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제9대 종정을 지내신 "노천당 월하대종사의 열반 19주기 추모다례재"와 "제10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을 봉행하고자 하오니 큰스님의 덕화를 기리고 유지를 받들어 뜻을 선양하는 자리에 두루 참석하시어 더욱 의미있는 법석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영축총림 통도사 방 장
영축총림 통도사 주 지 이산 현문
(재)영축문화재단 이 사 장

● 일시 : 불기2566년 12월 4일(음 11월 11일) 오전 9시30분
● 장소 :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
● 문의 : 055-382-7182

제10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 수상자
학술문화상 김호귀(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교수)
봉사실천상 진오스님(사단법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포교원력상 법광스님(경남 파라미타 협회 지도법사)

■ 장학금전달식 해동고 학생 10명



“동국대 변화 중심엔 ‘건학위’가 있습니다”

윤성이 총장, 11월 29일 재학생들과 소통 간담회

4년 성과 되짚으며 소통 나서
학생들 교육환경 개선 등 질의

충무로영상센터 개발 규제 풀고
학교 수익 모델 개편 초석 다져
소통공감 홈페이지서 민원 해결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가 2년 연속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9위를 했습니다. 이제 동국대는 명문대학 반열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제2건학’을 위해 발족한 건학위원회의 원력과 지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11월 29일 교내 명진관 명진 라운지에서 열린 학생들과의 소통 간담회에서 4년간의 소회를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학생들과 최근 학교 변화와 성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학교 홍보대사 ‘동감’ △리더십 단체 ‘108리더스’ △학생모니터링단 ‘동화’ △학생부전형 알리미 ‘드리머’ △교내 교육방송국 ‘DUBS’ △교내 신문사 ‘동대신문’ △영자신문 ‘동국포스트’ 등 소속 단체 학생 11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간담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동국대가 최근 보여준 발전과 성과들이 지난해 4월 발족한 ‘건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졌음을 분명히 하고, “고문 자승 스님이 말씀하신 원력인 ‘등록금 걱정,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장학제도 신설, 전국 대학 최대 규모 취업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학교 발전과 문제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108리더스 소속 장인혁 학생은 “학교 취업박람회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선배들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은 규모로 지속적으로 열렸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11월 29일 교내 명진관 명진 라운지에서 교내 단체 소속 학생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윤 총장은 “대학 본부와 단과대학이 하나의 목표로 노력한 결과”라면서도 “산업 · 직군별 보완들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 관련 기초 교육들을 9월에 열리는 박람회에 앞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드리머 소속 김윤성 학생은 대학평가에서 평판도 순위 제고를 위한 학교의 노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동국대가 개발해 특허를 낸 IR시스템을 소개하고 “대외 평판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대학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재무구조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충무로 영상센터의 고도제한 규제를 마침내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부지 개발을 통해 연300~400억 원의 부동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수익 모델 개발로 재무구조가 안정화되면 대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예산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화 소속 왕정은 학생은 일산바이오메디컬캠퍼스(BMC)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속 캠퍼스 학생들을 타겟팅해 역량을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다.

“‘BMC는 서자냐’는 학생의 지적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눈물을 보인 윤 총장은 “학내 역량개발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관련 교육과 자체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아직 시간이 걸릴 일이지만 지금 의대와 한의대가 캠퍼스에 있고, 여기에 간호대, 수의대, 치대를 순차적으로 유치하려 한다. 이를 통해 BMC를 경기도를 대표하는 의료크러스트로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엑셀, 파워포인트 등과 같은 기초 직무 역량 교육을 공통 필수 교양 수업으로 배정할 수 없는가’ ‘교내 교육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등을 질의했으며, 윤 총장은 하나하나 성실히 답했다.

윤 총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학교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며 소통 공감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교내 구성원 간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소통 공감 홈페이지가 문제를 제기하고 논쟁하며 배우는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총장으로서 학생들이 더욱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일류 동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본지 ‘문화, 불교를 입다’ 불교기자상 기획보도상

오는 12월 12일 시상식

한국불교기자협회는 11월 29일 2022년 한국불교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서재영)를 열고 기획보도 부문에 신성민 · 임은호 현대불교신문사 기자의 봉축기획 ‘문화, 불교를 입다’를 선정했다.

대상에는 정주연 법보신문 기자의 심층탐사보도 ‘서울시와 가톨릭의 도넘은 종교역사공정’, 취재보도부문에는 윤호섭 BTN불교TV 기자의 ‘캠퍼스 포교, 이젠 바꾸자’가 각각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K-컬쳐의 바탕에 불교가 있으며 그 확장 가능성을 조명한 신성민 · 임은호 기자의 ‘문화, 불교를 입다’는 시기적절한 아이템이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한국불교기자상 심사는 서재영 성균관대 교수,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 교수가 맡았다.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2일 오후 6시 조계사 관음전에서 열릴 예정이며, 시상식 이후에는 한국불교기자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

“젊은 불교 이끌어 불교 미래 열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교구장 능원 스님 취임식

11월 29일 용인 호국선봉사서
능원 스님 “군불자 배가 노력”
군승의날 기념법회 함께 봉행


군종특별교구는 11월 29일 용인 호국선봉사에서 제6대 교구장 능원 스님 취임법회를 개최했다.

“군불교는 젊은 불교 이끌어 불교 미래 열어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군종교구가 내딛는 걸음이 불교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제6대 군종교구장 능원 스님 취임과 함께 새로운 군불교 활성화를 서원했다. 군종특별교구는 11월 29일 용인 호국선봉사에서 제6대 교구장 능원 스님 취임법회 및 군승파송 54주년 기념 군승의날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무원장 진우 스님으로부터 군종교구기를 건네 받은 능원 스님은 취임사에서 “불교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직분을 수행해 나가겠다”며 “종단과 더 많은 소통과 협력 속에 발전해 나가겠다. 군불자들이 종단에 깊은 소속감을 느끼며 신행 정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현재 우리는 종교인구의 감소, 도덕과 윤리의 몰락, 배금주의의 확산 속에 인성이 무너지고 삶의 기준과 방향이 흔들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 불교를 널리 알리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있어 많은 난관이 되고 있다. 6대 교구장 능원 스님을 중심으로 열정과 원력으로 가득찬 군불교의 모습은 앞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고 설했다.

원로의원 자광 스님은 “종단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논산훈련소와 각군 사관학교가 길목이다. 적극적인 포교가 있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취임법회 및 군승의날 기념법회서는 일선 군승법사들이 계룡대 호국 홍제사 신축불사기금으로 7320만 원을 후원했다. 교구장 능원 스님이 1억 원을 희사했으며, 육군 교육사령부 호국자운사에서 1000만 원, 육군 제2보급단 호국 금련사에서 1000만 원, 국방부 원광사에서 1000만 원 등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보리가람농업대, 올해 졸업생 90명 배출

동행, 11월 25일 졸업식
총330명 현지 인재 배출



개교 6주년을 맞은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네 번째 졸업식을 갖고 90명의 농업 인재를 배출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은 11월 25일 탄자니아 현지에서 졸업식을 진행했다.〈사진〉 올해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졸업생은 90명이다. 현재까지 배출된 330여 명의 졸업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탄자니아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활동 중이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특히 탄자니아 유일의 세종학당(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內)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국어로 삼귀의와 홀로 아리랑, 졸업식 노래를 불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수석으로 졸업한 오메가 세비야지(Omega Seveyage)는 “지난 3년간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과 멀리서 응원해준 한국 불교 그리고 불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졸업하고 지금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오빠(알파 세비야지 Alpha Seveyage)처럼 내게도 한국유학의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알파 세비야지는 지난해 11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을 졸업하고 아름다운동행의 초청으로 한국으로 와서 현재 동국대학교 편입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 중이다.

개교 6년을 맞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은 올해 축산학과를 신규 개설해 일반 농업학과, 원예학과와 함께 세 개 학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또 정식 운영에 들어간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은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생들뿐 아니라 인근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한국 문화와 불교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에서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운영비 모금, 장학금 모금 등을 진행하고 있다. (02)737-9595

임은호 기자

운문사승가대 25회 동문 승려복지기금 3천만원

운문사승가대학 제25회 동문회 임원진 스님들은 11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승려복지기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동문회장 지호 스님은 “종단이 발전하고 대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동문회도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기스님들이 합심, 소중한 기금을 전달해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동문회장 지호 스님(안흥사 주지)을 비롯해 부회장 진명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총무 대훈 스님(법기암 주지) 등이 참석했다.

임은호 기자



꿈이 이루어지는 도량 함안 마애사

천년의 물 흐름 속 영험한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청룡대불

지성으로 기도드리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기도도량입니다

미리 부처님 친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어 발원하는 모든 일들
원만성취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완공 예정
2024년 1월 1일 갑진년(청룡의 해) 새해 점안법회 예정
055-585-5114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마 애 사


함안 마애사 청룡대불

인천불교총聯 제32대 회장 능해스님 취임식

11월 29일 인천 용궁사서 봉행…500여명 참석해
능해 스님 "청소년, 다문화, 지역포교 등에 앞장설 터"



인천불교총연합회 제 32대 회장으로 취임한 능혜 스님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인천 용궁사=김주일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인천교구 종무원장이자 인천 용궁사 주지 능해 스님의 인천불교총연합회 제 32대 회장 취임식이 11월 29일 영종도 국제도시 인천 용궁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인천불교총연합회 상임고문 법륜스님,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 태고종 호법원장 혜일 스님, 인천불교총연합회 고문 대은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주지 계성 스님 등 각 불교계 원로 스님들을 비롯해 배준영 국민의 힘 국회의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능해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인천불교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회원들간의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 종파를 초월해 일불제자로서 승가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구감소와 결혼기피, 출산 감소 등 우리의 사회문화는 다양한 패턴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놀이문화의 확산 등 종교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럴때일수록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찾아가는 포교를 해야한다. 다양한 포교 문화를 통해 불자들을 늘리는데 우리 연합회가 한데 힘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능해 스님은 "우리 연합회가 각 사찰의 어려운 문제들을 앞장서서 도와드리고 함께하는 등대지기 역할을 하겠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례화 해서 체계적인 불교교육과 홍법의 초석을 다져서 청소년들이 불자로 성장하는데 연합회가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세계는 한가족 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문화 가정을 불자화 하는데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도 "이번에 회장에 취임한 능해 스님은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을 시작으로 교무부장, 중앙종회의원, 총무부장, 종정예경실장 등 다양한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분"이라며 "현재는 총무원 재경부원장 등을 맡아 종단 운영과 발전에 진력하고 계신다. 또한 이곳 천년고찰 용궁사를 불자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우뚝 세웠다"며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는 용궁사 성역불사를 시작으로 2021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76호인 수월관음도를 보수해 모시는 등 이운 봉안법회를 비롯해 지난해에는 대웅보전을 새로 건립해 중창불사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치하했다.

한편 인천불교총연합회는 16개 종단 380여 사찰이 손잡은 인천 최고의 불교연합이자 지역의 대표단체로 75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인천불교총연합회는 7월 19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가든서 치러진 제 32대 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능해 스님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현재 영종도 용궁사 주지인 능해 스님은 1975년 출가해 박서봉 스님에게 사미계를, 안덕암 스님에게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수료했으며, 태고종 중앙승가강원을 졸업한 뒤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파라미타 환경보호감시단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불교태고종 인천교구 종무원장, 한국불교문화예술사 연구회 총무이사, 인천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으로 재임중이다.

범어사 '삼국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범어사 소장본 등 3종 등재 결정
삼국유사 소장 사찰, 범어사 유일


범어사 소장본 〈삼국유사〉 표지.

고려시대 고승 일연 스님 편찬한 〈삼국유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올해 6월 등재 신청한 〈삼국유사〉와 〈내방가사〉,〈태안유류피해극복기록물〉이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상북도 안동에서 열리고 있는 제9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Memory of the World Committee for Asia and the Pacific) 총회에서 심사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목록으로 26일 최종 등재됐다"고 밝혔다.

〈삼국유사〉는 1281년 일연(1206~1289) 스님이 편찬한 역사서로, 한반도의 고대신화를 비롯하여 역사, 종교, 생활 등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담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목록에 등재된 〈삼국유사〉 기록물은 '범어사 소장본(범어사성보박물관 소장)'을 비롯한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등 총 3종이다.

〈삼국유사〉 범어사 소장본은 1394년에 목판을 찍어 만든 조선 초기본으로 현존본 중 가장 빠르고 다른 판본들과 달리 구결이 들어있으며 판각상태가 뛰어나 인출 및 보존 상태가 우수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권5의 시작 부분에 〈삼국유사〉를 집필한 장소인 경북 군위 '인각사(麟角寺)'와 저자 '일연(一然)'이 표기된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이라는 점에서도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사찰에서는 범어사가 유일하게 〈삼국유사〉를 소장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이번 유네스코 아 · 태 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삼국유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전시, 교육, 기념행사 및 자료발간 등 학술적인 연구와 활용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세계기록유산 〈삼국유사〉를 매개로 한국의 문화유산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네스코 아태 기록유산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단위에서 시행되는 유네스코 기록유산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편액(2016), 만인소(2018), 조선왕조 궁중현판(2018) 등 3건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삼국유사〉등 3건이 추가 등재됨으로써 아태 기록유산은 총 6건으로 늘었다. 신성민 기자

강화 묘지사지서 고려 온돌 건물지 확인

강화문화재硏 평탄지 조사 발견
'대몽항쟁' 강화도 천도기 추정
13세기 온돌 문화 확인할 유구


강화 묘지사지 건물지 근경. 이곳에서 고려 강화 천도시기 대형 온돌 건물지가 확인됐다.

강화 묘지사지에서 고려시대 대형 온돌 건물지가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소장 김지연)는 "고려 강도시기 사찰 유적인 강화 묘지사지(妙智寺址)에서 대형 온돌 건물지를 확인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강도시기(江都時期)는 몽골 침략에 맞서 강화도로 천도한 1232년(고종 19년)부터 1270년(원종 11년)까지 시기를 의미한다.

〈고려사〉에 따르면 묘지사는 1264년(고려 원종 5년) 왕이 마니산 참성단에서 초제(醮祭, 무속이나 도교에서 별을 향해 지내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 거처했던 사찰로, 마니산 동쪽의 초피봉 남사면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묘지사지는 산 사면에 축대를 쌓아 조성한 2개의 평탄지로 이뤄져 있는데, 그중 상단 평탄지에 대한 조사에서 해당 온돌 건물지를 처음 확인했다.

건물지는 동서 너비 16.5m, 남북 길이 6.3m의 5칸×2칸 규모로, 남편 기단 양쪽 측면부가 앞으로 돌출된 구조다. 온돌은 동편 일부를 제외한 방 전체에 시설됐는데, 방 양쪽에 온돌이 각각 분리되어 설치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각 온돌의 아궁이는 건물지의 동쪽 칸 및 서쪽 돌출부에 조성돼 있다. 아궁이를 통해 유입된 화기가 각각 3줄 및 2줄의 고래를 통해 방 전체를 'ㄷ' 형태로 회전하면서 방을 덥힌 다음 북편 기단 외곽의 배연구로 빠져나가도록 설계됐다. 특히 온돌방에 설치된 고래와 고래둑은 너비 40~60㎝, 고래둑 위에 얹어진 구들장은 길이 70~120㎝로 지금까지 확인된 다른 온돌 시설물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크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방 전체에 온돌을 시설한 전면온돌은 대체로 고려 후기부터 등장해 정착된 것으로 여겨지나, 이 시기의 구조가 명확한 대형 온돌 건물지는 확인되는 사례가 드물다"면서 "이번에 조사된 온돌 건물지는 13세기대 전면온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온돌 구조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학술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보급 유물 출토 '흥전리사지' 사적 지정

문화재청 11월 28일 지정공고
발굴서 '국통' 등 비편 출토돼
당시 위세 높았던 巨刹로 추정


삼척 흥전리 사지에서 출토된 '국통(國統)' 명 비편. 당시 사찰의 위상을 가늠케 하는 유물이다.

삼척 지역을 대표하는 산지 가람이자 신라 승관사찰로 추정되는 '삼척 흥전리 사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흥전리 사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삼척 흥전리 사지'는 문화재청이 '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실시한 '중요 폐사지 시 · 발굴조사'를 통해 조명된 유적이다.

2014년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9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됐으며, 완벽한 형태의 청동정병 2점, 인주까지 함께 남아 있는 인주함, 금동번 투조장식판, 금동사자상 등 지금까지 사찰 유적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유물들이 양호한 상태로 출토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함께 '삼척 흥전리 사지'가 통일신라후기~고려전기에 강원도 동부지역의 유력한 선종사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유물인 '국통(國統, 신라시대 국왕의 고문 역할을 한 승려를 지칭)', '대장경(大藏經)' 글자가 새겨진 비석조각과 '범웅관아(梵雄官衙)' 글자가 새겨진 청동관인 등이 출토됐다. 범웅관아 관인에서 범웅(梵雄)은 '석가모니', '부처'를 의미하며, 관아(官衙)는 승관(僧官)을 뜻해 삼척 흥전리 사지가 신라 승관사찰임이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삼척 흥전리 사지는 그동안 문헌으로만 확인되었던 신라 승관제도를 유구와 유물을 통해 실증하는 유적으로 지방 세력을 견제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일신라의 통치 방식을 엿볼 수 있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통일신라~고려시대 불교미술의 뛰어난 예술성과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는 출토유물들이 있으며, 다원식 공간 배치와 다양한 형태 및 시설을 갖춘 건물지들은 고대 산지가람에 대한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여 미술사 · 건축사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평가된다"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신임 불교학연구회장에 남수영 교수

11월 19일 정기총회서 선출
"젊은 불교학자 발굴 · 지원"



불교학연구회 제13대 회장에 남수영 능인대학원대학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불교학연구회는 "11월 1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13대 회장으로 남수영 교수를 선출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남수영 신임 회장은 "한국 역사는 불교를 빼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국인의 삶과 인생도 불교를 빼고 설명하기는 힘들다"며 "저는 제 삶과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 불교 공부를 시작했고, 이것이 나를 이롭게 하고 타인도 이롭게 하는 첫 걸음이라 생각했다. 이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교 공부는 방대하며 혼자서는 폭넓은 분야를 연구할 수 없다"며 "학회의 구성원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모자란 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우리 불교학연구회가 유지되고 발전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2년동안 젊은 학자들 지원 등에 진력할 뜻을 밝혔다. 그는 "임기 동안 임원들과 협력해 다양한 전공 분야의 불교학자들에게 공평하게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실력있는 젊은 학자들을 발굴하겠다"면서 "학자들에게 열린 학문 · 토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불교학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회장은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했으며,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청주대 철학과 외래교수와 동경대 문학부 연구원, 중앙승가대 외래교수, 동국대 인도철학과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저서와 역서로는 〈중관사상의 이해(2015)〉〈중관학파의 실유비판 연구(2007)〉〈고려대장경 해제(1998)〉〈공과 중관(2015)〉〈용수의 중관사상(2010)〉〈용수의 공사상 연구(1999)〉〈힌두이즘(1996)〉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중관학파에서 무상정등각의 성취(2018)' '유식학파의 중도 개념 재검토(2017)' 등이 있다. 신성민 기자

능인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신설

11월 22일 교육부서 승인해
신입생 모집…전액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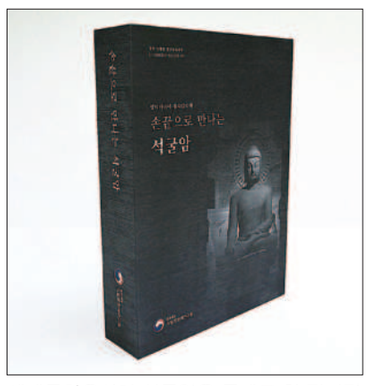
능인대학원대학교(총장 지광)에 박사 과정이 신설됐다.

능인대학원대학교는 "11월 22일 교육부로부터 2023학년도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불교학과(불교학 · 전법학 · 불교의례학 · 불교문화학), 명상심리학과(명상상담 · 임상 및 상담심리) 신설을 승인받았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능인대학원대학교는 2023학년도에 석사과정 30명, 박사과정 1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며,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능인대학원대학교 총장 지광 스님은 "우리 학교의 박사과정 설치 신청이 드디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이제 능인대학원대학교는 석사와 박사과정을 온전히 갖추며 명실상부한 학문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시각장애인 위한 '석굴암 점자책' 발간

국립문화재연구원, 점자 감각책 · 촉각 교구 개발
전국 점자도서관, 맹학교 배포
"시각장애인 문화 향유에 도움"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을 주제로 한 점자감각책 〈손끝으로 만나는 석굴암〉.

시각장애인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석굴암을 체험할 수 있는 점자책과 촉각 교구가 개발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 이하 연구원)은 "시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을 주제로 점자 감각책 〈손끝으로 만나는 석굴암〉과 입체 촉각 교구를 제작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뛰어난 예술성과 건축 기술, 그리고 국제성을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된 점자 감각책 〈손끝으로 만나는 석굴암〉은 문화유산 전문 사진작가인 故 한석홍 작가가 촬영한 석굴암 대표 사진의 주요 조각상과 쉽고 흥미롭게 풀어쓴 석굴암 이야기를 손끝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각각 점화와 점자로 나타냈다. 또한, 소리펜과 QR코드를 이용해 성우의 음성 설명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연구원은 석굴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손끝으로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3D 스캔과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입체 촉각 교구도 함께 제작했다. 입체 촉각 교구는 단단한 화강암을 네모난 석판으로 만들고 조각한 후 정교하게 쌓아 올린 석굴암의 건축적 특징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는 '석굴암 3D 입체 모형'과 석굴암의 재료인 화강암 재질의 촉감을 생생하게 재현한 '본존불'과 '십일면관음보살'의 얼굴 부조상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원은 이번에 제작한 점자 감각책은 내년 1월 중 국내 점자 도서관 210곳에 배포하고, 점자 감각책과 촉각 교구 세트는 전국 맹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 폭넓게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평론 겨울호…'현대 중국불교' 특집



불교 대표 학술계간지 〈불교평론〉 2022년 겨울호(통권 92호)가 발간됐다.

2022년 겨울호는 특집으로 '현대 중국불교의 현실과 전망'을 다뤘다. 이번 중국불교 특집에서는 전문 학자 5명이 중국특색사회주의로 일컬어지는 체제와 불교가 어떻게 공존을 모색해왔는지, 앞으로 중국불교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갈지 전망했다. 특집 논문에는 △문화대혁명 이전 사회주의 중국의 불교(김영진) △문화대혁명과 중국불교(서대원) △마르크스주의와 불교 그리고 그 이후(지혜경) △중국공산당 불교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현재(강경구) △현대 중국불교의 발전을 이끈 불교인들(전영숙) 등이 수록됐다.

'세계의 불교학자'에서는 유럽 불교학자로는 드물게 정통불교도의 길을 걸으며 빨리어 경전 번역에 일생을 바친 칼 오이겐 노이만을 소개하며, '나의 삶 나의 불교'에서는 〈고승열전〉을 집필하는 등, 대표적인 방송작가로 잘 알려진 윤청광 선생의 회고담을 실었다.

이번 겨울호의 '불교소설'은 중견 소설가 이원규 씨의 단편 〈환상방황(環狀彷徨)〉이 게재됐다. 소설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살생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정신적 고뇌를 그려, 전쟁의 비극이 초래하는 종교적 모순을 인간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12월 1일 정각원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법회에는 동국건학 ·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생 113명이 동참했다. 사진은 연비를 받고 있는 장학생들의 모습.

동국대 건학위 장학생들 불제자로 거듭나다

건학위원회 12월 1일 정각원서 첫 수계법회 봉행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전계사로
건학 · 지역미래불자육성 장학생
113명 한자리서 수계받고 불자돼
"계, 범부 벗어나 성인 되는 씨앗"
수계 학생들 "불교 널리 알릴 것"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계를 받는 저희들은 지금 대덕 큰스님을 청해 계사 스님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대덕 큰스님에게 의지해 삼귀의계와 오계를 받고 올바른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사오니 원하옵건대, 대덕 큰스님께서는 청정한 계를 주옵소서."

인례사 스님들의 선창에 따라 수계자들이 수계법사를 모시는 청을 우렁차고 간절하게 올렸다. 간절한 수계의 청을 올린 사람들은 동국대 건학위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 이들은 이날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불제자로 거듭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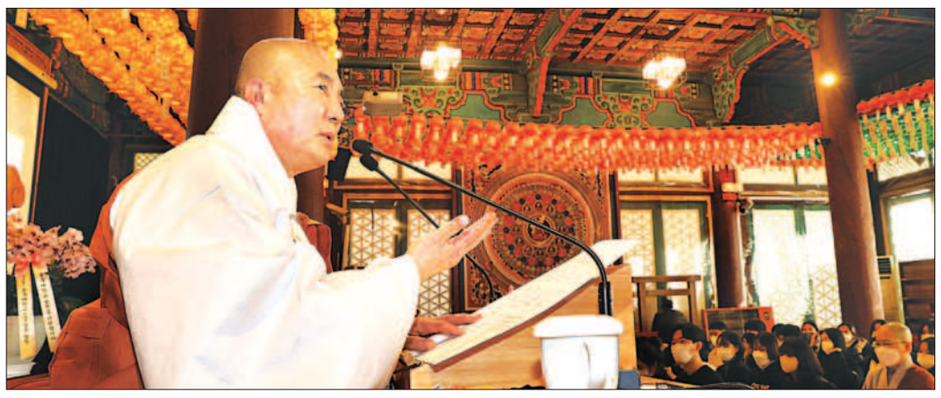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12월 1일 교내 정각원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를 받은 학생들은 동국건학장학생과 지역 미래불자 장학생들로 총 113명이 동참했다.

신행 · 인재육성 두 토끼를 다 잡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이후 다양한 장학제도를 신설해 운영해 왔다. 이는 고문 자승 스님이 "동국대를 등록금과 취업 걱정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원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승 스님은 건학위원회 장학기금으로 10억 원을 기탁했다. 이는 '동국건학장학'의 기틀이 됐다. '동국건학장학'은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제도로, 서울캠퍼스 30명, 경주캠퍼스 3명, 의료원 2명 등 35명이 1기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동국대는 장학생 선발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해외탐방 프로그램 △진로지원 △장학생 모임 △졸업 커뮤니티 구성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건학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지역 사찰이 동국대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에게 직접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사찰은 1000만 원의 장학기금으로 10명의 지역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사찰 · 스님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사찰 스스로 '우리가 선발한 특별한 장학생'이라는 애정을 갖게 하고, 학생들 역시 '출신 지역 사찰에서 선발된 장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긍정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25개 사찰이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에 동참했으며, 전국에서 상경해 동국대에서 수학 중인 학생 300여 명이 장학혜택을 받았다. 이 같은 건학위원회의 장학제도는 신행과 인재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전계사로 나선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이 오계의 의미에 대해 설하고 있다.

이날 수계법회도 '신행+장학생'이라는 건학위원회의 장학시스템이 있어 이뤄질 수 있었다.

"수계, 어두웠던 방에 등불을 밝히는 것"

수계 학생들의 청에 법상에 오른 전계사 돈관 스님은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자비심을 가져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복과 덕을 지어라 △그릇된 행동을 하지 말고 청정한 행을 지켜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중독성 물질을 가까이 하지 말고 맑은 지혜를 기르라는 부처님 오계의 의미를 설명했다.

돈관 스님은 "무릇 계라고 하는 것은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기본이 되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이 되는 씨앗"이라며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그 터전이 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의 계는 성불의 계단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라고 설했다.

이어 "부처님의 계는 남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가르치는 것이니 우리 불자들의 굳건한 생활신조이며 행동강령"이라며 "이제 계를 받는 것은 천년동안 어두웠던 방에 등불을 밝히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은 광명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축원했다.

전계사 스님에게 오계의 의미를 들은 수계 학생들은 참회진언을 외웠고, 인례사 스님들은 학생들의 왼팔에 연비를 내렸다.

수계를 마친 학생들은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청년불자로 거듭날 것을 발원했다. 학생들은 발원문을 통해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부처님의 성품이므로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불자가 되겠다"면서 "늘 청정한 생활 속에 기쁨을 나누는 불자가 되겠다. 올바른 말과 밝은 슬기로 빛나는 생활을 열어 갈 것을 서원한다"고 밝혔다.

"불자가 돼 행복합니다"

불제자가 된 동국대 건학장학생들 건실한 청년불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내보였다. '보련'이라는 법명을 받은 왕정은(교육학과, 동국건학장학) 학생은 "정각원 수목법회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신행 생활을 했지만, 수계를 처음 받았다"면서 "마음 깊이 불법 새기고, 실천하며 또래 청년들에게 불교를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인(건설환경공학과,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학생은 '아란'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그는 "템플스테이나 걷기순례를 해본 적은 있었지만, 수계를 받고 불자가 되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종립학교 정광고를 다니며 수계를 받았던 김윤미(경영학과, 동국건학장학) 학생은 "대학생이 돼 수계를 받으니 고등학교와는 성취감이 다르다"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오계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담'이라는 법명을 받은 장대한(경찰행정,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학생은 "무종교인이었는데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을 통해 쌍계사와 인연을 맺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수계법회는 처음인데 정각원 스님들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즐겁게 수계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기회를 준 쌍계사와 건학위원회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돈관 스님이 학생 대표로 김영인 학생에게 계첩을 수여하고 있다.



수계 학생들이 장궤합장을 하며 참회진언을 외우고 있다.



수계법회에 동참한 학생들이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 수계법회 전경 모습.

‘쿠무다’ 개원 9주년 · 명상문화센터 1주년 기념행사

12월 9일 쿠무다 명상문화센터서
개원 9주년 · 개관 1주년 기념법회
12월 26일 종로 JCC 아트센터서
6월 설립 명경문화재단 설립기념
조윤성 피아니스트 음반 발표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KUmuda, 이사장 주석)가 ‘개원 9주년 및 명상문화센터 신축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법회 및 음악회를 부산과 서울에서 개최한다.

‘쿠무다 개원 9주년 · 신축개관 1주년 기념 법회’는 12월 9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쿠무다 명상문화센터 지하1층 콘서트홀에서 봉행한다.

기념 법회는 축하와 함께 비전을 선포하고 우수 직원에게 시상하는 등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며 발원을 세우기 위해 마련된다. 법회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식전 공연으로 ‘트리오 리우’의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삼중주가 펼쳐진 후 법회 및 축하 무대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12월 26일 오후 7시 서울 종로 JCC 아트센터에서는 쿠무다가 지난 6월에 예술인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명경문화재단의 설립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의 명상음반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소리-노르딕 챈트(NORDIC CHANT)’ 제작 발표회로 열린다. 쿠무다 후원으로 제작된 조윤성의 명상음반을 소개하며 쿠무다의 문화예술 인재양성 사업을 전담할 재단법인 명경문화재단 설립을 기념하는 행사다.

쿠무다가 제작비 전액을 지원한 음반에는 라싸로 가는 길, 조로서도, 시바의 춤, 티베트로 간 바흐, 헬싱키의 새벽종, 운남의 밤 등 12곡이 수록됐다. 수록곡은 조윤성 씨가 북유럽 음악에 관심이 많던 2017년 당시 핀란드 헬싱키를 여행하며 매일 일기를 쓰듯 즉흥연주로 만든 곡들로, 정(靜)과 동(動)을 오가며 멈춤과 이어짐의 연주가 명상의 세계로 이끈다.

모친과 함께 도선사를 다니며 불교를 가까이 하게 된 조윤성 씨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기념 앨범 ‘소중한 만남’에도 참여했다. 지난 5월 8일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부처님오신날 특별 공연을 하며 쿠무다와 인연을 시작했다. 음악회는 전석 초대석으로 진행된다.

조윤성 씨는 “쿠무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종교와 인종을 넘어 치유의 음악을 들려줄 수 있어 행복하다”며 “음악으로 위로하는 연주자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쿠무다 개원 9주년 · 신축개관 1주년 기념 법회’가 12월 9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쿠무다 명상문화센터 지하1층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진행한 쿠무다 명상문화센터개원식 모습.

조윤성 씨는 아르헨티나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음악원에서 정통 클래식 수업을 받았으며 미국 버클리 음대와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했다. 미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정상을 향해 질주하는 젊은 재즈 연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까지 재즈코리아, 라틴코리아 등 10장의 정규앨범을 발표했으며 루시드폴, 폴킴, 윤종신, 이상순, 이은미 씨 등의 편곡자로도 활동 중이다.

불교와 문화예술의 만남을 통해 위로와 치유의 장을 열어 온 쿠무다는 경남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시작해 부산 달맞이 언덕을 거쳐 송정으로 전법의 여정을 이어 온 대한불교조계종 대운사를 뿌리로 둔 문화예술사단법인이다. 쿠무다는 현대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문화예술’을 키워드로 불교와 현대사회의 새로운 소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산스크리트어로 ‘연꽃’을 뜻하는 ‘쿠무다’는 북카페 쿠무다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며 꾸준히 문화포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 북콘서트, 전시회,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음악회,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문화예술 분야 인재양성 후원사업 등을 펼쳤으며 지난해 12월 9일에는 명상문화센터를 건립했다.

쿠무다는 명상문화센터 개관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소장 작품전 ‘인연’ 서울 · 부산 전시회, 신년음악회, 봉축음악회, 명상 걷기 등을 개최하며 자체 기획 공연과 문화행사를 새롭게 펼치고 있다. 또 지난 4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부산클래식발전협의회와 협력해 문화프로젝트 ‘이-음 콘서트’도 진행 중이다. 부산문화재단과의 업무협약식을 통해 부산의 문화공연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재단법인 명경문화재단은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가 문화예술 인재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6월 설립한 문화재단이다. 예술인들에게는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일반인들에게는 문화예술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발원하고 있다. 그 시작으로 지난 7월 7일 동국대학교에 문화예술 인재양성 지원금 3억 원을 향후 10년간 매년 3000만 원씩 후원하기로 약속하고 첫 기부를 실천했다.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쿠무다를 찾아주시고 즐겨주신 그리고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법회와 공연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쿠무다는 문화예술을 통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위로와 치유를 전하며 모두에게 최상의 행복을 전하는 활동을 더욱 다양하고 활발하게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호국도량 금련사, 全軍의 전법도량으로

11월 25일, 창건 50주년 기념법회

1972년, 한수 이남 최초 군법당
월남전 승전과 평화 위해 건립
종각 범종 월남전 탄피로 조성
도심 포교 호국 제일도량 발원

월남전 참전용사의 무사 귀환과 승전을 기원하며 창건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제2보급단 부산 금련사(주지 명법)가 창건 50주년을 맞아 11월 25일 경내 법당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창건이념을 돌아보고 도심 속 호국 제일도량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는 법회에는 군종특별교구장 능원 스님,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 김덕수 금련사 초대 주지를 비롯한 역대 주지 스님들과 마태준 육군종합보급창장, 송숙희 부산시 여성특별보좌관, 전봉민 국회의원, 강성태 수영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회는 △개회선언 △삼귀의 △반야심경 △연혁소개 △인사말 △감사패 및 감사장 수여 △축사 △법문 △축하무대 △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도들은 역대 주지스님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감사인사를 전했으며, 창건 이후 모범적인 신행생활과 봉사로 금련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에


금련사가 창건 50주년을 기념하며 11월 25일 경내 법당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천병태 총신도회장이 총무원장 감사장을 받았으며 백말선, 강훈자, 조재흔, 김선희, 강복선 불자가 교구장 감사장을 수상했다. 이어 사령관 감사패는 공형박, 김병수, 하숙이 불자가, 창장 감사패는 이병승, 임은숙, 박금자 불자가 받았다.

군종특별교구장 능원 스님은 법문에서 “무엇보다 수행과 교화로 중심을 잡고 조화롭게 성장해야 한다”며 “신심과 공심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군종 제일 호국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련사 주지 명법 스님은 “금련사는 역대 주지스님들의 노고와 포교활동이 있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다”며 “지금도 함께해주시는 모든 신도님들의 원력에 감사드린다. 오늘 법회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은 “금련사는 불교와 첫 인연을 맺는 젊은 장병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고, 현역 부사관 및 간부들에게는 편안한 귀의처로서 포교와 전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청년 포교의 핵심인 군포교에 진력을 다하며 도심포교에도 앞장 서온 금련사는 군종 사찰의 모범”이라며 격려했다. 아울러 보운 스님은 금련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마태준 육군종합보급창장은 “금련사는 한수 이남 최초의 군사찰이자 지역 주민과 장병들의 마음의 안식처로 역할을 다해왔다”며 “50년의 역사를 간직한 금련사에서 밝혀지는 연등이 희망의 등불, 민족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호국의 등불이 되어줄 것을 소망하며 창건 50주년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금련사는 1972년 11월 22일 한수 이남 최초의 군법당으로 건립됐다. 당시 월남전의 승전과 평화를 기원하는 도량으로 창건됐으며, 특히 종각의 범종은 월남전의 탄피를 모아 조성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창건 배경은 1972년 3월 10일 초대 주지인 재원 김덕수 법사를 중심으로 뜻있는 불자들이 함께 동참해 법당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불사 성취를 위해 범어사 능가 스님, 강석진 동명목재 회장 등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원호에 힘입어 4월 28일 기공식 후 12월 13일 낙성식을 거행했다. 당시 故 박정희 대통령이 ‘금련사(金蓮寺)’란 사명(寺名)을 명명하고 친필로 대웅전 및 금련사 휘호를 하사했으며, 친필 원본은 금련사 교육관 장경각에 보존되어 있다.

창건 이후 불사를 거듭해 대웅전과 해수관음전, 지장대불전, 종각, 요사채, 교육관 및 부설 유치원 등을 구비해 도심 속 참회정진 기도도량으로 정착했으며, 현재 비구니 최초 군승인 명법 스님이 군법사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교사단 부산, 기후위기 걷기 명상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 이하 부산포교사단)이 11월 26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일대에서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걷기명상’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 종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 생태환경 지구 만들기’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보운 스님과 범어사 포교국장 눌은 스님을 비롯해 송재린 단장, 강태산 사무국장 등 부산포교사단 단원들이 동참했으며 입재식 및 명상 걷기, 회향 등으로 진행됐다.

입재식에서 보운 스님은 “산업화 시대에 인간들은 자연을 착취하는 데 급급했으며 자연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며 “오늘 열리는 기후위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걷기명상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자연과 생명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불교행동실천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고 격려했다.



송재린 단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고 포교사단이 주관하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걷기명상’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오늘 행사는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을 위한 조계종 생명전환 불교운동인 전환, 지족, 순환, 참여 4대 기조와 방향을 실천하며 이를 불자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범어사 포교국장 눌은 스님은 “일상생활 가운데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며 “전법의 일선에서 기후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포교사로 성장하고 일상 가운데 환경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11월 24일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한 달간 〈화엄경〉을 주제로 열리는 화엄산림대법회는 국내 최고 화엄산림 법회로 전국의 불자들이 모이는 정진의 법석이다.

입재법문에서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신구의 청정으로 산란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법회에 참석해서 화엄법문을 들어야한다.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청정한 마음으로 받아 지녀야 진정한 깨우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화엄산림법회 기간은 한 달간 화엄의 도리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어려웠던 코로



나 기간을 마무리하고 얼굴을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모든 소임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도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저녁예불 후 ‘법성게’ 기도를 이어가며 일요일에는 합동 천도재를 봉행한다. 회향은 12월 22일이며 종정 성파 대종사의 회향법문으로 마무리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개인택시불자회, 창립 34주년 기념법회

11월 24일,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서

달리는 법당 부산개인택시불자회(회장 이무영, 이하 개인택시불자회)가 11월 24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창립 3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개인택시불자회는 생명나눔실천운동 부산본부에 난치병 환우돕기 후원금 200만 원, 영도구 노인복지관에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정채빈(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외 19명의 소년소녀가장학생에게 각 1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전달했다.

개인택시불자회는 시상식에서 불교연합회장상, 연합신도회장상, 지도법사상, 조합이사장상, 금고이사장상, 개인택시불자회회장상을 수여했으며, 수상자는 서철원, 안우영, 이상철 회원(불교연합회장상), 김성곤, 김순식, 구인규 회원(연합신도회장상), 손문기, 이정호, 차재호 회원(지도법사상), 최성호, 노규완, 박철성 회원(조합이사장상), 심성기, 이기성, 유장묵 회원(금고이사장상), 이갑순, 박기묵, 박경태 회원(개인



택시불자회회장상)이다.

보운 스님은 “창립 34주년을 맞은 개인택시불자회는 부산불교계의 대표적인 신행단체다. 생업의 일상 속에서 신행을 놓지 않고 병행하며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신심과 원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이무영 회장은 “우리 부산개인택시불자회는 1988년 7월 부산불교신도회관에서 창립해 벌써 34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단체로 발돋움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봉사와 재능기부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힐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연탄불공회’, 난방유 후원

조계종부산聯, 영도구노인복지관 외 10개 복지관 전달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가 11월 25일 부산 영도구노인복지관에서 ‘2022년 무비 스님과 함께하는 연탄불공회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무비 스님과 함께하는 연탄불공회’는 2017년 범어사 무비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의 발원으로 시작됐으며, 매년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 소외 이웃을 위한 난방비 후원 사업이다.

이번 전달식에서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난방비 1300만 원을 영도구노인복지관 외 10개 노인복지관에 전달했으며 난방비는 저소득 노인 가구 55세대에 전달됐다.

전달식에는 사무총장 석산 스님, 정행 스님, 도진 스님, 학산 스님을 비롯해 박시우 부산광역시노인복지관협회 협회장 등 지원 복지기관 기관장 등이 동참했으며 행사는 인사말과 지원사업 사업 일정 안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전달식 이후 스님들은 영도구 지역 내 지원세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난



방유를 넣어주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했다.

석산 스님은 “무비 스님의 큰 발원을 시작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난방 지원 사업을 이어오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연합회는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따뜻함을 전하는 단체로 성장할 것”이라 밝혔다.

박시우 협회장은 “어르신들은 겨울이 다가오면 무엇보다 추위를 견디기가 힘들다.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자비의 김장나눔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11월 29일 경내 대중공양실에서 자비의 김장나눔을 진행했다. 범어사는 매년 소외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 범어사는 배추 4000여 포기로 김장을 담갔으며, 그 가운데 500포기를 산하 사회복지법인 범어에 전달했다. 김장김치는 사회복지법인 범어 소속 복지기관 14곳에 전달해 소외이웃에게 회향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범어사 총무국장 범종 스님, 포교국장 눌은 스님을 비롯해 신행단체 보현회, 관음회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법화종, 안정사서 법계품수…총본산 위상회복

11월 25일 제19회 법계품서식 봉행
도선 스님 전계대화상…118명 대상
대종사 송현·공명·암현 등 스님
"본산 안정사 정상화 대내외 천명"

성낙두 경남지사장



법화종은 11월 25일 통영 안정사에서 제19회 법계품수 및 가사 수여식을 봉행했다. 이날 품서식에서는 법계고시를 통과한 전국교구 118명이 새 법계를 품수했다.

오랜 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법화종이 총본산 안정사에서 118명 스님을 대상으로 대규모 법계품수식을 거행해 주목된다. 이번 법석은 전국교구 종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종단 정상화를 대내외로 천명하고 미래를 다지는 초석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특히 안정사는 그동안 법화종 정상화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만큼, 안정사에서 봉행된 이번 법계품서식을 총본산의 위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법화종(총무원장 관효)은 11월 25일 통영 안정사(주지 원담)에서 제19회 법계품수 및 가사 수여식을 봉행했다. 이날 품서식에서는 법계고시를 통과한 전국교구 118명이 새 법계를 품수했다. 특히 마산교구 송현 스님, 경주교구 공명 스님, 강원교구 암현 스님, 경북교구 도광 스님·법원 스님 5명이 종단 최고법계인 대종사 반열에 올랐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봉행사에 앞서 안정사 주지 원담 스님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날 법석의 의미를 전했다. 스님은 "오늘 법석은 안정사가 우리 종단의 총본산임을 종도 모두에게 천명하는 동시에, 앞으로 총본산으로서 그 역할을 회복하고 위상을 제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종단 차원이 통일 가사불사를 통해 종단 정체성을 되찾고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현실화하고자 한다. 그동안 어수선했던 종단 모습을 일신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법계품서식은 종정 도선 스님이 전계대화상을 맡은 가운데 원로의장 보명 스님을 갈마아사리로, 원로부의장 근파 스님을 교수아사리로, 원로의원 스님들을 존증사로 모신 가운데 진행됐다.

법계품수자 118명은 지난 9~10월 전국교구에서 일제히 시행된 법계고시를 통해 승급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이 가운데 최고법계인 대종사에 5명 원로스님이 선정됐다. 대종사 승급자들에게는 법계증, 가사와 함께 불자가 수여됐다. 종사법계는 총무원장 관효 스님을 비롯한 19명, 승정법계는 31명, 대법법계는 30명, 중법법계는 22명, 선법법계는 11명에 품수됐다.

종정 도선 스님은 법어를 통해 법계품수자들에게 '오종법사(五種法師, 받아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옮겨 쓰는 법사)'를 수행의 귀감으로 수지토록 설한 데 이어, 전 종도들에게 "모두가 종단의 기둥이 되어주길" 바라다며 간곡한 당부를 전했다.

도선 스님은 "우리 종단 총본산인 안정사를 잃을 심각한 위기 속에서 몇 명의 소임자 스님들이 치열한 노력으로 이를 되돌려 오늘 법석이 마련될 수 있었다"며 "종단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집행부 소임자 일부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다. 기둥이 적으면 작은 혼란에도 위태롭게 흔들리지만 기둥이 많으면 어떠한 위기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기에, 종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기둥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가리고 감추어도 썩어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어느 것이 참인지 알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 원로 스님들과 중앙종회의원들, 집행부 소임자 스님들은 가리고 감추기보다 썩어있는 부분을 고치고 바로잡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원로는 원로대로, 종회는 종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본분을 찾고 이에 충실하면서 원융살림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원로의장 보명 스님도 이날 법석에 대해 남다른 소회를 전했다. 스님은 "1년 전만해도 안정사에서 오늘과 같은 의미 있는 법석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에 더욱 감개무량하다. 집행부의 노력이 없었다면 법계품서식은 물론, 영원히 안정사에서 종단행사를 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다"며 "오늘 법계를 받은 스님들은 인천의 스승으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뿐 아니라 종단 화합과 원융살림을 열어가기 위한 법화행자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주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13대 회장에 정문섭 회장취임
봉사활동 위한 밥차 전달식도



진주불교대학 총동문회장 13대 회장에 취임한 정문섭 회장이 총동문회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진주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정문섭)는 11월 25일 진주 시청 앞 제이스퀘어호텔 4층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또한 동문들의 힘으로 마련한 밥차 전달식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진주불교대학학장 무애사 성공 스님, 대광사 상전 스님, 여적암 종민 스님, 정문식 회장, 김진곤 前 회장, 박대출·강민국 국회의원, 양혜영 진주의회의장, 강종용·허종도 부학장, 자문위원, 백정민 사무국장, 산하단체장, 불교대학회원 및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13대 회장에 취임하는 정문섭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문들의 뜻을 잘 받들어 진주불교대학의 활성화와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총동문회가 되겠다"며 "진주불교대학이 명실상부한 지역 재가불자들의 요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주불교대학장 성공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동문·도반님들이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진주불교대학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공 스님은 정문섭 회장에게 당선증과 함께 동문들이 마련한 무료급식밥차의 열쇠를 전달했으며 김진곤 전임 회장은 정문섭 신임 회장에게 진주불교대학 총동문회기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무료급식밥차는 2021년 10월 30일 경남문화예술회관 야외특설무대에서 무료급식밥차 기금마련을 위한 행사를 통해 불자들의 후원금과 진주 무애사 성공 스님, 불교대학동문들의 모금으로 마련됐다. 무료급식밥차는 오는 12월부터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이날 행사에서 허종도, 강도용 불자가 진주불교대학 부학장 임명장을 받았으며, 백정민 불자가 총동문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 2023 진주불교대학 총동문회를 이끌어갈 주요임원은 회장 정문섭, 부회장 박중선, 부회장 강정숙, 사무국장 백정민, 자문위원 최현주, 자문위원 백수연, 자문위원 진달수 등 40여 명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정토마을 간월사, 이태원 참사 천도재

"모두의 어리석음으로 젊은 목숨 잃어" 개탄


울주군 정토마을 간월사가 11월 25일부터 3일간 아미타염불집중수행법회를 봉행했다. 염불수행중인 26일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를 봉행했다.

정토마을 공경전에서 봉행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천도재는 자재병원 원장 능행 스님, 지안 스님, 도우 스님, 경덕 스님, 동심 스님 및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능행 스님은 "대한민국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세상에 태어나 죽음을 알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개탄하고 이 꽃보다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연화장 세계에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했다.

이날 천도재에 동참한 염불수행자들은 모두 함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천도재 후에는 능행 스님과 염불수행자들과의 문답도 진행됐다. 능행 스님은 집에서의 제사와 관련한 질문에 "집에서의 제사는 음식보다는 법성게, 무상게, 금강경, 아미타경 등 경전을 읽는 것을 추천한다"고 답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공덕제 불자는 "젊은 영혼들을 위하여 천도재를 지극하게 지내주신 원장스님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능행 스님이 운영하고 있는 정토마을요양병원은 정토자재병원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임무에 집중하게 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안 쌍봉사 김장김치 나눔

어려운 이웃 100가구에 1020kg 전달


전북 진안의 자비실천 도량 쌍봉사(주지 보경)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진안 쌍봉사는 11월 26일 쌍봉사 앞마당에서 열린 김장김치 나눔에는 쌍봉사 신도회(회장 장미선), 섬김봉사단, 만복의 소리 봉사단,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봉사자 20여 명이 동참했다.

쌍봉사에 집결한 봉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백김치에 들어갈 재료손질과 절임배추를 준비하고 채소를 다듬고 양념을 준비했다. 김장김치를 포장하고 배분하는 작업까지 마친 봉사자들은 배정받은 각 가정에 직접 배달까지 마무리한 후 봉사활동을 마쳤다.

진안 지역 100가구에 전달된 김장김치는 모두 백김치 1020kg으로 홀몸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추운 겨울을 맞이한 어려운 이웃 한 가구당 10kg씩이 전달됐다. 또 최주연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영양찰밥 100개를 김장김치와 함께 전달됐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이렇게 김장김치 나눔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다. 자원봉사자들 한 분 한 분이 따뜻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즐겁게 봉사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김장김치를 받으시는 분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지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미선 쌍봉사 신도회장은 "쌍봉사 불자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김장김치를 어르신들이 드시고 행복한 겨울 지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해인동문장학회 종립학교에 장학금 보시

장학생 72명에 장학증서 전달
해인사승가대 교수연구비 지원도


재단법인 해인동문장학회(이사장 일면스님, 이하 장학회)가 종립학교와 해인승가대학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회는 11월 28일 남양주시 광동중학교 법당 환희원에서 광동고등학교 이준우 학생 등 종립학교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해인동문장학회 이사장 일면 스님은 종립학교 장학생으로 선정된 광동중학교 3명, 광동고등학교 3명, 의정부광동고등학교 3명,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 영석고등학교 6명, 총 15명에게 각각 장학증서와 장학금 50만원, 총 750만 원을 전달했다.

일면 스님은 인사말에서 "해인동문장학회에서 학생들에게 전달한 장학금은 해인사승가대학 동문회 스님들이 십시일반 모은 소중한 기부금"이라며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 여러분들은 해인동문 스님들의 정성을 가슴에 새겨 학업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라며, 지역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를 빛내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1월 22일 해인사 관음전에서 열린 '2022년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해인사 승가대학 학인스님과 동국대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해인사승가대학 장학생 29명, 해인사승가대학 졸업학생 2명, 동국대 및 대학원 외 장학생 26명에게 장학증서와 42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해인사승가대학 교수연구비 500만 원을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남해 망운사 성각 스님 선서화전 개막


국내 유일의 선화(禪畵) 부문 무형문화재(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9호 선화 보유자)이며 절제된 담묵과 담필로 깨달음을 전하는 남해 망운사 성각 스님의 선서화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11월 27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남해유배문학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성각 스님 선서화전은 2022년 남해방문의 해 기념행사로 기획됐다.

11월 27일 열린 개막식에는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 前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쌍계사본말사 주지연합회장 이암 스님, 13교구 말사 주지스님 및 지역스님, 장충남 남해군수, 임태식 남해군의회 의장, 이성권 부산경제부시장,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이오상 KNN대표이사, 탤런트 전원주, 코미디언 심형래 씨와 불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획초대전에는 선재동자(善財童子), 보리달마(菩提達摩) 등 형상화된 소재들을 비롯해 '도피안(到彼岸) 차안(此岸)에서 피안(彼岸)으로 가는 길'과 같은 불교의 가르침과 공안을 그림으로 표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묵으로 승화시킨 작품들은 물론 망운산에 기거하며 자연과 나눈 사계절의 교감들,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미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낸 선서화들이 전시됐다.

성각 스님은 "40여 회에 이르는 선서화 전시회는 베품과 나눔의 이정표가 되었고 수행의 삶을 일깨우며 때론 많은 분들에게 삶의 속진 번뇌를 해탈로서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발원해왔다"며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마무리하며 소승의 작품들을 여러 사부대중께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다"고 밝혔다.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선의 깨달음을 시로 읊으면 게송이 되고 글로 쓰면 선서가 되고 그림으로 그리면 선화가 된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고요한 마음속에 평안을 찾고 정진하는 마음으로 발돋움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금산사 동안거 포살법회·교구종회 개최

매월 본말사 대중스님 정진키로
12월 11일 불교환경연대 출범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주지 일원)가 불기 2566년 임인년 동안거 포살법회와 제3차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11월 29일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포살법회에서 포살법사로 등단한 일원 스님이 대중스님들을 향해 〈범망경보살계 포살본〉을 바탕으로 〈불설범망경〉 보살심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를 설하며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교화하려는 원력을 강조했다.

일원 스님은 "포살법회는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정진하며 안거기간 동안 수행자의 자리를 점검하는 자리"라며 "지혜와 자비로 뭇 중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수행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설법전에서는 17교구 교구종회가 개최됐다.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2022년도 말사 행정지도감사의 건과 불기2567년도 예산계획안의 심의에 이어 금산사 대중화합 정진의 건, 뮤지컬 싯다르타 공연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회의에서 금산사 본말사 대중스님들은 안거철에는 매월 음력 20일마다 금산사에 모여 염불, 간경, 참선 등 삼문정진하고 산철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종단연수프로그램, 경전강의 등의 정진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일원 스님은 익산 정각사 일행 스님, 익산 법성상 혜민 스님, 남원 운지사 용담스님에게 총무원장을 대신해 임명장을 전달했다.

기타토의에서는 전북불교환경연대 창립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그동안 17교구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과 24교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과의 회동을 통해 불교환경연대 출범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12월 11일 수현사 3층 법당에서 창립식을 갖기로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소원정사, 나눔 행사 개최


광주 최고의 '나눔도량'으로 불리는 소원정사가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위한 통 큰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 남구에 위치한 소원정사(주지 도계)는 11월 30일 사찰 앞에서 5200여만 원에 상당하는 자비의 쌀과 겨울 의류, 승보공양 기금을 전달했다.

매년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주목받는 소원정사는 이날 백미 12000kg, 겨울용 패딩 100벌, 어려운 스님들의 의료비 지원 승보공양 기금 550만 원을 남구청(백미 300kg), 동구청(백미 300kg), 북구청(300kg), 자비신행회(300kg, 겨울패딩 100벌), 사단법인 빛고을나눔나무(550만원)에 각각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 장학금 전달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종무원장 월인)은 11월 28일 광주 서구청(청장 김이강)에 장학금 800만 원을 전달했다.

서구청 2층 들불홀에서 개최한 전달식은 월인 스님, 재무국장 명휴 스님, 종회의원 영휴 스님을 비롯해 김이강 서구청장, 윤풍식 서구장학재단 이사장, 고경애 서구의회 의장, 장학금 수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전달한 장학금은 성적우수자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日, 불교 · 가톨릭 함께 합동 세계평화 기도회

러-우크라 전쟁 종식 발원하며
임제종서 히로시마 교구에 제안
불단 받침대에 예수성상도 안치
스님 · 주교 나란히 기도문 낭독
핵무기 폐지 · 다양한 활동 발원

박영빈 객원기자


세계평화와 핵무기 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칸다 케이슈 스님과 시라하마 미츠루 주교.
사진출처=츄코쿠 신문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쟁 종식과 핵무기 폐지를 기원하며 세계평화를 위한 불교와 가톨릭의 합동 기도회가 일본에서 봉행됐다. 종교를 넘어 함께한 기도회에 대해 11월 21일 일본의 '츄코쿠 신문'이 특별보도했다.

일본 임제종 붓츠지(佛通寺)파의 대본산인 붓츠지 대방장(大方丈)에서 봉행된 합동기도회는 지난 6일, 붓츠지파의 종무총장 칸다 케이슈 스님의 제안에 가톨릭 히로시마 교구가 응하면서 성사됐다. 먼저 케이슈 스님을 법주로 붓츠지의 대중스님들이 반야심경과 다라니 등을 독경했다. 이어서 불단 앞의 받침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상을 안치하고서 시라하마 미츠루 히로시마 교구장 주교가 〈신약성서〉의 구절들을 낭독하며 기도를 올렸다.

마지막으로 케이슈 스님과 시라하마 주교가 나란히 서서 합동 기도문을 낭독했다. 합동 기도문에서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에서 분쟁이 조기에 종식되길 기원하며, 이 지상에서 핵무기가 폐지되길 바란다. 종교를 넘어서 함께 평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스님과 신부들에 더해 히로시마에 거주하는 양 종교의 신자들도 함께 참석해 약 50명이 함께 기도를 봉행했다.

합동 기도회를 제안한 케이슈 스님은 33년 전, 폴란드에서 개최되었던 종교지도자 회의에 참석하면서 당시 동석한 가톨릭 히로시마 주교구의 관계자와 교류를 시작했고 이로인해 두 종교가 비록 가르침과 신앙은 다르지만 사람들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은 동일함을 확인했다. 불교와 가톨릭의 공동기도회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조기종식과 세계평화를 주제로 처음 봉행됐으며, 올해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의 평화로운 종식을 위해 봉행됐다.

케이슈 스님은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구가 '박애의 정신'"이라며 "적극적으로 사회사업을 전개해 복지나 교육, 농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루면서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신앙도 일상생활 속에서 깊게 해 나가게 된다. 불교는 전통문화나 문화재 등 형태를 중시하지만, 실생활에서 벗어나기 쉬운 경향이 있기에, 이러한 점은 불교가 그리스도교에서 배워한다"며 평화를 위한 행동에서 종교간의 대화와 상호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라하마 주교는 "불교, 특히 선종에서는 각자 내면에 있는 불성을 이야기하고, 좌선과 같은 수행을 통해 그 불성을 깨닫고 성장해 나간다. 이는 그리스도교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묵상을 통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과 비슷하다. 기도의 대상과 형태는 다르지만 범부의 힘을 넘어 움직이는 분을 신앙한다는 부분에서 기독교와 불교는 공통되어 있다"며 두 종교간의 공통점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이번 합동기도는 평화의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두 종교가 서로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발걸음이다. 사람들 사이의 평화야 말로 부처님과 예수님 두 성인이 바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동 기도회와 같은 평화 기원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 불화 그려진 석곽 첫 발견…5세기 중반 제작 추정

산서성 유적 내…기년 · 도상 명확
내벽 석판에 별좌설법도 등 그려져


발굴된 석곽의 북벽(왼쪽)과 남벽(오른쪽)에 그려진 불화.
사진출처=환구시보

중국에서 기년과 도상이 명확한 불화가 벽화로 그려진 석곽이 발견돼 화제다. 지난 11월 22일, 중국의 '환구시보'는 산서성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5세기 중후반의 석곽에 대해 보도했다.

최근 산시성(山西省) 고고연구원은 산시성 북부의 다퉁시(大同市) 통지아완(仝家湾) 마을의 유적지에서 발굴된 석곽의 벽에서 불화와 불교적 소재를 주제로 한 벽화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벽화는 북위(北魏)의 평성시기(平城, 398~494)에 그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발굴지인 통지아완 마을은 앞서 북위시대의 고분들이 다수 발굴된 적 있으나 불화가 그려진 석곽은 해당 유적지에서도 최초이며, 북위시대의 것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것으로는 가장 이른 것으로 전했다.

산시성 고고연구원은 "무덤에서 기년과 묘주의 이름이 분명한 비석도 함께 출토되어 북위 평성시기의 것임을 확정할 수 있었다. 무덤의 주인은 형합강(邢合姜)으로 66세에 사망했으며, 묘의 조성시기는 황흥(皇興) 3년인 기원후 469년"이라고 전했다. 또 연구원측 해당 묘의 고고학적 자료를 함께 공개하면서 "석곽에는 석가여래와 다보여래, 칠불좌상(七佛座像)과 같은 불화와 함께 공양자, 비천 등 불교적 소재의 벽화가 그려져 있으며, 채색도 거의 온전하게 남아 있는 채로 출토됐다"고 밝혔다.

복원된 석곽의 북쪽 내벽 가운데 석판에는 2불 병좌설법도(竝坐說法圖)가 그려져 있으며, 연구자들은 이 그림을 석가여래와 다보여래가 함께 그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서 양 내벽에는 각각 2구의 여래설법도가 그려져 있으며, 세 벽 모두 하단부에 공양자와 예불도가 그려져 있으며 각 인물의 옆에 이름이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각형의 공간이 그려져 있다.

남벽은 3개의 석판이 연결되어 외부로 연결되는 덧문이 설치됐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내 · 외벽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 내벽은 상부에 통견의를 입고 좌선을 하는 모습의 칠불좌상과 돔형 보개(寶蓋)가 묘사됐다. 중간의 덧문이 있던 자리의 양옆에는 호랑이를 닮은 진묘수(鎭墓獸)가, 외벽에는 무사의 모습을 한 신장이 그려졌고, 내벽 천장 전체에는 여섯 명의 비천상이 남아 있다.

이 무덤은 2015년 대동시 고고연구소에서 조사발굴한 뒤 출토물의 세척, 파손부위의 접합과 복원을 거쳐 연구단계에 들어갔다. 그 결과 석곽의 각 면에서 벽화가 발견됐다. 고고연구소 측은 연구결과를 공개하면서 "묘실은 남향으로 자리 잡았으며 외곽은 39조각의 파편으로 출토됐고, 내관은 잔재만 남아 있었다. 이중 외곽을 복원하여 거의 완전한 석곽으로 만들었다"며 벽화가 발견된 계기를 전했다.

연구소 측은 "석곽의 네 벽 내부와 남벽 외부, 상판 내부에는 모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석곽벽화는 마치 법당이나 석굴사원을 방불케 하는 파노라마 형식으로 전형적인 북위 평성시기 불교사원 벽화의 전형을 보인다. 일부 도상은 후대에 조영되는 운강석굴의 풍모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인도 최초 국제불교대학 '담마 디파' 첫 삽

10만㎡ 규모…186억 소요 전망
교양 · 과학 등 국가 학위 제공


사진출처=northeasttoday

인도 최초의 국제불교대학인 담마 디파 국제불교대학이 첫 삽을 떴다.

인도 매체 인디안익스프레스(the indian express)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북동부 트리푸라주(Tripura)에서 현대 교육의 다른 분야와 함께 수준 높은 불교 교육을 제공할 인도 최초의 국제불교대학인 담마 디파(Dhamma Dipa) 착공식이 진행됐다.〈사진〉 이 자리에는 잭딥 당카르(Jagdeep Dhankar) 인도 부통령을 비롯해 현지 스님들과 한국 스님들도 참석했다.

이번 건설을 주도한 BHET 회장 담마피야(Dhammapiya) 스님은 "이 불교대학을 건설하는 것은 세속적인 현대 사회에서 '순수'를 지켜내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내면의 수행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달라이 라마도 "국제불교대학의 앞날에 행운을 빌며 최고의 불교교육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기원한다"고 축전을 보냈다.

주정부는 대학 설립을 위해 10만1171㎡ 규모의 부지를 제공했다. 공사 대금은 약 1410만달러(한화 약186억)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두 불교계 기부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의 지역지 노스이스트 투데이(northeasttoday)는 "담마 디파 국제불교대학은 교양, 과학 및 전문 분야에서 국가 공인 학위를 제공하고, 각 교육에 불교 교리를 적용하는 고등교육기관이 될 것"이라며 "인도 학생들 외에도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각지의 학생들이 이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中 스님, 재산 기부 후 욕 먹는 까닭은?

친딸 학자금 지원 요청 거부에
대중들 "진정한 자비 아니다"


전 재산 기부한 중국의 한 비구니 스님.
사진출처=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중국의 한 비구니 스님이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도 대중의 뭇매를 맞고 있다. 대학 등록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딸을 외면한 채 전 재산을 기부한 것은 진정한 자비행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증국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는 지난 11월 23일 "자신의 집을 약 82만2000달러(한화 약 11억)에 팔아 자선단체에 기부한 중국인 비구니 스님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스님은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빚을 지게 된 친딸의 도움 요청을 거부하고 전액 기부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의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Juliu Video'에는 2019년 스님이 된 익명의 비구니 스님이 최근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했다고 밝힌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다.

스님은 영상에서 "비구니가 된 후 집을 팔고 부모님이나 딸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기부했다"고 했다.

스님은 "나의 부모님은 집을 판 돈이 나의 돈이라고 말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내 스스로의 결정"이라며 "그러나 내 부모와 친딸은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스님은 "딸은 대학 졸업 후에 자격증 시험을 볼 계획이라고 내게 말했다"며 "그러면서 몇 년 후 자신이 결혼을 하거나 아파트를 살 때 어머니인 내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길 바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가족들은 내 불심을 의심하고 재산을 기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이다"라고 했다.

이 영상에는 스님을 지지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냉담했다. 누리꾼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딸한테 돈 한 푼 남기기 싫으면 왜 낳았나. 당신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다", "자신의 가족도 돕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나", "훌륭한 불자일 수는 있으나 좋은 엄마는 아니다"라는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전라·강원도 나한상 한자리에 모아

국립전주박물관
'깨들은 수행자, 나한~'展

기획전시실 11월 29일 ~ 2월 26일
실상사 서진암 나한상 등 90점 전시
다양한 나한상 조형미 감상기회 기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11월 29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특별전 '깨달은 수행자, 나한 : 전라도와 강원도 나한의 만남'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남원 실상사 서진암 나한상 등 수행을 통해 완전한 자유에 이른 다양한 모습의 석조 나한상 90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특별히 고려와 조선시대의 강원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의 석조 나한상을 모아 전시한다. 나한은 부처와 보살에 비해 도상의 법식에서 자유로워 얼굴과 자세 표현이 다채로운 것이 특징이다. 단단하고 변함없는 석재에 새겨진 나한의 얼굴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특별한 감상을 불러일으킨다.

강원도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국립춘천박물관 소장)은 2001년에 영월의 절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다양한 표정 위로 해탈한 나한의 편안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중생의 '희로애락' 이 담겨 있는 친근한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특별전 등 여러 전시를 통해 대중에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부산박물관 등 국내는 물론 2021년 12월에 호주 파워하우스 뮤지엄에서도 전시됐다.


남원 실상사 서진암 나한상 조선 1516년(금산사 성보박물관 위탁 보관).


나주 불회사 나한상 '생각에 잠긴 나한'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영월 창령사터 오백나한 친근한 얼굴들(국립춘천박물관 소장).

전라도 나한상들도 이에 못지않은 조형미와 독특한 개성을 보여준다. 서봉사 터 나한상(국립부여박물관 소장)의 미소년을 닮은 말끔한 미소, 불회사 나한상(국립광주박물관 소장)의 생각에 담긴 얼굴들, 실상사 서진암 나한상의 굳건함 등 지역별로 사용했던 석재와 조각 솜씨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나한상의 다양한 조형미를 감상할 수 있다.

나한은 아라한의 줄임말로, 살적(殺賊), 응공(應供), 응진(應眞)이라고도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다해 수행하여 아무 괴로움도 없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불제자를 말한다. 살적은 수행의 적인 번뇌를 항복받아 죽였다는 뜻이고, 응공은 모든 번뇌를 끊고 도덕을 갖추었으므로 인간과 천상의 공양을 받을 만하다는 뜻이며, 응진은 '진리에 상응하는 이' 라는 뜻이다. 이들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열반에 드는 것을 미루고 중생 곁에 머물며 불법(佛法)을 지키고 모든 중생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중생을 제도한다.

불제자 가운데 16명의 뛰어난 제자를 '16나한' 이라고 하며 이들은 무량의 공덕과 신통력을 지니고 있어 열반에 들지 않고, 세속에 거주하면서 불법을 수호하는 존자(尊者)다. 부처님이 열반한 뒤 제자 가섭이 부처님의 설법을 정리하기 위해 소집한 1차 결집 때 모였던 제자 500명을 500나한이라고도 한다. 나한은 인간의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됐다. 중국의 당송시대에 유행했던 나한상은 삼국 후기부터 소개되어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했다.

나한상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지물을 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극도로 생략된 모습이 있기도 하고 움직임이 크고 해학적인 모습도 있다. 나한상의 지물로는 염주, 발, 동물, 경전, 금강저, 과일 등이 있다. 다양한 모습 속에는 심오한 정신적인 면이 내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불교조각의 다양한 미의식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시 마지막에는 나한의 깨달음을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영상을 상영한다. 번뇌를 넘어 깨달음을 위해 정진했던 수행자를 떠올리며 명상이나 휴식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기간 중 12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나한을 주제로 한 큐레이터와의 대화가 진행된다.

홍진근 국립전주박물관장은 "고독한 수행으로 마침내 자유로워졌지만 다시 중생을 향해 손을 내밀었던 나한과 마주하며 마음의 위안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동휘 스님 '약풀되어 구제하리' 展
서울 갤러리 인사아트 12월 14~20일

모든 이의 눈에 부처님 눈동자 그리고파

옴 · 북두구진 빛 담은 아홉 부처님과
북두구진 눈동자 주제 등 50여점 전시


동휘 스님 作, 빛의옴

"어떤 시련을 만나도 행복할 수 있는 빛을 보는 눈, 부처님의 눈동자를 모두에게 그려주고 싶습니다"

30여 년 동안 옴과 만다라 그림을 그려온 동휘 스님(해피만다라 문화원장)이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인사아트에서 그림전 '약풀되어 구제하리' 를 개최한다. 동휘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옴과 북두구진의 빛을 담아 탄생한 '9요 부처님' 과 '북두구진을 담은 눈동자' 를 주제로 한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작품은 그동안 해왔던 작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옴과 북두구진의 빛으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약풀 되어 구제하리' 라는 주제의 작품들이다. 동휘 스님은 고된 수행 끝에 얻은 "진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일에 있다"는 깨달음을 전해왔다. 그동안 이러한 빛에 관한 진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동휘 스님이 제작한 해피만다라와 해피옴이다.

이번 작품들 역시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그림 '옴 만다라' 는 또 다른 '해피 만다라' 라고 할 수 있으며, 스님은 그것을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약풀이라고 말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 차원 상승된 작업으로 옴과 북두칠성(북두구긴)의 빛을 담아 완성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오랫동안 치성의 대상이었던 칠성의 빛을 받아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의 일곱 부처님에 운을 관장하는 대운 부처님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공의 부처님을 합쳐 아홉 부처님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눈에 깨달음의 빛을 담아주고 싶다는 염원' 을 담아 눈동자에 별을 담은 작품들도 선보인다.

'깨달음의 그림' 이라고 자신의 그림을 소개하는 동휘 스님이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여는 또 하나의 목적은 불교문화의 확장과 업그레이드이다. 스님은 전통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미래와 현재의 삶 속에 숨어있는 빛의 깨달음을 그려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우주의 원리를 담은 21세기에 어울리는 진리의 그림, 깨달음의 그림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쉼 없이 개척해왔다.

밝은 톤의 색감과 캐릭터 느낌의 선을 활용한 동휘 스님의 작품들은 기존의 불교문화와 확실한 차별성을 모색하면서도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과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다. 전시기간 동안 전시장에서는 수시로 동휘 스님의 법문과 만다라 그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불화 · 민화 작가 한유경 개인전

갤러리 이즈 12월 14~20일


한유경 作, 제석 천룡탱화 한지에 분채 석채 금분 186×138cm.

불화 · 민화 작가 한유경이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갤러리 이즈 3층에서 개인전을 연다.

한유경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민화와 불화의 아름다움을 작가 고유의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가장 주목되는 작품은 '몽중연(夢中蓮)' 으로, 연꽃이 만발한 연못을 그린 10곡 병풍이다. 작가는 어릴 적 처음 박물관에서 접했던 민화 연꽃 병풍을 10여 년이 지난 후 다시 박물관에서 마주했다. 그러나 자신이 기억하는 연꽃 병풍이 아니었고, 이에 작가는 다시 자신만의 기억을 상상하며 연꽃 병풍을 완성했다.

연꽃이 가진 깨끗함이라는 특수성은 불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또 동양 문화권에서는 맑은 물, 달빛, 훈훈한 봄바람으로 표현, 군자의 풍모를 논한다. 또한 고려 문신 이규보의 시문집 〈동국이상국집〉에서는 청정한 연을 보며 참선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표현했다. 작가는 그런 연꽃의 모습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려냈다.

한유경 작가는 "민화와 불교미술 회화인 불화는 우리나라의 채색화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소재와 내용이 매우 다양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적으로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림으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그려왔던 불화와 민화를 현재 작가의 시점으로 다시 만드는 것은 작가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림의 바탕이 되는 한지와 비단 등의 특징과 먹과 채색의 조화로, 한국의 불화와 민화의 아름다운 색채감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경 작가는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민화과정을 수료했으며, 동국대 불교미술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2004년부터 전국비구니회관 문화센터 민화강좌 강사로 있으며, 2013년부터 우리옛그림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 불일미술관 큐레이터, 충청대 사회교육원 문화강좌 강사 등을 역임했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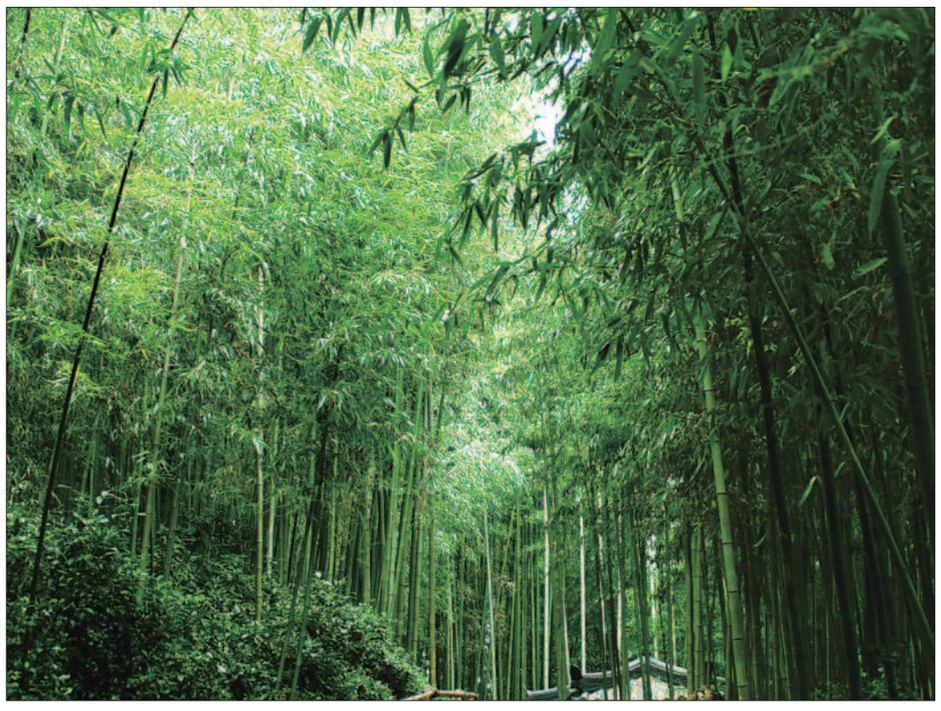
울창한 조선 산림 왜 민둥산으로 변했을까?



조선의 숲은 왜 사라졌는가
전영우 지음
조계종출판사/2만2천원



저자인 전영우 선생이 조계사 경내에서 웃고 있다.



조선의 숲 사라진 이유와 과정을 탐구

조선 산림 황폐화 임진왜란 직후부터

소나무 위주 목재 사용 황폐화에 일조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인간이 숲을 동경하는 이유는 그저 숲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오래된 숲의 고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기에 존재하는 미묘한 무엇인가가 사람의 지친 영혼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숲은 수풀의 준말로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곳'을 뜻하나, 일반적으로는 '수풀'보다 '숲'이 훨씬 널리 쓰인다. 한자어로는 삼림(森林)이라고도 하며, 특히 빽빽한 숲은 밀림(密林)이라 한다. 조선시대에는 산림이 울창하고 숲이 깊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짐작과 달리 중기 이후 조선의 숲은 황폐화로 치닫고 있었다. 한일 병탄 직전 조선 산림은 삼남 지방 대부분이 민둥산이었다. 고개가 갸우뚱 해진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난개발도 없을텐데 말이다. 은퇴한 산림학자가 이렇게 조선의 숲이 사라진 이유와 과정을 탐구했다.

임진왜란 당시만 해도 단기간에 수십 척의 전함을 건조할 만큼 풍성했던 조선의 산림은 무려 250년 동안 황폐화가 계속된다. 조정의 미봉적인 소나무 중심의 산림 정책, 왕가와 권문세족의 이기적인 산림 사점과 남벌, 소빙기로 인한 한반도 전역의 온돌 보급과 땔감의 급증,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벌목 등이 조선의 숲을 사라지게 만든 그 이유이다.

저자는 조선시대 공식 기록물은 물론 사대부의 문집과 향리에 낙향한 무신 일기까지 뒤져 조선의 산림이 황폐화된 과정을 추적했다. 부족한 양묘 및 조림 기술, 수목의 가치에 대한 지도층의 인식 부재, 부실한 제재 도구와 목재 운송 수단 등 지금까지 학계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기술적, 사상적 후진성까지 이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산림의 효용과 가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는 요즈음 조선시대 산림의 참혹한 파괴 역사를 충실하게 톺아낸 이 책은 역사를 거울로 삼아 산림 관리의 중요성과 방법론을 일깨워주는 생태사, 미시사 분야의 걸작이다.

조선 후기 삼남 山은 모조리 민둥산으로 변했다

오늘날 한국은 단위 면적당 산림 축적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이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헐벗은 산림 환경에서 출발해 조림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럼 일제 강점 이전의 조선의 숲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산업도 크게 발달하지 않았고 식민 착취가 시작되기 이전이었으니 한반도 전역이 울창한 숲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1910년 실시된 조선총독부의 산림조사에 따르면 당시의 전체 산림 면적(15,849,619정보) 가운데1/3이 채 안 되는 32.3%만이 무성한 숲일 뿐, 나머지는 조악한 어린 나무로 구성된 숲이거나(41.8%), 아예 나무가 없는 헐벗은(25.9%) 상황이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남부 지방의 산림 황폐화는 극심해서 대부분의 산이 민둥산이었다.

조선의 숲은 대체 왜 이렇게 황폐해졌을까? 산림은 쉽게 복원하기도 어렵지만, 쉬 망가지지도 않는다. 언제 어디서부터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조선의 숲이 망가지고 사라졌는지, 완벽하게 입체적으로 추적한 것이 바로 〈조선의 숲은 왜 사라졌는가〉이다. 이 책은 조선의 산림 황폐화가 이미 임진왜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고 증언한다.

1611년의 실록은 벌목으로 인해 도성 안팎의 산들이 민둥산으로 변한 책임을 한성부 당상에게 묻고 있다. 나라에서 금령을 엄히 다스려도 "도성 사방에 있는 산들이 볼품없이 벌거숭이가 되어 이미 민둥산이 되어 버렸다."는 1621년 기사는 산림 파괴의 심각성을 증언한다. 18세기에 이르러 헐벗은 한양의 사산(四山)에서 유출된 토사가 청계천의 하천 바닥을 높여 도성에 물 난리(1752. 1. 27.)가 발생하고, 종국에는 청계천 준설(1760)로 이어져 도성 주변이 모두 헐벗었음을 전한다.

저자에 따르면 조선 숲의 황폐화는 적게 잡아도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말까지 250여 년 동안 진행되었다. 정밀한 연구에 바탕을 둔 추정을 통해 저자는 조선 건국 초기(1400년)에 비해 조선 남부 5도의 임목 축적량이 1700년에 이미 절반으로, 1900년에는 1/3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인구 증가까지 감안하면 정조 시대인 1800년 1인당 임목 축적량은 건국 당시의 9%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250년에 걸친 조선 숲의 황폐사를 책은 절절한 마음으로 담아낸다.

기술 검토와 문헌 추적으로 밝힌 지도층 문제점

이 책은 인구 증가와 소빙기 도래에 따른 목재 사용량 증가 등 그간에 학계에서 추론하고 있던 사항 외에도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저자는 조선시대 공식 기록물은 물론 사대부의 문집과 향리에 낙향한 무신 노상추의 일기까지 뒤져 조선의 산림이 황폐화된 과정을 추적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나 인구학적인 요인 외에도 조정과 사대부 등 지배층의 안이한 산림 인식, 왕가와 권문세족의 이기적인 산림 이용과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벌목 부족한 양묘 및 조림 기술, 수목의 가치에 대한 지도층의 인식 부재, 부실한 제재 도구(켜는 톱)와 목재 운송 수단(수레와 도로) 등 지금까지 학계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기술적, 사상적 후진성까지 꼼꼼히 살펴본다. 예를 들자면,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까운 산의 나무를 남벌한 데에는 운송 수단의 미비도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 이면에는 지배층의 이념적 성향이 작용했다. 조선 조정이 도로 정비와 수레 개선을 도외시했던 배경에는 잘 정비된 도로가 외적의 침략 통로가 되어 한양이 쉽게 점령당할 수 있다는 군사적 우려와 수레의 보급이 성리학적 통치 이념에 반하는 상공업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잠재되어 있었다.

목재 유통의 또 다른 제약 요인에는 제재 도구도 있다. 원목을 판재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성능 좋은 철제 톱이 필요했지만, 켜는 톱을 제작하는 전문 장인이 많지 않아 널리 보급되지 못했고, 때문에 재질이 단단한 참나무 같은 활엽수종은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 자연히 도끼나 자귀 등으로 쉽게 다듬을 수 있는 소나무 위주로 목재 사용이 편중되어 산림의 황폐화에 일조하게 된다. 열악한 종묘 및 조림 기술 또한 산림 황폐화를 막지 못한 큰 원인이었다. 저자는 18세기 정조의 현륭원 식목 사업에 관한 문헌 〈현륭원등록〉 〈일성록〉 등을 샅샅이 뒤져 그 기술 수준을 따져본다.

또한 책에는 한정된 능역에 많이 심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식목 후 생존율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그 원인을 분석한다. 18세기 말에도 조선에는 제대로 된 양묘 기술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재배 수종 뽕나무는 15세기에 이미 양묘 기술이 개발되었지만, 산림 수종 소나무 및 참나무와 가래나무의 양묘 기술은 현륭원 식목 사업이 진행된 18세기 말은 물론이고 20세기 초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19세기 말에도 나라 전역에서 이루어진 소나무 조성 사업은 대부분 파종 조림으로 이루어졌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현륭원은 영조의 둘째 아들이자 정조의 부친 사도(장헌)세자와 혜경궁 홍씨가 함께 묻힌 곳이다. 왕조 시대에 임금이 직접 관장한 국책 조림 사업조차 인근에 자라는 소나무를 옮겨 심어야 했기 때문에, 10그루 중 겨우 2그루나 살릴 수 있을 만큼 조림 양묘 기술이 극히 낙후했던 것이다. 이처럼 문헌과 기술적 분석, 분야별 목재 사용량에 대한 자세한 추정 등 입체적으로 진단한 끝에 내린 저자의 결론은 조선 지배층이 산림 지속성 유지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결국 조선의 산림 황폐는 산림 정책 부재, 조림 · 양묘 기술 미비, 민간 참여 배제, 권력층의 부패, 목재 및 땔감 생산 체계 부재와 온돌의 전국적 보급이 결합한 결과였다고 저자는 결론 지은다. 산림 황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이 모든 원인은 산림 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무지하고 무관심했던 조선 사회와 그 당시 지배층의 잘못된 산림 인식 탓이었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노상추 일기와 70대 노 산림학자의 집념

이 책은 우리 숲의 장기적 생태사를 정리해낸 생태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저작인 것은 물론,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는 탁월한 미시사 분야의 역작이기도 하다. 책은 관의 부당한 벌목이 얼마나 자행되었는지, 민간에서는 조림을 위한 공동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한 경제적 수익은 어느 정도였는지, 당시 일반 주택 한 채를 짓는 데 목재가 어느 정도 소요되었는지 등 나무를 매개로 한 선조들의 생활사를 눈앞에 그려질 듯 펼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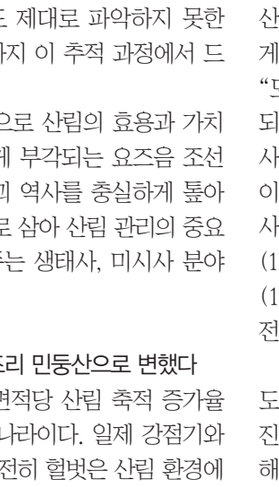
이 책의 상세한 분석은 많은 문헌 검토와 고증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특히 흥미로운 것은 정조 시대 퇴역 무인이었던 노상추의 일기이다. 노상추(1746~1829)는 17세부터 84세(1829년)까지 67년간 한문 일기를 썼고, 그 중에는 산림 조성과 관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저자는 이 일기가 조선 후기 산림 육성과 송계 활동, 당시의 산림 상황을 생생히 전하는 주요 자료라고 평가하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낙향한 무신이 평생 기록한 일기가 조선의 숲 탐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저자 또한 70대에 접어든 은퇴한 산림학자로서 우리 산림에 대해 연구하고 기록하며 많은 책을 집필한 인생 행로가 2백여 년의 세월을 넘어 노상추의 행적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룬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조선 후기의 산림 황폐화 연구는 관심을 둔 연구자도 드물고 관련 자료 조차 구하기 쉽지 않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칠순의 산림학자가 도전하기 좋은 과제였다."고 토로한다. 이처럼 이 책은 평생을 우리 숲 연구에 바친 노학자가 집념으로 써내려간 역작이며 역사, 생태학, 산림학 분야의 귀중한 성취물이라 할 수 있다.

▲저자 전영우는?

1951년 경남 마산서 태어났으며, 고려대 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산림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국민대 산림환경시스템학과 명예교수이다. '숲과 문화 연구회' 회장, '숲 해설가 협회' 공동 대표, (사)생명의 숲 이사장,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재)동승학술재단 사무국장, '솔바람 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산림 문화 활동에 헌신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2004), 자연 유산의 보존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2019)을 수훈했고, 불교출판문화상 우수상(2011, 2019)과 '가장 문학적인 학자상'(2011, 문학의 집 서울)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산림문화론〉 〈숲과 한국문화〉 〈나무와 숲이 있었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소나무〉 〈숲과 문화〉 〈한국의 명품 소나무〉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궁궐 건축재 소나무〉 〈한국의 사찰숲〉 〈송광사 사찰숲〉 등이 있다.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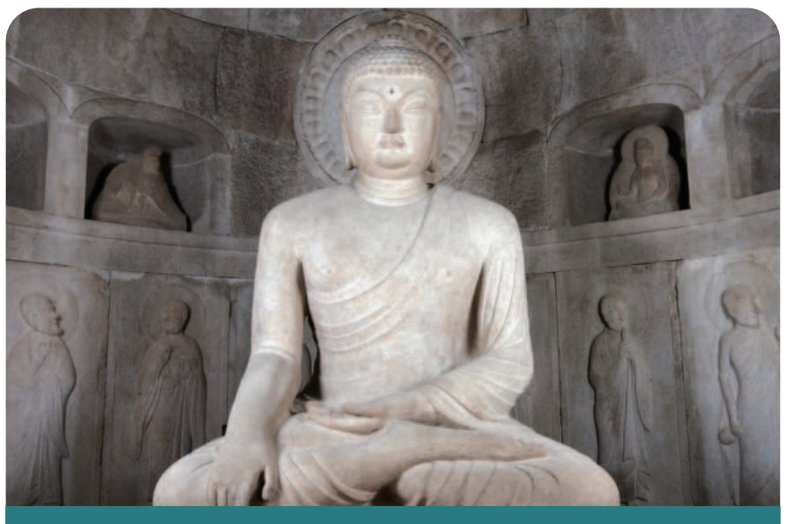


대원불교학술총서 • 4

에리히 프롬과 불교

쇼펜하우어, 하이데거, 니체, 프롬은 왜 불교를 가장 훌륭한 종교라고 보았는가? 프롬은 왜 그렇게 불교에 심취했고, 불교는 그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박찬국 지음/신국판/316쪽/값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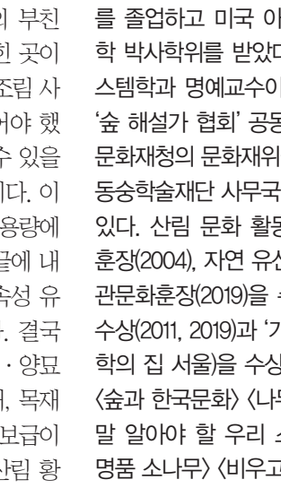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담마빠다

『법구경』으로 널리 알려진 담마빠다는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 곁에 두고 읽으며 되새기면 '삶의 지남'이 되고 '인생의 지혜'를 일깨우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화령 역주/국판/192쪽/값 14,000원

어린이의 인성을 따뜻하고
자비롭게 일깨워줄 불교동화!



자비의 씨앗 열두 알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자비와 보시 사상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삽화와 함께 재미있는 동화로 엮었다.

이한영 글/김승연 그림/컬러/208쪽/값 14,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30~1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에세이효봉:오늘일을묻는가달이일천강에비치리	이일야/강건기 감수	담앤북스
3	낡은옷을벗어라:법정스님미출간원고68편수록*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4	닦는마음밝은마음(개정증보판)	김재웅 지음	용화
5	본성개념인가실재인가(밝은사람들총서17)	이필원,인경,신정근,신승환,박성현	운주사
6	죽음을철학하는시간(죽음명상)	이일야	불교신문사
7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8	당신의아름다운세계:바이런케이티금강경을말하다	바이런케이티/이창엽	침묵의향기
9	반야심경정해:반야심경의의미왜곡을드러내고원래뜻을밝힌다	관정	알아차림
10	초기불교입문:초기불교그핵심을담다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책세상

“여러분 걱정 읽어요…고민 많은 인생 답 ‘컨닝’할 수 있다면?”



내 걱정 어디서 왔을까
성진 지음
마음의 숲 펴냄/1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인생에도 ‘커닝페이퍼’가 있다면 어떨까. 정답만을 콕 집어줄 수는 없지만, 어깨너머로 힌트를 보고 답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말이다. 사실 인생에 하나로 정해진 답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갈림길에 설 때마다, 모퉁이에 맞닥뜨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답을 원한다. 누군가 답을 알려주길 바라는 막막함을 끌어안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고민 많은 인생에 커닝하라고 기꺼이 모범 답안을 모아 내어주신 성진 스님의 말씀을 엮었다. 인생의 답을 몰라 걱정으로 차오르는 사람들에게, 걱정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알아나가면 스스로 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일러준다.

“여러분의 걱정 읽어드립니다”

잠들기 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으로 밤을 지새운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실체 없는 불안은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덩치를 불려 압도하곤 한다. 이를 내려놓는 방법을 저자는 이 책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상상 속에서 거대해진 걱정에 실체를 부여하면 된다. 종이를 꺼내고, 연필을 들고 걱정을 적어보자. 불교에서는 발원문이라고 부처에게 비는 소원을 적는다. 이때 적는 소원이 바로 지금의 걱정을 해결하는 단서가 된다. 실체를 갖게 된 걱정은 두려워하던 것에 비해 한결 작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풀어나갈지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지친 내 마음을 돌보는 진료가 된다. 자칫하면 걱정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 자체에 잠식되기 쉽다. 이때 한 발짝 떨어져서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왜 우울한가? 무엇이 걱정인가? 걱정 일으킨 뿌리를 찾으면 그걸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몸이 병들면 어디가 아픈지 확인하여 치료하는 것과 똑같다. 내 걱정이 어디서 왔을까, 질문을 던져 찾아간 원인에 힘겨운 감정을 해소하고 벗어날 답이 있다.

4인4색의 종교인 뭉쳐 중창단 결성해
신부님과 함께한 유쾌한 걱정 해소법

“정답지 대신 질문지 펼치는 저자 인생 커닝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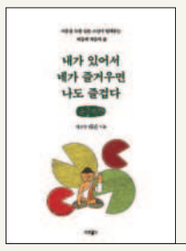
누군가 정해준 답이 없기에 우리는 수도 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일삼는다. 이 선택이 옳은지 현시점에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삶의 여로에서 매번 이 길이 맞는지 걱정하는 모습이 마치 시험지를 받아들고 정답이 맞는지 고민하는 것과 똑 닮았다. 그래도 인생은 시험 시간처럼 고독하게 홀로 싸우지 않아도 된다. 맞나 틀리나를 두고 머리를 싸맨 채 혼자 괴로워하지 않아도 괜찮다. 커닝페이퍼를 들춰보듯, 인생의 답을 찾아 헤맬 때 지혜를 나눠줄 동료가 있다. 당신의 곁에 성진 스님의 〈내 걱정 어디서 왔을까〉가 커닝페이퍼처럼 슬쩍 놓인다.

성진 스님은 당신의 고민에 대한 힌트를 직접 던지는 질문 안에서 찾아보라 말한다. 끝없이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서 답의 실마리를 쫓아가는 시간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생을 이룬다. 이 과정을 달리면서 내리 시험 보듯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실은 그 누구도 백 점짜리 인생으로 살 수 없음을 떠올리길 바라본다. 오답인 줄 알고 슬퍼했던 순간도 지나고 돌아보면 옳은 결정, 정답인 행동이었기도 하다. 성진 스님의 일상을 하나씩 짚어주는 명쾌한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 당신이 나아갈 길에 걱정을 덜어주길 바란다.

“벽을 넘어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이 주는 막연한 어려움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고자 성진 스님이 떼신 발걸음을 담았다. 2천 년이 넘는 세월 대중의 고민을 듣고 풀어주는 일이 종교의 본분이었고, 그렇기에 더는 사람들과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다며 거리로 직접 만나러 나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사람들이 비대면 시대에 고립되면서 절, 성당 등에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응어리를 털어놓던 시간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며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체감했다고. 이를 위해 각종 방송에도 출연하고 책으로도 만나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많은 순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군대에서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법하고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인생을 그리는 장을 펼쳐주고자 한다.

“스승 아닌 존재 없는 것처럼 소중하지 않은 인연 없다”



내가있어서 네가즐거우면 나도즐겁다
허공당 혜관 지음
파람북 펴냄/1만5천원

저자는 어린 나이에 합천 해인사에 들어가 수행을 시작했지만, “한 나무 아래에서 사흘 이상 머물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수없이 많은 곳들을 떠돌며 수행을 이어온 스님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삶이 무엇인가를, 더 나아가 감히 저 우주 삼라만상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현실과 비현실을 들락거리며 세상을 방황했던 시간이 길어 평생을 ‘나그네 승’으로 살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설익은 수행자였던 젊은 시절엔 편도 항공권과 200달러의 경비만 들고 부처님의 탄생지인 네팔 쪽 히말라야를 향하기도 했다. ‘이번에야말로 깨닫지 못한다면 히말라야산맥 중턱에 뼈를 묻으리라’라는 다짐과 함께.

저자의 수행은 유독 치열했다. 헐벗고 굶주리는 일이 다반사여도, ‘없음’에서 와서 ‘없음’을 살고 결국 ‘없음’으로 돌아가는 삶을 반복하는 윤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더구나 부처님에 이르고자 하는 수행이라면 숱한 고행마저도 다행한 일일 테다. 일정한 거처에 몸과 마음을 의탁하지 않고 수행을 하는 방법은 몸을 법당으로 삼고 마음을 도량으로 삼는 일이다. 저자는 그렇게 자신 안에 법당을 꾸리고 부처님을 모셨다. 그리고 그간의 작은 깨달음이라도 법우들과 함께 나누고자 글을 써오고 있다. 이 책은 그 글들을 책의 형식으로 엮은 것으로 글로 엮은 수행의 첫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은 여느 스님의 책들과는 다르게 일상의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다. 아마 저잣거리 또한 훌륭한 수행처로 삼아온 스님의 이력 때문일 것이다. 그 이야기의 등장인물 가운데 유독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감동으로 다가온다.

물처럼 투명한 깨달음의 언어로 조명
일상적 소재 가져와 불교 가르침 담아

기약 없는 먼길을 떠나기 위해 이른 새벽 일주문을 나서는 스님을 불러세우고 연신 잔기침을 뱉으며 오므린 손에 꼬깃한 지폐 한 장을 밀어 넣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던 할매(할매 부처님). 서로가 불쌍하다며 새벽 공원 산책로에서 부둥켜안은 채 흐느끼던 노부부(사랑이 아니고 동정이어요). 절뚝거리는 다리는 끌고 새벽부터 종일 좌판 장사를 하다 밤이면 영감님의 병실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는 할머니(불편하긴요, 영감 곁에 자는데), 시장 한구석에서 천 원짜리 식당을 꾸리다 병으로 돌아가신 할머니(천 원짜리 할머니). 평생 노점을 꾸려 번 돈으로 주변의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보살피다가 장례까지 치러주던 할머니(깨달은 줄도 모르고). 그 할머니들은 모두 외롭고 가난했지만, 자비심으로 세상의 보이지 않은 등불이 되었던 분들이다. 하리잔은 인도 카스트 제도의 네 계급에도 속하지 못했던 불가촉천민이다. 거리에서 태어나 구걸로 일생을 살다 거리에서 죽는, 호적조차도 없는 사람들이다. 하리잔 출신으로 인도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 되어 불가촉천민들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사회개혁을 이끌었던 암베드카르의 삶을 통해 저자는 ‘법등명 자등명(法燈明 自燈明)’, 즉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되 자신의 삶은 자기 자신의 등불을 밝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한다.

이처럼 저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사건, 사료 등에서 이야기 소재를 가져와 그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는다. ‘생활 법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는 것이다. 때론 먹먹하게 하기도 하고 울컥하게 하기도 하며 정신이 번뜩이게 하게도 한다. 한편 저자의 경전과 경구 풀이는 우화와 여러 에피소드 등을 인용해 설명함으로써 한결 쉽고 간결하다. 굳이 불자가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의미를 해독하고 공감하게 만든다. 한편 저자인 허공당 혜관 스님은 열한 살 무렵부터 합천 해인사에서 수행을 시작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후 해인사를 떠나 몸을 법당으로 삼고 마음을 도량으로 삼아, 편안하되 편안하지 않고 자유롭되 자유롭지 않은 수행을 이어오고 있다.

김주일 기자

불기 2567(2023)년 계묘년(癸卯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인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임인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67(2023)년 계묘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6780-9190	배철완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문화사업단	010-3048-4008	구광국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0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93

▶ 94회 예고
아쇼까라마에서 3차 결집이 끝나자, 아쇼까왕은 장로 다섯 명씩을 한 조로 한 담마사절단을 각국에 파견한다. 마힌다 장로는 땅바빵니(스리랑카)로, 다른 장로들은 지중해 연안의 키레네, 이집트, 마케도니아, 그리스, 시리아로 출발한다.



1천 명 장로, 아쇼까라마서 결집하다

아쇼까라마가 정화되자마자 목갈리뿟다띳사 수석장로는 외도들의 교설을 논박하는 카타왓투(論事)를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카타왓투를 정리한 까닭은 외도 추방을 일단락 짓고 아쇼까라마에 모인 1천 명의 장로들과 여러 논서를 암송해 결집하기 위해서였다. 오래 전에 붓다의 가르침을 모은 경장과 계율을 모은 율장은 장로들의 합송으로 결집한 바 있지만 논서들은 아직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결집이란 장로들이 모여 붓다 가르침에 대한 기억을 명확하게 말한 뒤 합송하여 추인하는 의식을 뜻했다. 아쇼까왕이 목갈리뿟다띳사에게 말했다.

"결집은 얼마나 걸릴 것 같소?"

"대왕님이시여, 반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1천 명의 장로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틀렸다고 거부하면 동의할 때까지 합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힌다 장로도 참석해야 하는 것이오?"

"당연한 일입니다. 마힌다는 아쇼까라마를 책임지고 있는 수석장로입니다."

"장로께서 아쇼까라마에 복귀하셨으니 이제 마힌다는 수석장로가 아니지요."

그제야 목갈리뿟다띳사가 아쇼까왕의 생각을 간파하고는 물었다.

"마힌다 장로를 어디로 보낼 생각이십니까?"

"마힌다 장로를 산치로 보냈다가 땅바빵니(스리랑카) 왕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으니 그곳에 파견하려고 하오."

"대왕님이시여, 결집이 끝나고 나서 보내소서."

"장로께서도 마힌다 장로와 함께 산치로 떠나주시오. 마힌다 장로는 산치에 들렀다가 바로 땅바빵니로 가야 하니 산치 탑 조성을 감독할 사람은 장로밖에 없는 것 같소."

"대왕님이시여, 늙은 제가 어찌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쇼까라마 결집을 마친 뒤에는 대왕님 명이라면 어디든 떠나겠습니다."

아쇼까왕은 마힌다가 결집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갈리뿟다띳사의 의견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그러나 아쇼까왕은 산치 탑 조성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쉽고 안타까웠다. 산치 동산에 먼저 세상을 떠난 데비를 위해 탑을 조성하고, 산치 동산에도 외도의 출입을 금하고 승가를 분열케 하는 자를 추방하라는 담마칙령을 새긴 석주를 세울 참이었던 것이었다.

"장로시여, 마힌다 장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소."

"대왕님이시여, 저도 마힌다 장로가 어떤 의견을 내든지 따르겠습니다."

"나도 그러겠소."

아쇼까왕은 은근히 마힌다가 결집에 참여하지 않고 산치로 가기를 바랐다. 아쇼까왕이 산치에 탑을 조성하고 석주를 세우는 데는 데비를 향한 사랑과 추모 외에 두 가지 목적이 더 있었다. 첫 번째는 변방인 웃자인과 베디샤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 영토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 두 번째는 남쪽의 잠부띠바 소국의 왕들에게 마우리아국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아쇼까왕은 집무실에서 목갈리뿟다띳사가 물러간 뒤 경비대장에게 마힌다를 오후 늦게 불러오도록 지시했다. 점심 직후 옛 앙가국을 암행순찰하고 돌아온 삼빠딘의 보고를 받기로 돼 있기 때문이었다. 아쇼까왕은 왕손들 중에서 손자 삼빠딘을 가장 총애했다. 삼빠딘은 두 눈을 실명한 뒤 사라져버린 아버지 꾸날라를 닮아 눈이 크고 악기를 잘 다뤘다. 그런데다 승마와 검술에 능했다. 삼빠딘은 주로 암행순찰을 하면서 아쇼까왕을 도왔다. 그런데 삼빠딘은 탁실라 부왕이었던 아버지 꾸날라의 비극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점심을 마친 아쇼까왕이 집무실로 들어서 기다리고 있던 삼빠딘을 맞았다.

"오, 사랑하는 삼빠딘아."

"대왕님 명대로 옛 앙가국을 암행순찰하고 왔습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다섯 그루 나무를 심으라고 지시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내 지시를 따르고 있더냐?"

"살라나무, 짬빠나무, 망고나무 등을 심어서 돌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지내는 사원에서 양을 죽이는 살생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짬빠성의 아지비까 구루들이 일찍이 내가 깔링가국을 정벌하고자 그곳을 지났을 때 내게 아주 호의를 보였느니라."

"대왕님께서 외도인 그들에게도 관대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동굴법당을 기증한 적이 있기는 하지. 네 할머니를 생각해서였지."

아쇼까왕은 자신이 지시한 칙령이 빠딸리뿌뜨라성으로부터 먼 거리의 지역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에 흡족해 했다. 아쇼까왕은 적당한 시기에 삼빠딘을 탁실라 부왕으로 보내려고 생각했다. 변방부터 통치경험을 쌓게 한 뒤 빠딸리뿌뜨라로 불러들일 계획이었던 것이다.

"삼빠딘아, 피곤하겠구나. 별궁으로 돌아가서 쉬거라."

"어른들께 가서 인사드리고 쉬겠습니다."

삼빠딘의 아버지 꾸날라의 양모는 아상디밋따 정비였다. 첫째 왕후 빠드바마띠가 꾸날라를 낳고 죽자, 그때부터 아상디밋따가 갓난아기 꾸날라를 키웠고, 그런 까닭에 꾸날라가 성년이 되어 삼빠딘을 낳았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사람이 아상디밋따였던 것이다.

"띠쉬아락시따 왕비별궁에는 가지 않느냐?"

"예, 띠쉬아락시따 왕비님은 저에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 왕비가 너를 가리는구나."

아쇼까왕은 띠쉬아락시따의 까칠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묻지 않고 삼빠딘을 내보냈다.

핏덩이 같은 석양이 강가강 너머 지평선으로 기울고 있을 무렵이었다. 마힌다가 아쇼까왕의 집무실로 왔다. 경비대장은 뒤따라 들어오지 않고 왕궁 순찰을 돌았다. 아쇼까왕은 우두머리 궁녀를 앞세우고 들어왔다. 우두머리 궁녀는 바나나와 포도가 놓인 소반을 들고 있었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장로여, 내일은 중요한 날이오."

"대왕님이시여,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은 아쇼까라마에서 결집을 시작한다고 들었소. 나는 하루라도 빨리 장로를 산치로 보내고 싶소. 그런데 목갈리뿟다띳사 수석장로는 결집을 마치고 장로가 가기를 바라고 있소."

"산치는 고향입니다. 늘 가고 싶었던 곳이 산치입니다. 더구나 산치에 탑을 세워달라는 어머니의 유언이 서린 곳입니다. 어찌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산치에 가겠다고 하니 기쁘오."

"그러나 대왕님이시여, 산치를 가되 수석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결집을 마치고 떠나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저는 산치에서 다시 바다를 건너 땅바빵니로 가야 할 전법사가 아닙니까? 대왕님께서는 땅바빵니 사신들이 왔을 때 저를 통해서 붓다의 가르침을 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비구니 장로인 상가밋따 편에 삼보디(보드가야)의 뻡팔라나무 가지를 보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땅바빵니로 가는 것과 결집이 무슨 상관이오?"

"대왕님이시여, 이번 결집에서는 붓다의 가르침에 대해 장로들이 논한 것들을 합송하여 정리할 것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합송한 경장과 율장에 이은 논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제야 아쇼까왕은 마힌다를 이해했다. 경과 율에다 논까지 삼장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만 붓다의 가르침이 땅바빵니 땅에 올바르게 전해질 터였다.

"장로가 왜 이번 결집에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알겠소."

"저와 상가밋따 장로니가 삼장을 가지고 땅바빵니로 간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쇼까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로들이 삼장을 정확하게 외운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겠소. 그래야만 다른 나라에 두따(Duta, 담마사절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소."

"담마로 세상을 정복하시겠다는 대왕님의 뜻은 두따를 보내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두따를 이웃나라 말고도 피부색이 다른 아주 먼 나라까지 보낼 것이오."

실제로 아쇼까왕은 마우리아국에 인접해 있는 10개국 외에 먼 나라인 이집트나 마케도니아 등 6개국에 장로 다섯 명씩을 묶어 담마사절단을 파견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장로 다섯 명을 한 조로 엮은 까닭은 그래야만 그 지역 출가자들에게 붓다가 정한 대로 계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다섯 명의 담마사절단이 가다가 도중에 병들어 병사하거나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목갈리뿟다띳사는 담마사절단을 다섯 명 이상으로 하자고 아쇼까왕에게 건의한 바 있었다.

아쇼까왕이 담마사절단을 파견하려고 결심한 까닭은 안보적인 측면도 있었다. 최근에 경비대장과 호위대장 등 여러 명의 대장들이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담마로 방어하겠다고 고심 끝에 대답했던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이 멀리 멀리 퍼져갈 때 세상에는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호위대장이 들어와 두 사람의 대화는 잠시 중단되었다. 호위대장은 아쇼까라마에 장로들이 모이고 있다는 동향을 보고했다.

"대왕님이시여, 아쇼까라마에 수백 명의 장로들이 와 있습니다."

"1천 명의 장로들이 얼마간 아쇼까라마에 상주할 것이니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외도들이 없으니 분쟁이나 불상사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대장들에게도 아쇼까라마에 1천 명의 장로들이 당분간 상주할 것이라고 전하시오."

"장로들은 얼마나 상주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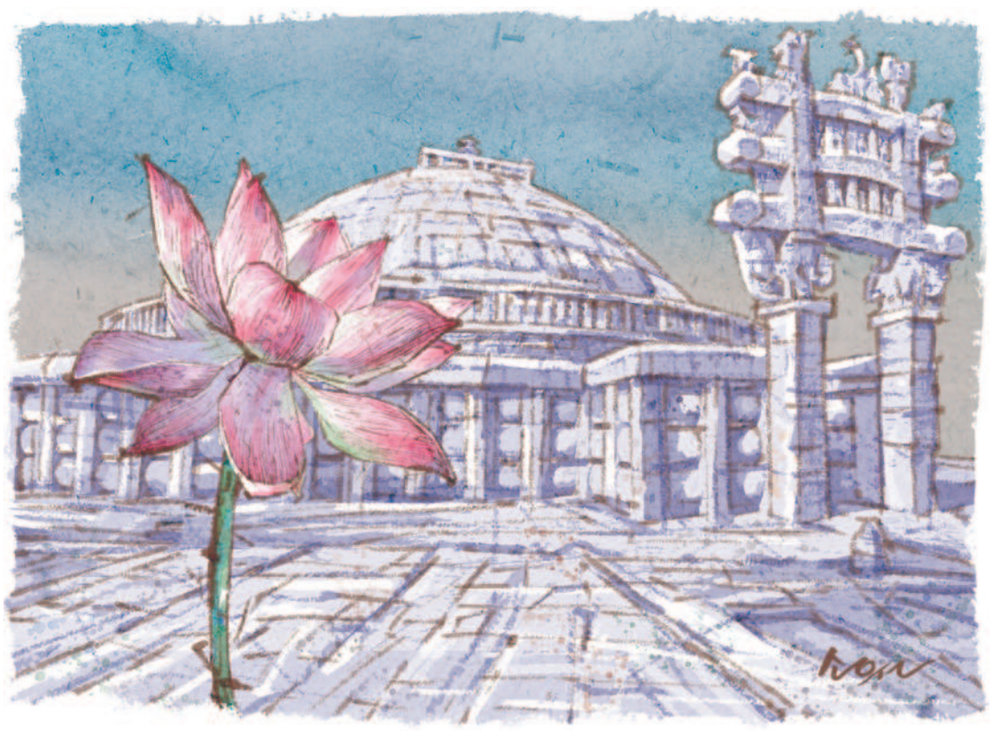
"나도 모르겠소. 수석장로께서 정할 것이오. 아마도 빠와라나 하는 날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오."

빠와라나(자자법회)란 안거 마지막 날에 수행자끼리 허물을 지적하고 참회하는 의식을 뜻했다. 결집도 마찬가지일 터였다. 장로들끼리 기억하고 있는 논서들을 두고 쉽게 동의하지 못하고 다툴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빠와라나를 통해서 서로가 상한 감정을 해소해야 할 것이었다.

9개월 후.

마침내 목갈리뿟다띳사 수석장로와 마힌다 장로의 주도로 시작한 아쇼까라마 결집이 빠와라나 의식을 치른 뒤 끝났다. 아쇼까왕 통치 17년의 일이었다. 아쇼까왕은 1천 명의 장로들을 왕궁 후원으로 초대하여 가사와 바루, 음식을 공양했다. 목갈리뿟다띳사와 마힌다에게는 대왕코끼리를 하사했다. 두 장로가 산치까지 타고 갈 대왕코끼리였다. 추나르에 있는 호위부대 조장에게는 석공 수백 명과 장대한 석주 한 개를 산치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석공 수백 명을 보내라고 한 까닭은 산치 탑에 붓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 붓다를 떠올리게 하는 뻡팔라나무나 불족(佛足), 천신과 악신, 붓다가 전생에 만난 동물들과 아쇼까왕은 물론 첫사랑 데비부인을 상징하는 그림까지도 조각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호위대장에게는 붓다의 사리를 호위하는 1만 명의 군사를 차출하라고 명했다. 아쇼까왕은 변방인 산치 지역의 백성들에게도 붓다의 사리를 공평하게 분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뿐만 아니라 아쇼까왕은 담마로 세상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산치를 남방 잠부띠바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자 했다. 〈계속〉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㉓ 성철의 지눌 비판과 돈점 논쟁



▶한줄요약
우리나라 선종 간화선은 보조 지눌(知訥, 1158~1210)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눌은 선종과 교종이 심각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둘을 회통시키고 독창적 간화선 수행법을 마련했다.

"불교 수행, 절대적 깨달음 가능성 보여줘야"

1. 논쟁의 시작

돈점(頓漸) 논쟁은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치열한 논쟁 중의 하나였다. 돈오점수(頓悟漸修, 문득 깨달은 뒤 점진적 수행 단계가 뒤따라야 한다)와 돈오돈수(頓悟頓修, 문득 깨달아 부처가 되니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를 두고서 그 효용성과 정당성을 따지는 논쟁이다.

돈점 논쟁은 성철(性徹, 1912~1993)이 보조 지눌(知訥, 1158~1210)을 비판하면서 시작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750여 년 뒤인 오늘날 지눌의 가르침이 더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였다. 필자는 수행자로서 다양한 매체와 선지식들의 담화를 통해서 이를 접해왔다. 이 글은 그 비판과 논쟁이 수행의 길잡이 노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한 것이다.

2. 지눌 수행법

지눌은 성적등지문, 원돈신해문, 간화경절문(看話徑截門) 등 삼문(三門)을 만들었다. 그 중 간화경절문은 곧바로 본래면목을 터득하여 부처가 되는 간화선 수행법이다. 지눌은 상근기를 위해 간화경절문을 제시하면서, 돈오점수적 수행론을 배제하지 않았다. 돈오점수를 지향하는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을 만들고 그 한계도 지적했다. 원돈신해문의 사구(死句, 상투적 구절)는 분별 알음알이를 생성하기에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알맞은 수행법이 될 수도 있다도 생각했다. 상근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은 것이다.

지눌은 자기 시대 중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였다. 지눌의 '보조선(普照禪)'은 고려 중후기 고통스런 현실에서 헤매던 동시대인을 위한 것이었고, 그런 정신이 깃들었기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수행법이 되고 있다.

3. 성철의 지눌 비판

성철은 "먼저 깨달은 뒤에 닦는다."라고 하는 지눌의 돈오점수적 생각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지눌 이후 경허에 이르기까지, 경허 이후 더 또렷하게 돈오점수만이 추구되면서 한국불교가 심각한 문제적 상황에 봉착했다고 성철은 진단했다. 구경각(究竟覺)이 아닌 해오(解悟. 생각으로 깨달음)를 견성으로 착각하고 점차로 닦아서 부처의 경지로 갈수 있다고 여기는 돈오점수 수행자가 대부분이라 개탄했다.

성철은 〈육조단경〉에 의거하여, '무심' 혹은 '무념'이 견성임을 강조했다. 이 경지는 미세한 망념까지 영원히 없어진 것이기에 자기 본성을 분명히 보고 구경각을 이루니 그대로 부처라고 했다. 그런데 '자기 본성을 보는 것'과 '미세망념이 없어지는 것'은 찰나 동시적 현상이다. 그래서 단박에 깨치는 '돈오'이지 점차로 수행해서[漸修] 깨닫는 것[漸悟]은 성립되지 않는다.



지눌 스님 진영.

이렇게 지눌과 돈오점수를 비판한 성철은 돈오돈수만이 옳은 수행법이라 결론지었다. 성철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돈점 논쟁이 불붙었다. 이 논쟁은 돈오점수의 필요성을 변호하는 쪽과 돈오돈수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쪽으로 나뉘었다. 둘이 공존할 수 있거나 하나가 다른 것을 포섭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그런데 논쟁의 출발점인 성철이 지눌의 문구를 부정확하게 인용하고 논리의 비약을 보이기도 한다. 가령 지눌의 〈간화결의론〉은 돈오점수가 아니라 돈오돈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성철은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눌을 돈오점수자로만 보았다. 또 성철은 지눌의 돈오가 알음알이 수준에 머문 것이어 지눌을 지해종사(知解宗師)로 규정하고 '마음에 체험이 되지 못'했다고 지눌을 폄하했다. 그러나 지눌은 〈수심결〉 등에서 돈오를 통한 무수이수(無修而修)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성철의 비판은 설득적이지 않다.

그 뒤 논쟁에서는 사용되는 개념들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거나 호도되기도 했는바, 이 점은 논쟁의 가치와 의의를 축소시키는 이유가 될 것이다.

4. 선승들의 견해와 실천

성철의 지눌과 돈오점수에 대한 비판은 한국선불교에 아주 큰 충격을 주었다. 선승들의 입장도 더 분명해지게 되었다. 일찍이 한암(漢巖, 1876~1951)은 지눌의 〈수심결〉을 읽다가 '깨닫고'는 경전 공부를 그치고 참선을 통한 구도의 길로 들어섰다. 한암은 몇 차례의 깨달음을 계속해가고, 깨달음 이후에도 닦음을 멈추지 않았다. 깨달음은 계속되는 수행을 요구한다고 가르쳤고, 깨달음 이전의 닦음은 참된 닦음이 아니라고 보았다. 깨달음[돈오] 이후의 닦음[점수]을 '깨달은 뒤의 소치는 일[悟後牧牛行]'이라고 했다. 한암은 돈오점수적 소신을 피력했고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을 이끌었다.

성철의 지눌 비판으로 '돈점' 논쟁 점화
지눌 · 돈오점수 비판, 한국 선에 충격
부정확한 인용, 논리의 비약 보이기도

반면 수산(壽山, 1922~2012)은 지극한 수행 끝에 문득 깨닫는 것이 돈오이고 더 닦을 것이 없다고 하여 돈오돈수를 지지했다. 진제(眞際, 1931~)는 돈오돈수가 화두 일념삼매에 푹 빠져 죽었다 살아남으로 인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수행법이라 보고, 부처님의 법맥은 돈오돈수법으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했다.

한편 고우(古愚, 1937~2021)는 '위빠사나'가 '미혹'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닦는 것이라는 점에서 돈오점수 수행인 반면, 간화선은 착각을 단박에 깨는 것이기 때문에 돈오돈수라 했다.

고우는 집중 삼매가 8식 수준에까지 이루어진 것이 '오매일여(寤寐一如)'인데, 마치 은산철벽에 들어간 상태와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이 경지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은산철벽을 뚫고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확철대오'이다. 이 경지는 생각의 길이 완전히 끊기고, 주관과 객관도 사라져, 모든 분별이 다 사라진 경지이다.

그런데 오매일여는 8지보살의 경지인데, 이때 사람의 근원적 욕망인 색욕까지 사라진다. 이 근원적 욕망을 뿌리 뽑지 못하면 언행일치가 안 된다고 하여,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표징을 '언행일치'에서 찾았다. 스스로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이 자각되면 '깨달았다' 말하지 말고 그냥 '지견(知見)이 났다'고 겸손하게 고백한 뒤 돈오돈수를 추구하는 것이 더 양심적인 수행자의 태도라고 가르쳤다.

5. 계속되어야 할 질문과 성찰

돈오, 돈수, 점수의 주체는 한창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인가, 아니면 이미 '깨달은 수행자'인가? 수행은 돈오 전의 수행인가, 돈오 이후의 수행인가?

'깨달음'이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고, '깨달음 없는 깨달음'이기에 원칙적으로 돈오돈수가 맞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행의 단계와, 수행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절차, 깨달음 뒤의 남은 과제 등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등 소위 사문사과(沙門四果)가 수행자들의 지위는 아니지만, 수행 경지의 단계인 것은 분명할 것이다.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은 수행의 절차와 과정, 깨달음의 단계에 대하여 반복하여 계시한다. 이른바 '9차제정'이다. 부처님은 무색계 사선정 중 '무소유처정'과 '비상비비상천정' 수행 단계조차 단계적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상수멸정(想受滅定)으로 들어갔다가 그 과정을 되풀이 하였다. 수행 중생을 위해 부처님이 보여준 '수행 단계'요 '수행 절차'인 바, 이것도 돈오점수라고 매도할 수 있을까?

〈원각경〉의 신해행증(信解行證)의 가르침도 너무나 소중한 수행 지침이 되어왔다. 이들은 동시적이면서도 계기적이고 계기적이면서도 동시적이다. '해-행-증'이라는 〈원각경〉의 차제는 '정견-점수-돈오'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해오(解悟)-점수-돈오'라고 확장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점에서 해오(解悟)를 '깨달음'으로, 증오(證悟)를 '깨침'으로 구별하자고 한 박성배(朴性焙, 1933~)의 견해가 관심을 끈다. 증오를 명백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해오의 개념이 필요하다. 또 수행의 과정에서 해오(解悟)의 단계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오(解悟)는 분별적 알음알이와는 다른 것이다. 해오는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 혹은 '우리의 분별로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수행 과정에서 완전한 깨침인 '돈오' 못지않게 소중한 단계가 된다. 해오를 중요한 수행 단계로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점수(漸修)가 뒤따라야 한다. '점수(漸修)'는 '닦지 않는 것이면서 닦는 것' 즉 '무수이수(無修而修)'이다. 여기서 '무수(無修)'만 강조하면 돈수(頓修)가 되지만 '수(修)'까지도 고려하면 점수(漸修)가 된다.

닦으려면 시간의 존재를 전제해야 한다. 또 닦을 게 없지만 닦기도 해야 한다. 수행 영역에서 하근기 중생들의 상식적 형편을 고려한다면 '점수'를 우선 떠올려 인정하게 되고 '돈수'는 너무나 막연한 경지로 느껴지기도 한다.

다른 한편, 시간은 공한 것이고 환(幻)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생각이 무량겁의 생각이 된다.[一念卽是無量劫] 이 수준에서 보면, 돈수와 점수는 같은 것이 된다. 그러면 돈오돈수가 옳으니 돈오점수가 옳으니 하는 논쟁은 '일념즉시무량겁'을 모르거나 고려치 않은 부질없는 말장난이 된다. 일념 한 순간에 깨닫는 것과 무량겁에 깨닫는 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 〈화엄경〉의 "초발심이 곧 정각이다[初發心時便正覺]"라는 가르침을 떠올리면 돈오돈수가 맞다. 즉 돈오돈수는 "초발심이 곧 정각이다."라는 〈화엄경〉 가르침의 선적 표현이 되는 것이다.

불교 수행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돈오돈수는 모든 중생이 즉시 문득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중생 해방의 수행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연세대 객원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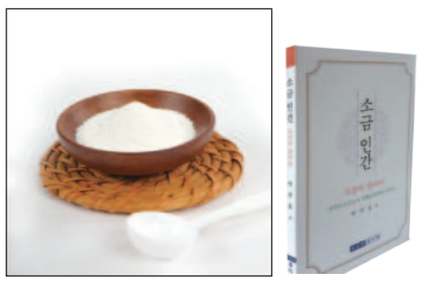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이안의 Media In Buddha ❺ 축구영화 〈컵〉과 〈킥 오프〉



▶한줄요약
월드컵 시즌이다. 월드컵과 축구를 소재로 한 영화는 다수 있으며, 이중 불교영화로 볼 수 있는 작품은 국내에도 잘 알려진 〈컵〉이다. 또한 전후 이라크에서 축구를 통해 희망을 찾아보는 〈킥 오프〉도 함께 감상해볼 영화다.

축구, 깨달음과 희망을 전하다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전에서 탈락했을 때 차두리 선수는 눈물을 쏟으며 서러워했지만 월드컵을 통해 인생을 배웠다고 했다. 높은 수준의 세계 축구를 경험하면서 익히고 얻은 배움도 컸겠지만 차두리 선수는 무엇보다도 크게 배운 것은 '훈련장과 경기장을 오갈 때 손을 흔들어 주는 해맑은 표정의 천진난만한 흑인 아이들의 눈에서 희망을 본 것' 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월드컵 대표로서 저 아이들에게 이런 작은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다면서 월드컵에 오기 전에는 남아공하면 위험한 곳,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이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정말 배우고 느낀 게 많다고 했다.

월드컵, 프리미어리그, K-리그와 같은 국가 대항전에서부터 스포츠 산업의 황금알인 프로축구리그전은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과 명예의 각축장이 되고 있지만, 한국 축구단이든 유럽 명문 클럽이든 자기 나라 출신 아니라도 전 세계 어디서든 공 다루는 재주 빼어나면 가리지 않고 모아 팀을 꾸린다.

운동 가운데 축구는 장비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 땅과 공, 그리고 편을 나눠 달릴 사람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다. 그러니 가난한 나라에서 맨발로 달리면서도 세계적인 축구스타가 되는 꿈을 꿀 수도 있고, 축구로 이름을 떨쳐 당장 닥친 어려움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꿈 꿀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친구만 있으면 재미있게 놀 수도 있다!

〈컵〉(1999)이라는 영화는 아마 축구와 영화를 좋아하는 불자들이라면 낯설지 않은 축구 영화일 수도 있다. 행복지수라든가 관광지 뉴스라면 몰라도 영화나 축구 쪽에서는 이름을 들어보기 쉽지 않은 나라 부탄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다가 감독이 스님인데 1999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화제작이 되더니 20년도 더 지난 2021년에는 제1회 불교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한 빼어난 '불교+축구영화' 이니까.

히말라야 한 지역인 인도 다람살라에는 티베트 임시망명정부도 있고 티베트 출신 승려들도 있고, 그 승려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도 있다. 라마불교를 믿는 티베트나 부탄 같은 나라에서 아이 때부터 불교공부와 수행을 가르치는 사원인 승가학교가 영화의 배경이다.

중국 지배하에 있는 티베트로부터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해서 니마와 팔덴이라는 두 청소년이 이 학교로 온 까닭은 부모님이 달라이라마가 계신 곳에서 불법을 배우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엄숙하고 경건할 주 알았던 학교는 어수선하고 정신 사납기만 하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기간이던 이 시기, 승가학교라고 월드컵 소식에 어두운 것도,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어린 승려 학생들은 경전 공부 대신 스포츠잡지에 푹 빠져있고, 숙소 벽에는 부처님 탱화가 아니라 축구 스타들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고, 사원 벽에는 '파라과이 이겨라' '독일 만세' 따위 낙서들이 즐비하다.


영화 〈컵〉의 한 장면. 월드컵을 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티베트 스님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담아냈다.

불법에 정진하리라던 팔덴과 니마도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열혈 축구팬인 같은 방 친구 오기엔과 함께 학교를 몰래 빠져나가 월드컵 준결승전을 보러 간다. 승가학교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으니까. 마을 사람들과 함께 경기를 보다가 들통이 나서 경기도 끝까지 다 못 보고 쫓겨났는데 찾으러 온 호랑이 사감 스님한테 잡혀 벌까지 받게 됐지만 그렇다고 결승전을 보려는 마음을 접는다면, 축구 좋아하는 아이라고 할 수 없다. 사원에 텔레비전만 있으면 결승전 보는 건 일도 아닌데. 혼자도 아니고 사실 다들 보고 싶어 하는 일이니 사감 스님을 조른다. 사원에 텔레비전을 들이자고.

사실 사감 스님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동안 어린 승려 학생들에게서 압수한 축구 잡지가 얼마던가? 그 잡지들을 꾸준히 본 사감 스님은 축구가 일으킨 열망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 보스는 주지 스님. 축구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노스님을 설득하는 것은 사감 스님의 몫이다.

월드컵이 뭔지 묻는 주지 스님에게 사감 스님이 공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가 싸우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다시 그 전쟁은 언제 벌어질 지를 묻자 오늘 밤 자정에 시작된다고 대답한다. 그 묘한 시간에 싸워서 이기면 얻게 되는 지를 묻자 '컵' 을 얻게 된다는 답은 사실이기도 하고, 믿기 어려운 판타지기도 하다.

주지 스님이 허락을 했지만 텔레비전을 사원에 들이는 것은 첩첩산중이다. 텔레비전을 사는 것도 아니고 빌리는 데도 많은 돈을 내야하는데 축구광 오기엔이 나서서 어린 승려들로부터 쌈지돈 모은 돈으로는 턱도 없이 비싸다. 마침 니마가 티베트에서 넘어올 때 엄마가 준 회중시계를 빼앗다시피 해서 담보로 맡기고서야 텔레비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 마침내 결승전을 보게 된다.

'축구 제전' 월드컵 소재 영화 다수
월드컵 시청 위한 티베트 스님 다룬
'컵', 일체개고 가르침 전한 불교영화
전쟁서 축구로 희망 전하는 '킥 오프'
스포츠가 가진 본 의미를 곱씹게 돼

그러나 니마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은 오기엔은 축구를 즐길 수가 없다. 축구에 대한 열망을 이루기까지 온갖 일을 벌여 드디어 결승전을 보게 됐는데, 오히려 고통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열망을 채우자고 니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을 때 얼마나 니마가 고통스러워하는 지를 본 오기엔은 욕망이 고통과 더불어 다닌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소중한 것으로 니마의 상실을 갚아 주고자 한다.

축구라는 욕망 앞에서 니마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순간이 곧 일체개고를 깨우치는 순간이다.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에서 대부분의 대중들이 삶을 이끌어가는 본질은 어차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까닭은 단지 무언가를 뺏고 빼앗기 때문만은 아니다.

욕망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다. 바라고 또 바라는 욕망이 고통을 일으키는 인연의 고리에 있는 것이다. 축구를 통해서 단순한 이 진리를 깨우치는 오기엔에게는 마침 훌륭한 스승도 있다. 어린 승려만 깨우치는 것은 아니다.

늘 짐을 쌌다 풀면서 다시 티베트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주지 스님은 두고 온 티베트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티베트를 보게 됐다.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탄압받는 티베트의 정치 현실과 달라이라마를 비롯해 많은 스님들이 망명지에서 불법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티베트 불교가 처한 상황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컵〉은 티베트 대표팀이 한 번도 진출해 본 적도 없는 월드컵을 통해 크게는 티베트를 둘러싼 정치 현실부터 작게는 어린 나이에 망명을 해야만 지킬 수 있는 정체성 문제까지 아우른다.

이라크 쿠르드족 출신 이란 감독 샤우캇 아민 코르키 감독의 〈킥 오프〉 또한 어린이와 축구 이야기를 통해 살아야 할 곳에 살지 못하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낸 가슴 저린 작품이다.

이라크 북부도시 키르쿠크에 있는 스타디움도 한때는 그라운드를 내달리는 선수들과 경기를 즐기는 관람객들의 환호로 들썩이던 공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의 첫 장면에서 불쑥 나타난 말은 이곳이 이미 스타디움이면서 스타디움이 아닌 다른 공간이 되어있는 기묘한 상황을 보여준다. 얼핏 황량한 듯 보이는 스타디움 여기저기에는 사람들이 쓰레기로 공간을 나누어 머물고 있다. 그 생뚱맞은 공간에 마침내 축구복을 입은 사람이 등장한다. 등에 지단의 이름이 새겨진 축구복을 입은 소년은 한쪽 다리가 없다.

아마도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선수가 되기를 동경했을 그 소년은 앞으로 마음껏 달리지도, 공을 차지도 못할 것이다. 소년은 방금 다리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다. 축구를 하러 스타디움에 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기 위해.

둘러보면 그곳에서 사는 것은 소년의 가족만이 아니다. 스타디움은 넓고, 넓은 만큼 여러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 그래서 집을 잃고 쫓겨난 난민들의 거처가 돼 있다. 스타디움을 원래 목적에 맞게 경기장으로 써야겠다며 걸핏하면 나타나 윽박지르는 관료가 아무리 험악해도, 갈 곳 없는 난민들은 날마다 어디선가 테러 폭발 사고가 잃어나는 스타디움 바깥 어디로도 떠날 수 없다. 그 안에서 그들은 작은 학교도 꾸리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싸움도 하고, 화해도 한다.

난민의 삶은 팍팍하다. 그 팍팍한 삶에서 서로 어울려 축구 시합을 하고, 때때로 중계되는 축구 경기를 보는 정도가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이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 지뢰밭에 떨어진 공을 찾겠다고 나섰다가 다리를 잃은 동생이 못내 안타까운 형 아수는 손바느질한 천으로 스크린을 만들어 스타디움에 사는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축구 경기 중계를 보게 하지만, 동생에게는 그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이 있다.

동생을 위해, 그리고 여러 난민들을 위해 아수는 아랍, 쿠르드, 아시리아, 터키 출신 아이들의 축구 경기를 기획한다. 방송국을 찾아가고, 관청에 편지를 보내고, 다른 민족을 초대하면서 아수는 꿈을 꾼다. 그 소박한 경기를 통해 스타디움이 스타디움으로 거듭나는 광경을.

〈킥 오프〉는 현실에 대한 영화이며, 꿈에 대한 영화다. 아수가 남루한 스타디움에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모처럼 경기를 보며 함께 응원하고 환호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던 것처럼 샤우캇 아민 코르키 감독과 〈킥 오프〉를 함께 만든 사람들은 영화를 통해 전쟁과 테러로 얼룩진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서 함께 나누고픈 희망이 있었을 것이다.

월드컵의 계절, 저 공을 향한 열망이 일체개고를 깨우치는 순간이 되는 것은 단지 한 경기 이기고 지는 승부 때문이 아니라 그 공 하나에 어떤 의미를 싣는가를 성찰할 때일 것이다. 영화를 통해 축구 하나 마음껏 즐길 수 없는 어린이들과 나라들이 부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영화평론가〉

원스톱 시스템이란?
수 없이 겪는 법당 현장이지만 심오한 사찰 음향의 깊이를 전혀 모르는 부근 지방 업자들의 단순 기술시공 결과! ..... 염불 스트레스 누적과 만성피로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 .... 명품사운드 훈련강사 서울 낙원동 출신 베테랑 음향 전문인에게 맡기시면 단 한번 최고 시설로 많은 절약과 후회가 없다는 뜻이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들어보세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 사찰 시설비용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원톱 시스템 다목적 방생용
한번에 최고의 성능을 구입하시면 절약 속에 후회가 없다는 뜻!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명품 Sound
명품소리 훈련강사 박 공 희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 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유정길의 불자라면 이렇게 ⑪ 금강경서 읽는 생태적 메시지



▶한줄 요약
〈금강경〉은 공의 이치를 설한 대표 대승경전이다.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이라는 4가지 상이 없어야 진정한 보살이 된다. 생태적 삶도 마찬가지다.

너는 곧 나…분별없는 삶이 '생태'다

내 괴로움 없애려면

〈금강경〉은 모든 존재의 공한 이치를 말씀하신 대표적인 대승경전이다. 〈금강경〉의 첫 장면은 부처님이 걸식을 마치고 본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발우를 정리하고 발을 씻으신 후에 자리를 펴고 앉자, 장로 수보리가 일어나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수보리의 질문은 "아뇩다라 삼먁삼보리심" 즉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고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하고, 보살이라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에 부처님의 대답은, 탯줄로 태어난 포유류(태)와, 알로 태어난 조류(란), 습기로 태어난 파충류(습), 세포 분열로 태어난(화) 등과 빛이 있고 없는 것, 생각이 있고 없는 존재 등을 나열하고는 이 모든 중생을 완전히 열반에 들도록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위해서는 남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다.

실제 필자도 과거 개인의 실존에 대한 깊은 번뇌가 있을 때 사회적 문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며, 그들을 도우려는 행동을 하다보니 내 고민은 없어지고 내면을 갉아먹던 상처가 어느새 사라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욱 공감됐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먹고 실행한 뒤라도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이 있으면 보살의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도왔다, 내 덕분에 너의 고통에서 해소됐다고 생색내며 또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도왔다는 마음까지 사라져 도운 바가 없다는 생각에 이르러야 진정한 보살의 마음이라고 가르치신다. 참으로 깊은 경지이다.

어머니들도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키운 뒤 세월이 지난 후 그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푸념하며 자식에게 경제적 도움이나 효도, 댓가를 기대하는 보상심리를 갖는 경우가 많다. 타인을 위해 좋은 일을 하거나 헌신한 뒤에도 마음의 밑바닥에 보상의식이 자리잡고 있어, 대접을 기대하고 때로 보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서운해하거나 분노의 감정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 모두 도와주었다고 티내고 상(相)을 내는 것이다.

4가지 相의 생태적 가르침

앞서 언급했듯이 금강경에는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 등 4가지 상(相)을 말씀하신다.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은 구분하고, 나눌 수없이 연결돼 있는 인연의 이치임을 가르치셨지만,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가르고, 나누고, 구분하고, 분리하며 사고해 왔다. 그렇게 경계를 짓고 분별하는 것이 모든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의 실제 화근이 되었다. 그래서 4가지 상을 생태적으로 한번 돌이켜 조명해보고자 한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행된 온택트 금강경 독송 정진 모습.

첫 번째로 아상(我相)이다.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이다. 자기의 주관과 입장에 사로잡혀 다른 이를 '그들' '저들'로 타자화시키고 대립, 경쟁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의 정치와 경제는 개인의 이익과 자신의 성공에 함몰되어 있다.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구조화되어 있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 이전투구의 경쟁이 있다. 상대의 실패는 나의 성공의 발판이 되며 너의 성공은 배 아픈 일이 된다. 경쟁사회다 보니 아이들의 교육터전인 학교조차 협동하고 돕고 배려하기보다, 이기는 교육, 경쟁해 승리하는 교육을 가르친다. 피어린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대를 짓밟는 것을 배운다. 이러한 경쟁은 곧 투쟁과 전쟁으로 확장되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가난한 나라와 약자들이 받게 된다.

두 번째, 인상(人相)이란 사람인 것과 사람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구상에서 오로지 인간만이 중요하다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이다.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동물, 식물등의 존재들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거나 마땅히 이용되고 희생돼야 할 도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은 수탈되고 파괴되어도 상관 없을 뿐 아니라 지배하고 정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이렇게 인간은 비인간을 구분하여 하위에 두고 차별해 왔다.

또한 인간 자신의 관점을 기준으로 '익충과 해충'을 구분한다. 그래서 해충은 씨를 말려 '박멸'하겠다고 생각한다. 이름없는 풀들을 '잡초'라고 규정하여 '제거'하겠다고 하여 농약과 제초제, 살충제로 죽이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1960년대 초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2차대전 이후 획기적인 만능 살충제이자 말라리아 퇴치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DDT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생물을 죽이고 위험한지를 밝혀 큰 충격을 주었다. DDT가 호수와 강물의 플랑크톤이 먹어 몸에 축적되고 그것을 먹은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의 몸에 축적(생물학적 농축)됐으며, 결국 이들을 먹은 새들이 대량으로 죽게 되자 새들이 울지 않은 봄이 되었다는 것이 미국사회의 환경운동을 본격화하게 만든 〈침묵의 봄〉의 내용이다.

꽃 이치 설한 대승경전 '금강경'
4가지 相 없어야 보살에 이르러
분별을 제거해야 깨달음 얻듯이
생태적 삶도 분별 끊는 데 있어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기후변화를 야기시키는 세계 탄소배출량 중에서 축산업이 18%를 차지한다고 했다. 이는 14%를 차지하는 자동차 항공기등의 교통분야를 능가하는 양인 것이다. 오늘날의 소, 돼지, 닭, 오리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으려고 태어난 짐승들이며, 인간의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존재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재배되는 콩, 옥수수 등의 곡물의 절반은 사람이 아닌 축산 동물의 사료를 위해 재배되고 있다.

아우슈피츠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나치의 홀로코스트,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가 콩고의 고무를 채취하기 위해 콩고국민의 1000만 명을 학살하거나 손목을 자른 대량학살을 제노사이드(Genocide) 이라 부른다. 현재 육식을 위해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동물들의 살육의 상황은 생물종의 파괴와 더불어 에코사이드(생태살해, ecocide)고 할만한 행위이다.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는가

세 번째는 중생상(衆生相)이다. 생명과 비생명을 구분하는 것이다. 어떤 글에는 동물과 비동물을 구분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약한 동물도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려고 저항한다. 고통받지 않고 죽음을 피하고 싶어한다. 최근 동물보호나 동물권 운동을 통해 사람들은 동물의 생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5000만 인구 중 1500만 명이 반려동물과 살다보니 개와 고양이등은 가족보다 더 많은 애정을 느끼게 된다.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드라마로 인해 고래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들이나 식용으로 잡힌 개들을 구출하는 활동까지, 동물을 보호하고, 축산업을 줄이고 육식을 줄이는 채식운동도 확대되고 있다.

동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식물도 존재해야 하며 흙과 모래, 바위등도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고통을 느끼는 동물까지는 관심을 두지만 이들 식물과 비인간 비생명들은 소중하게 지켜야할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크고 작은 온갖 벌레와 곤충 등, 생물들이 살고 있는 물웅덩이는 지저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들 늪과 갯벌은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습지로서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습지보존을 위한 람사르 협약에 인제의 대암산 용늪을 시작으로 우포늪과 순천만 보성 갯벌, 최근 장항습지까지 24개가 가입돼 있다.

또한 1872년 미국의 엘로스톤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우리나라도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설악산, 덕유산 등 18개의 산악형국립공원과 다도해, 한려해상, 태안해안 등 3개의 해상해안형 국립공원, 경주와 같이 1개의 사적형 국립공원을 포함하여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어 보존해야할 소중한 가치있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에는 레저와 위락시설등 인간의 이용대상으로만 인식했지만, 이제는 보존해야할 곳으로 명확히 인식되고 있다.

에콰도르는 2008년 개헌을 통해 '자연의 존재 자체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권리'와 '(훼손됐을 경우) 원상회복될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자연권을 세계최초로 헌법상에 명기된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뉴질랜드도 2017년 4개의 강에 대한 법적 권리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 시의회는 2010년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분별을 넘어선 불일불이의 사고

네 번째는 수자상(壽者相)이다. 목숨이 있고 없는 것, 삶과 죽임이 있다고 구분하는 것이다. 간혹 나라는 존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존재와 비존재를 구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마지막의 내용을 기조로 설명하겠다.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는 기후변화는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CO_2)와 메탄가스(CH_4), 아산화 질소 등이 심각한 원인 물질이다. 산소와 질소, 탄소와 자외선과 적외선, 다양한 방사능 등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없으면 인간의 생명은 한시도 지속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보이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너를 가르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고, 동물과 식물을, 생명과 무생명, 존재와 비존재를 갈라놓고 그것을 고정된 실체로 보는 요소론이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임을 이미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이치로 보면 구분하고 가르는 것은 〈분별심, 또는 경계〉라고 하여 인간의 미망과 어리석음의 시작이 되는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존재는 현상적으로 구분되어 보이나 근본에서는 구분할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된 존재임이 생태적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유정물과 무정물도 모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두 불성을 갖는 존재라고 하셨다. 피부 속에 갖힌 나만이 나(我)라는 개별적 자아에서, 당신이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나(관계적 자아)이며, 수많은 동물, 식물, 자연 등의 생태계가 바로 나의 확장이라는 깨달음(생태적 자아)이고, 자연과 생명 이웃, 만생명이 풍요롭고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곧 내가 잘되는 것(보살적 자아)이다. 바로 이 부처님이 출가를 하신 동기이기도 하다. 생태적 실천과정은 이러한 생태적 깨달음이 함께 해야 한다. 〈끝〉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여래장에 있는 진공묘유의 도리

〈如來藏〉 〈眞空妙有〉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㊻ 空과 不空

〈원문〉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여래장의 지혜는 바로 여래의 공(空)한 지혜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래장(如來藏)이란 일체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큰 힘을 가진 보살(大力菩薩)들로서는 본래부터 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두 가지 여래장의 지혜가 있사온데, 세존이시여, 공한 여래장(空如來藏)은 온갖 번뇌장을 여의었거나 벗어났거나 다른 것이고, 공하지 않는 여래장(不空如來藏)은 항하의 모래보다도 많은 여의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는 불가사의한 불법이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두 가지 공한 지혜로 모든 큰 성문들은 여래를 믿습니다. 일체 아라한이나 벽지불의 공한 지혜는 네 가지 뒤바뀌지 아니한 경계에서 움직이는 것이므로 일체 아라한이나 벽지불은 본래부터 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고통이 소멸하는 것은 오직 부처님만이 증득하시는 것이니, 일체 번뇌장을 깨뜨리고 온갖 고를 멸하는 도를 닦는 것입니다."

〈강설〉 여래장의 지혜를 공여래장(空如來藏)과 불공여래장(不空如來藏)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대목이다. 공과 불공,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말이지만 공하고 공하지 않는 것이 실은 하나다. 예를 들어 말하면, 빈 병이 하나 있으면 병 속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없다는 뜻에서 '병이 비었다.' 하는 것은 공의 뜻이다. 그러나 병이 비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병 속에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하지 않는 불공의 뜻이 된다. 그래서 공한 것이 공하지 않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워진 것이 빈 상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많은 역할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진공묘유(眞空妙有)의 도리라 한다. 동시에 이 진공묘유가 중도(中道)가 되는 것이다.

불교 수행에 있어서 단견(斷見)과 상견(常見)에 빠지는 것을 외도(外道)라 한다. 이 두 가지 견해에 빠지면 불교가 아니라는 말이다. 단견이란 없다고 부정하여 그것으로 끝나는 소견이다. 반대로 상견은 있다고만 주장하여 유(有)의 견해에 집착하는 것이다. 유(有)와 무(無)가 상통되지 못하고 한 쪽에만 치우치면 이를 변견(邊見)이라 한다. 이 변견을 가지면 외도나 사도(邪道)가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공(空)에 숨어 있는 묘유(妙有)를 모르고 공으로만 보아 집착하는 것을 완공(頑空) 또는 악취공(惡取空)이라 한다. 이를 병으로 보아 공병(空病)이라는 말도 써 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과 불공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공(不空)이 곧 묘유(妙有)다.

흔히 인용하는 〈금강경〉 사구게(四句偈)를 가지고 말하면 "무릇 있는 바 모양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凡所有相 皆是虛妄)"는 앞 두 구를 진공(眞空)을 말한 것으로 보고, "만약 모든 모양(相)이 모양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여래를 본다(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의 뒤 두 구는 묘유를 설파한 것으로 본다. 공을 통하여 부처를 본다는 이 말은 공이 공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부처를 보니까 진공묘유라는 것이다.

승만 부인의 말에도 '공하지 않는 불공여래장(不空如來藏)에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의 불가사의한 불법이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를 달리 무루성공덕(無漏性功德)이라 말하기도 한다. 새지 않는, 마모(磨耗)되지 않는 공덕이 본래 그대로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여래장이 여래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은 불공의 무루성공덕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있고 성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공(空)을 말하고 유(有)를 말하는 것은 중생의 근기와 상황에 따라 방편으로 설해진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참선 들 때 호흡과 마음 조절법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㊾ 선정수행 조건과 깨달음 위한 조절법

2. 참선에 들어갈 때 호흡법

불자 여러분! 다음은 선정에 들어갈 때 호흡을 고르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은 여러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중국의 천태 지의대사는 호흡에 대해 네 가지 종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호흡이란 풍상(風相), 천상(喘相), 기상(氣相), 식상(息相) 등의 호흡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풍상·천상·기상의 호흡은 바르게 조화되지 않은 호흡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식상(息相)은 바르게 조화된 호흡의 모습이라고 천태 지의대사는 설명합니다.

여기서 풍상(風相)이란 말은 호흡을 할 때 콧속에 숨이 드나드는 소리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상(喘相)은 천식 호흡처럼 호흡을 할 때 소리는 없지만 숨이 드나듦이 맺히고 막혀서 통하지 않아 헐떡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상(氣相)은 소리나 맺히고 막힘이 없지만 숨결이 드나듦이 섬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식상(息相)은 소리도 없고 맺힘도 없으며 크지도 않고 숨결이 드나듦이 계속되어 끊어지지 않으며, 호흡이 있는 듯 없는 듯 고요한 것을 말합니다. 이 식상의 호흡은 몸을 편안하고 온화하게 지탱하고,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품게 하는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천태 지의대사는 호흡에 풍상을 지니면 숨이 곧 흩어지고, 천상을 지니면 숨이 곧 맺히고, 기상을 지니면 몸이 곧 피로해 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흡이 식상을 지니면 바로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참선에 들어갈 때 만약 호흡이 풍상이나, 천상이나, 기상의 세 가지 상이 있게 되면 먼저 이것을 조절하여 고르게 한 다음에 선에 들어가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 풍상·천상·기상의 세 가지 호흡을 조절하려면 세 가지 법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호흡을 할 때 들숨이 배꼽 아래 단전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의식을 배꼽 아래 단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호흡이 단전에서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을 느슨하게 이완하여 개방하는 것입니다. 몸이 이완될수록 호흡은 바르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숨이 온 몸의 모공(毛孔) 즉 털구멍으로 골고루 드나드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고요하고 세밀하게 안정을 하면 숨결은 점차 고요하고 가늘어져 식상의 호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숨결이 고르게 안정이 되어야만 모든 근심과 분별망상이 생기지 않고 마음이 편안히 안정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참선에 들어갈 때 호흡을 고르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3. 참선에 들어갈 때 마음 조절하는 법

불자 여러분! 다음은 참선에 들어갈 때 마음을 고르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선에 들어갈 때 마음을 고르게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별망상을 일으키며 흐트러진 생각을 항복시켜 멋대로 날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이 가라앉거나[沈], 들뜨거나[浮], 느긋하거나[寬], 급한 것[急]을 안정시켜 정도가 알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라앉는 침상(沈相)은 참선 중에 마음이 어둡고 캄캄하여 기억되거나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없고 머리가 자주 숙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가라앉을 때는 의식을 코끝에 걸고 마음을 지금 현재 관계하고 있는 연(緣)에 머물게 하여 마음이 산란하거나 흩어짐이 없게 억제하면 이것으로 침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들뜨는 부상(浮相)은 참선 중에 마음이 자주 가볍게 날려서 산란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몸 또한 불안하게 하고 외부의 다른 연[異緣]을 생각하는 등의 망상을 피웁니다. 이런 때는 적절하게 의식을 배꼽 아래 단전으로 보내서 안정시키고, 연(緣)을 배꼽 속에 걸어서 흐트러진 모든 생각을 억제시키면 마음이 곧 안정에 머무르게 되어 편안하고 고요하게 됩니다. 결국 마음이 가라앉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조화된 양상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㊻ 짱끼의 경 1

無明에서 본 것은 사실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봉사들이 줄을 선 것과 같이, 앞선 자도 보지 못하고, 가운데 선 자도 보지 못하고, 뒤에 선 자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초기 그리스의 우주론처럼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의 시원적 공허 또는 지하세계인 타르타로스의 심연을 가리키는 '카오스(Chaos)' 일까? 아니면 요즘 과학에서 말하는 무정형의 빈 공간으로서, 원자보다 훨씬 작은 물질의 거품이 1조의 1조의 1조분의 1초보다 더 짧은 순간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되풀이하는 '양자 거품(Quantum foam)' 일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명(無明)이라 말씀하셨고, 육조스님은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라고 하셨다. 그렇지만 지금 누군가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피할 길 없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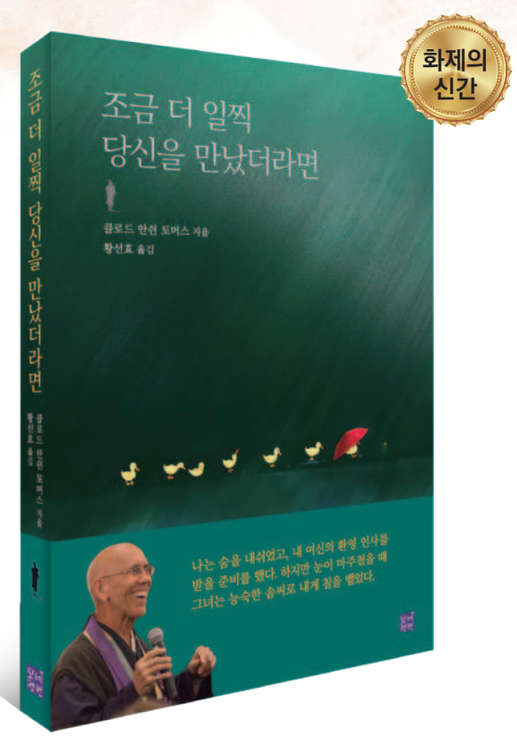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조주 스님의 대답이야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묻는 스님의 답답함이 중요하다. 밖으로 보이는 만물이야 자신도 보고 있지만, 그 만물이 생기기 전을 아느냐고 물은 것이다. 즉, "진리는 무엇입니까?"를 바로 여쭈었다. 스님은 이 질문을 던지기까지 아마도 나름의 사유체계로 열심히 수행하였음이 분명하다. 핵심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깊이 있는 통찰을 하는 것이며, 마지막 의식의 정점에 와 있는 것이므로 익은 과일의 꼭지를 따는 일만을 남겨두었다 할 수 있다.

옛 선사들은 언어를 언어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왜 그런가? 의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헤아릴 수 없게 만들어, 남아 있는 모든 거짓을 그 즉시 버리게 하려 함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밝지 않음[無明]'에서 본 것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알아 그곳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 선사의 역할이다.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잘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잘 피해 재앙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아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연결되어 있는 한 생각을 끊어 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 한 생각은 옳음도 없고, 옳지 않음도 없고, 그저 한 생각일 뿐이었다는 것을 통렬하게 통찰하여, 있지도 않은 것은 버릴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첫 말'이다. 분명히 사대오온은 여기서 "그 '다음'은 뭐지?"라고 지나가듯이 혼잣말을 할 것이다. 수행자들이 여기에 대부분 걸려들고 만다. 그리고 뭔가에 대한 찜찜함을 가져 버린다. 이때 선사의 일갈(一喝) 혹은 스스로의 일갈이 필요하다. 이 일갈로 지금까지 불필요하게 걸어온 모든 사변적인 말과 행동이 버려지고 모양과 소리가 아닌 것만 유일하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다. 그리고 말한다. "수행은 진리를 찾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을 망친다. 진리는 숨어 있지 않다. 진리는 누군가에 의해 정의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 찾아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아는 자가 있는 한, 그 진리로 보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아는 그 자신을 가장 진리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 아는 자를 무명으로 바로 보게 되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대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진리를 알게 된다. 하지만 이 말을 바르게 듣기까지는 다시 의심하고 두려워한다.

누가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르겠는가. 일러주는 자는 일러주는 가르침을 믿으라고 말할 뿐이다. 일러주는 자를 대상으로 삼아 믿는 것은 깨진 독에 물을 부으면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아무리 애써 붓는다 해도 채워지지 못한다. 누구에게나 당면의 문제인 태어났다는 한 생각, 늙었다는 한 생각, 병들었다는 한 생각, 죽는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고 그것을 알았다고 말하는 자를 바르게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 생각은 단지 물질, 느낌, 지각, 의도, 의식의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물결 같은 것이지 사실적인 흔들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온전히 알아 마지막 여행의 즐거움을 갖는다면 더할 나위 없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화제의 신간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15호 | 17 | 전면광고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좌선이라 할 수는 없다. 현실 속에 살면서도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유마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가액 : 25억원

◎ 위치 : 부산
◎ 부지 : 110평
◎ 건평 : 약100평
◎ 산 및, 주차가능
◎ 가액 : 8억 5천만원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 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2천5백만원(조정 가능)
- 노스님 몸 아픈 관계로 급 양도
- 가전제품 보시 ●당일법회 가능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담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약 130평, 836번지 약 300평**
- **4년전 포크레인 작업, 조용하고 청정지역, 아담하고 포근한 자리, 샘물 나옴**
- **절터, 산소자리 적합**
- **3천5백만원에 건강상 양도**

010-7628-9997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3억원

010-4835-1739

사 찰 (급)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종교용지 1996년 터 잡아 현재까지 운영
- 대지 1천평, 건평 70평 내 법당, 공양간, 종무실, 접견실, 요사채
- 삼존불, 금동불상, 동진보살, 아미타불 석물, 상석, 법당인등 1천불, 영가인등 1천불
- 100미터 지하석수, 실외 화장실 2개, 상수도, 5미터 도로, 심야보일러, 에어컨 주지스님 건강 관계로 좋은 인연을 기다립니다,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랍니다
- 가액 9억5천만원에 양도함(절충가능)
- 모든 불상 등 기물(3억원)은 무보시로 시주, 몸만 오시면 사찰법회 가능합니다

010-3545-5060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2개월 전 완전 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5511-7000
010-3592-89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 90평
- 건물 : 아래층 34평 2층 법당 24평
- 조용한 주택가, 주위 모든 것이 편리함(은행, 병원, 마트 등)
- 가액 : 7억원(절충 가능함)

010-2458-665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령1동211-164(62-2) (마산 제일 여고 뒤)
- 임야(자연녹지)1800평, 대지 60평, 전(땅)120평, 법당 20평, 요사채
- 가액 : 3억5천만원

010-8762-9870
010-9978-5453

사찰(급)안내

- **경남 양산, 종교용지, 대지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사용, 주차10대, 건평 68평중 1층 요사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 **집기일체 포함, 즉시법회가능**
- **건강상 시가 이하로 6억 5천만원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거제시
사찰 법당 3채 및 요사 1채
대지 : 136평 규모
가액 : 3억원
가격 절충 가능

010-4509-4061

사 찰 안 내

- 익산마을 끝자락 조용한 곳
-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 산신각 요사채 문화재급 약사여래불 모심, 법당집기 일체 포함
- 사유지 포함 약 1,000평의 법당, 3억 5천만원

010-5581-3081

생활안내 · 불자정보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산뜻해 졌습니다.
글자 크기가 커졌습니다.

POINT 01 광고 가독성과 정보전달을 위하여 크기를 **1.5**배 키웠습니다.

POINT 02 불자정보 기본 5cm ➡ **6**cm로 커졌습니다.

POINT 03 생활안내 기본 4cm ➡ **6**cm로 커졌습니다.

문의 | 010-4648-8200

임법당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 대지 : 326평, 본채40평, 별채40평, 공양간10평, 큰창고 2개, 방7, 욕실3, 화장실4, 산신각, 지장전
- 가액 : 4억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08-0377

멋진사찰(급급)안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지 : 약 173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5평**
- **요사채 : 1동 약 23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액 : 3억2천만원에서 5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사 찰 안 내

소승은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십 수년간
도심빌딩에서 포교당을 운영해온 학승입니다.
포교당 건물 재건축으로 새 인연처를 찾고
있으니 사찰양도 하실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단독주택의 임법당도 가능합니다.

010-2194-8008

조그마한 사찰 전 · 월세 안내

- 보증금 : 2천만 원
- 매 월 : 20만 원
- 몸만 오시면 됨 (일체 구비 됨)

010-3938-464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상대동 3층 중 2층
- 법당 34평,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당, 방1개, 화장실
- 보증금 5백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0-7476-9002

요양시설 · 사찰 · 한방병원 · 펜션 안내

- 위치 : 남원, 구례 경계 국도변
- 토지 : 1만 650평
- 건물 : 12동 외 수영장, 주차장
- 특징 : 20만평의 편백숲, 청정계곡, 30여개 원두막, 지리산둘레길
- 가액 : 12억 5천만원 ※부동산 절대사절

010-3655-5651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 218쪽 |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 292쪽 |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15호 | 18 | 전면광고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게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을 최상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범음 · 범패

범음범패, 각단예불의식,
천수바라, 작법, 법고,
송주북, 정근북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전화 010-7579-82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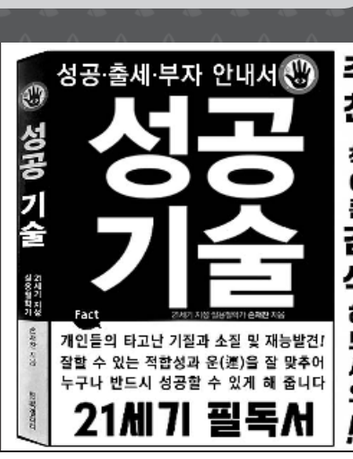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결혼상담소

짝을 만나 행복을

은평구 수색로 22길 20

010-5624-1365
02-306-7988

남은 생을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
강원도와 충북의 경계선에 위치한 사찰(절에서)
염불기도로 힐링하며 강강한 몸과 마음으로 남김없이
회향하고자 하는 분들을 존경심으로 모시겠습니다.

* 나이, 학력, 성별 상관없이 출가하실 분 모십니다.

연락처 010-8945-1424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36-2309 / 010-4804-2309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경상도가 고향인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비구니 스님을
상자로 모십니다.

주소 :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밀림사
주지 : 지웅 합장(76세)

010-6893-5040

불상제작(용품) 전문점

(오래된) 불기, 불서 고가매입
법당철거, 법당제작, 탱화, 동북, 개금
-사찰 사고 팝니다-

010-9177-784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공양주 모십니다

- 영산법화사 홈피 : http://ysbuphwasa.org/
- 영산법화사 소개 : 재단법인 영산법화회 대한민국 제일 법화도량입니다.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 2장, 기본증명서 1통
- 4대보험 가입 월급 195만원 ~ 250까지 (월 휴무 2일) 출퇴근도 가능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116 영산법화사
- 상담 문의 : 02)762-4922 / 담당 총무 도엽 010-8737-2766

재단법인 영산법화회 이사장 행 학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바라, 피리, 극락무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16나한님 모셔갈 분

연식이 오래된 것입니다.

❖ 대구지역 ❖
2천6백만원 (절충가능)

010-9193-1779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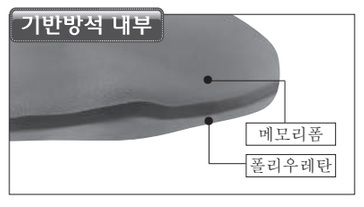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㉓ 경기도 파주 심학산 약천사 생강나무

겨울눈 같은 소원 하나 비밀로 안는다


생강나무 사이로 보이는 남북통일 약사여래대불과 지장보전.

잎눈과 꽃눈 다른 생강나무 동정 포인트는 '잎'
obtusiloba, 잎끝이 동그스름하고 얕게 갈라짐
잎 비비고 가지 꺾으면 생강냄새 나 '생강나무'

"부귀영화는 한바탕 춘몽(春夢)이요, 백년간 탐한 물건도 하루아침에 티끌이 됩니다. 팔만사천의 번뇌망상을 다스려 주는 약은 부처님 법뿐입니다."

2008년 10월 19일 약천사 남북통일 약사여래대불 점안법회에서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지관 스님의 법문이라는데, 이유는 그해 유독 심했던 연예인들의 자살 때문이란다. 그 자리에서 "육신이 아프면 약방에 가면 그만이지만, 법신이 병들면 부처님이 45년간 설하신 법문이 가장 위대한 약이 될 것"이라며 불법에 귀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는데, 높이 13m의 우람한 청동대불 앞에서 소원을 비는 사람을 보면서 악착스레 과거의 말을 연결시키는 건 무슨 심정일까?

소원을 잘 이루어준다는 약천사에서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 복일까, 사업 성공일까, 합격일까, 건강일까, 출세일까? 아무리 봐도 읍소할 내용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부처의 법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총명함을 달라고 말이다.

"[064]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이를 만난다 해도 / 마치 국자가 국 맛을 모르는 것처럼 / 아무리 오랫동안 친하고 가까이 해도 / 오히려 바른 법을 알지 못한다.

[065] 총명한 이가 지혜로운 이를 만나면 / 마치 혀가 음식 맛을 아는 것처럼 / 비록 잠깐 동안 가까이 하더라도 / 곧 도의 깊은 뜻 깨닫게 된다."

〈법구경〉 우암품(愚闇品)에 나오는 글이다. 부처의 말을 알아듣는 귀와 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법, 더불어 부처의 마지막 유훈인 "자기를 등불로 삼고 진리의 법을 등불로 삼으면 되느니라"를 명심하면 만사형통인 법, 하지만 그 길이 어디 쉬운가?

그래서 소박한 대웅전 앞에서 나무보다 큰 부처를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노랗게 단풍 든 한두 잎 덩그러니 매달고 이미 늦여름부터 새 잎과 새 꽃을 비밀로 안고 있는 생강나무에 눈길을 준다. 가지 끝에 네다섯 개의 눈비늘조각으로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 잎눈과 그 아래에서 자루 없이 가지에 딱 붙어 두세 개의 눈비늘조각으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꽃눈이 훌쩍 겨울을 넘어 봄기운을 주는 것 같지만, 찬바람에 휙 이는 낙엽을 보니 홀연 쓸쓸해 계단을 내려간다.

침엽수 말고 낙엽수들을 겨울에 보면 무슨 나무인지 분간하기 어렵지만, 가지에 여러 모양으로 염주알처럼 붙어 있는 겨울눈을 유심히 보면 어느 정도 동정을 해낼 수 있다. 겨울눈은 영어로 winter bud 즉 겨울을 나는 싹인데, 잘라 보면 잎과 꽃이 겹겹이 포개져 혹한을 무사히 견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잎눈과 꽃눈이 명확히 다른 생강나무를 동정하는 포인트는 잎이다. 생강나무 종소명이 obtusiloba인데, '잎끝이 동그스름하고 얕게 갈라진다'는 뜻이다. 잎을 보면 가지에 서로 어긋나는 잎의 윗부분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모양이 산(山)자처럼 보인다. 그런데 하트 모양의 잎도 함께 달려 있다. 아래 잎이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위 잎이 갈라져 빛을 내려 보내는 진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갈라진 잎이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다. 언젠가 질서를 잡을 거라는 우리의 생각은 버리는 게 좋고, 온전히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름다운 순간일 것이다.

생강나무는 나뭇잎을 비비거나 가지를 꺾으면 외떡잎식물 여러해살이 풀인 생강 냄새가 난다고 해서 생강나무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나무이고 하나는 풀이다. 그래도 둘 다 정유(精油) 성분인 펠란드렌과 유데스몰이 들어 있어 비슷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늦가을 겨울눈을 자르면 잎과 꽃을 볼 수 있지만, 마음으로만 볼 수 있도록 애쓰는 게 나을 것 같고, 생강 냄새가 맡고 싶으면 시장에 가서 생강을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살짝 꺾어도 새 가지가 나오겠지만, 이미 아는 거 탐구심은 버리고, 소원 인연대와 포대화상 앞에서 약사여래대불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연꽃 위에 앉은 부처 왼손에는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지장보살의 약함이 들려 있고, 오른손에는 보주(여의주)가 엄지와 중지 사이에서 중생의 소원을 향해 구를 것 같다. 소원을 빌다 힘들면 걸음을 옮겨 약숫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또 빌고 빌면 그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려시대 절터로 전해지는 자리에 1932년 법성사로 중창이 된 뒤 1995년 약천사로 개명을 했다는 넉넉한 사찰, 불자가 아니어도 심학산을 찾는 이들은 이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다. 학이 찾아들었다는 산세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일 것 같은 경내를 돌아 파주 땅을 내려다본다.

"싯다르타 앞에는 한 목표, 오직 하나뿐이 목표가 있었으니, 그것은 모든 것을 비우는 일이었다. 갈증으로부터 벗어나고, 소원으로부터 벗어나고, 꿈으로부터 벗어나고, 기쁨과 번뇌로부터 벗어나 자기를 비우는 일이었다."

헤세의 〈싯다르타〉처럼 될 수 있을까? 그래도 겨울 나는 생강나무처럼 때가 되면 스스로 피어날 비밀 소원 하나 손에 쥐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무는 하늘로 끝나가는 가을바람이 올라가고 있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㉒ 안도현의 '공양'

세상만물 공물 아닌 것이 없구나

〈供物〉

공양/ 안도현

싸리꽃을 애무하는 산(山)벌의 날갯짓소리
일곱 근
몰래 숨어 퍼뜨리는 칡꽃 향기 육십 평
꽃잎 열기 이틀 전 백도라지 줄기의 슬픈 미동(微動) 두 치 반
외딴집 양철지붕을 두드리는 소낙비의 오랏줄 칠만구천 발
한 차례 숨죽였다가 다시 우는 매미울음 서른 되

–안도현 시집, 〈간절하게 참 철없이〉 창비, 2008–

아, 그렇구나. 세상만물이 공물(供物) 아닌 것이 없구나. '산(山)벌의 날갯짓소리', '칡꽃 향기', '백도라지 줄기의 슬픈 미동(微動)', '소낙비의 오랏줄', '매미울음'. 우주에게, 신령에게, 부처님에게, 대자연에게, 어르신에게, 공양 못 올릴 것이 없구나. '근', '평', '치', '발', '되'. 계량화하니 더 실감나구나. 구체적이어서 더 오붓하구나.

부처님 시대 최고의 의사, 부처님의 주치의 지바카는 말했다지. "세상에 약(藥)으로 쓸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세상 모든 것이 약이고 약재"라고.

그러고 보니, 그동안 우리는 '공기 만이천 근'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구나. '물 스물한 평', '바람 스물네 치 반', '햇살 오천 발', '구름 서른닷 되'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살았구나. 자연이, 세상만물이 우리에게 올리는 공물을, 공양을 너무 함부로 소비하고 살았구나.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필자가 중[僧]이 되려고 처음 산문(山門)에 들던 날, 밥 먹기 전에 밥상머리에서 두 손을 모두고 사형(師兄)이 읊조리던 말이 다시금, 새삼, 깊게, 떠오르는구나.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주림을 달래고 몸과 마음을 바로 하여/ 사회대중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안도현 시인은 왜 이 대자연의 공물들을 근, 평, 치, 발, 되로 계량화해 놓았을까. 가시화해 놓았을까.

어리석은 우리들이, 무명(無明)의 우리들이 '산(山)벌의 날갯짓소리'가 공물이 아니라고 생각할까 봐, '칡꽃 향기'는 공양물이 아니라고 우길까 봐,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우매함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우문우답(愚問愚答) 하나 더. 안도현 시인이 세상에 바치는 이 공물들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물질일까, 마음일까. 아니면, 이 둘 다일까. 문득, 생각나는 어느 선사의 '할' 한 방. "물질 있는 곳에 마음 있고, 마음 있는 곳에 물질 있다."

맞다. 물질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1+1'이지만 '2'가 아니라 '1'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 한 가지. 단 한 푼이라도 물질에 기울면 그 마음은 '49.999'가 아니라 '0'이 되어버린다. 마음 역시 마찬가지. 한 푼이라도 물질을 가벼이 여기면 그 마음은 '100'이 아니라 '0'(공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안도현 시인은 부처님의 중도(中道)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량화(가시화)해 놓은 것이다.

이 시 속에 감춰진 비밀 하나 더. 윤회의 인드라망이다. 식물이 다시 '태어나기(윤회)' 위해서는 반드시 벌이 필요하고, 벌을 끌어들일(유혹할) 꽃향기가 필요하고, 꽃향기를 매달고 있을 (백도라지) 꽃줄기가 필요하고, 비(물)가 필요하다. 안도현 시인은 그것(윤회의 과정과 순서)까지 치밀하게 계산해서 이 시를 썼다. 안도현 시인의 천재적 계산(감각)과 불심(佛心)과 반야(혜안)가 저절로 느껴진다. 아 참, 안도현 시인은 그것을 바라보고 기록할 업경대(業鏡臺)—매미 울음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이런 공양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안빈(安貧)속에서도 낙도(樂道)할까. 아니, 천하가 공물이고, 만물이 공양물이니 얼마나 풍성하고 편안할까. 이게 바로 부처님의 이고득락법(離苦得樂法) 아닐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자리이타 이타자리(自利利他 利他自利)' 아닐까. 발고여락(拔苦與樂) 아닐까.

'공양'과 '공물'의 진폭과 지평을 이렇게 밝고 자상하고, 깊고 융숭하게 넓혀 놓은 안도현 시인에게 참으로 감사드린다. 이젠 우리도 모두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융숭하고 풍성한 '밥상(공양)'을 올 릴 수 있게 됐다. 중도와 윤회의 삶과 과정도 알게 되었다.

'팔만사천 근의 법문' 보다, 단 한 편의 시가 우리 육근(六根)을 더 빨리 정화시켜주고 밝게 해주는 것을 알았다.

사족 한 마디 더. 필자와 안도현 시인은 80년대 같은 대학 캠퍼스에서 동고동락했다. 같이 막걸리도 많이 마시고 노래도 목청껏 부르고 울분도 같이 토했다. 안도현 시인의 번뜩이는 천재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이렇게 '공양'을 '공양' 올려준 안도현 시인에게 필자도 '공양'을 올려야겠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심장·간질환 발병 한달…
생사기로에 선 미얀마 청년

미얀마에서 온 묘민우씨 올해 8월부터 프레스공장에서 근무
심장 수술에 신장기능 50%남아 약물 치료…병원비만 15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스님의 그림자 ❼ 마지막 회 – 스님께 묻습니다

▶ 한줄 요약
상담은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

부처님 가르침 나누는 것이 생의 비전



고통받는 마음 어루만짐이
부처님 가르침 실천, 수행
상담교육 승려로 과정 생소
원력과 구법의지 갖고 극복

나는 종종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는다. 여기서부터는 묻고 대답하듯이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주변에서는 스님을 어떻게 보는지요? 저는 주변으로부터 두 종류의 상반된 피드백을 받곤 해요. 어떤 스님들은 저를 그다지 좋지 않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선방에서 참선을 한다거나, 전통적인 불교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 바라보고 측은하게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또 다른 시선은, 제가 승가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을 그분들도 경험하기 때문에 "상담 공부를 참 잘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정말 대단하다. 스님이 승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좋겠다"라며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담심리를 공부한 사람들은 대체로 "스님은 좋겠어요"라고 하죠. 상담심리와 불교를 둘 다 공부했으니까 참 좋겠다는 거에요. 승려로서 새로운 모델을 구현한 삶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심리적인 고통에 관한 불교의 가르침은 고대로부터 경전을 통해 전승되고 있어요. 이것은 고대의 언어죠. 한문이 많고, 한글이라도 현대어와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 스님들도 심리적인 고통에 대해 '집착'이나 '삼독' 외의 언어로는 설명을 잘 하지 못해요. 제 경험에 의하면, 심리학이나 상담학, 뇌과학 등은 현대인의 고통에 대해 정교하고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요. 저는 스님들이 이 학문을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출가에 대해 어머니는 뭐라고 하나요?

어머니는 제가 출가한다고 했을 때 보내기 싫어서 "스님들이 아이들을 때리면서 키워" 등의 거짓말을 했고, 막상 출가한다고 했을 땐 "사람이 미칠 것 같았다"고 회상해요. "보내 놓고 전화도 안 오고 기별도 없어서 애달팠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스님이 자기 맘대로 해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에게 잘해줘서 좋다고 말씀하세요.

환속하지 않고 승려로 사는 이유는요?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면 행복할 거예요. 저는 머리 깎은 승려로서 상담하는 것에 감사해요.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상담을 하면할수록 세상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이에요. 제 삶의 의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에요.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생의 제 비전이에요.

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불교에서는 법성(法性)이나 불성(佛性), 본성(本性), 자성(自性), 진성(眞性)이란 말로 표현돼요. 영성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고, 우주에 가득차 있다고 봐요. 쉬운 언어로 표현하면 에너지, 기, 빛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우주에 속해 살지만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영성의 성품은 그 자체로 빛나는 지혜의 불꽃이나 자비심 같아요.

'근원적인 것과의 접촉' '원래 있는 에너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접촉하는 것' 그걸 잘 모르고 있다가 깨어나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꽃으로 보이더라고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존재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승려이자 상담전문가로서의 방향성은?

저는 승려이자 전문상담가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통적인 승가에서 생활하면서 전문상담가의 일을 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통적인 승가공동체는 새벽 예불부터 기본적인 소임에 이르기까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환경에서는 단 회기에 가까운 신행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전문상담과는 달라요. 전문적인 상담에서는 상담구조화-상담 시간과 회기, 비밀보장, 안전한 장소, 상담 비용, 목표 설정 등-가 중요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상담을 지속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동체의 삶의 방식과는 조금 달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적인 새로운 형태의 승가공동체를 꿈꾸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상담 및 심리치료, 명상, 간호나 간병, 복지 등에 관심이 있는 수행자들이 함께 공동체에서 성장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승가공동체를 꿈꾸는지요?

몇 년 전에 가톨릭에서 '알코올 사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톨릭이 현대인의 중독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죠. 최근에는 살레시오 교육영성센터를 방문하고 수녀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살레시오수녀회에서 새로 지은 영성센터가 규모에서 크기도 했지만, 대부분 각종 교육 프로그램-부모교육, 일반교육, 인성지도자 과정 등과 심리상담)성인, 부부, 청소년, 아동놀이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아주 놀랐어요. 내가 꿈에 그리던 모델이었는데, 그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부럽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저도 수녀님들처럼,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가 있기를 발원해요. 그래서 비영리단체인 다르마심리상담센터를 전문가들과 함께 2021년 5월에 설립했어요. 저는 이 단체가 성장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심리상담 전문센터가 되기를 기원해요. 이 일은 불사(佛事)라고 여겨요. 많은 사람의 참여와 도움이 필요해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원력으로 이번 생에 이뤄지리라고 믿어요.

어떤 상담자가 되고 싶은지요?

개인적으로 정원사 같은 수행자이고 싶어요. 상담자로서는 대지의 어머니와 같은, 수용하고 허용해 주며 너그럽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지금도 수련하고 있어요. 출가하기 전에 거의 3년 동안 매일 108배를 하면서 10가지 정도 서원을 세운 적이 있어요. 다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중 하나가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안아주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어 보듬어야겠더라고요.

상담가의 수련 과정은 어떠한가요?

저는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이하 한상심) 소속의 1급 수퍼바이저예요. 수련과정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규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심리사법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나면 한쪽에선 상담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이론을 공부하고, 다른 한편으로 상담 경력을 쌓으면서 수련 내용을 충족해 나가는 거죠.

이론은,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을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이 시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공부하기 보다 동료들 몇이 함께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필기 자격시험을 봤을 때, 문제가 너무 어려워 시험을 치다 말고 창문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다음 해에도 무척 어려웠는데, 당시 합격률이 15%였다고 들었어요. 두 번째 필기시험을 보기 전에, 또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불보살님과 산신님께 기도도 하고, 동료와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했어요.

상담계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수퍼비전을 받는 사람, 즉 상담 수련을 받는 사람을 수퍼바이지(supervisee), 수련생의 상담 활동을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수퍼바이저(supervisor), 개인이나 사례회의 또는 공개 사례발표 등의 형식으로 수련 받는 행위를 수퍼비전(supervision)이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용어조차 생소했고 수련 수첩에 적는 것도 서툴렀어요.

저는 수련 과정과 그 내용이 너무 생소하게 들리고 복잡해 보여서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묻고 또 물으면서,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불교계 상담 관련 학회에서 진행되는 공개사례발표 형식과 과정은 제가 훈련받은 학회의 그것과 매우 달랐어요.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사례발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수련감독자, 발표자, 참여자가 마치 내면을 탐구하는 여행자 같이 보였어요.

수퍼비전을 받는 사람은 상담 과정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먼저 발표해요. 각 사례 당 1시간 30분 정도 수퍼바이저와 수련생들이 활발하게 질의하고 응답하며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가지죠. 상담자(발표자)가 내담자를 더 잘 돕도록, 상담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관하는 사람도 공부할 수 있도록 서로 조력합니다.

자신의 상담 사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든, 공개 사례발표, 소규모로 하든 상관없이 이 과정은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내담자에게 그리고 상담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 가는 과정이 마치 법을 구하는(구법) 모습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 과정을 수행으로 봅니다. 〈끝〉

저자 : 효록 스님(운주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15 호 현대불교
2022년 12월 7일(음 11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내 몸에서도 내가 벗어나야 나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하이오 주립 대학 선생님들, 또 지금 박사 학위 과정에 있는 분들,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립대학에 계시는 교수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조용히 앉아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질문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종교라 하면 타의에서 구하고 무슨 조주 선사의 화두니 무자 화두니 이러한 화두를 잡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했는데, 그것은 내 껍데기에다가 또 껍데기를 씌워 놓고 화두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똑같죠. 진리를 한 번 더 내다보세요. 내가 남의 말을 듣기 이전에 한번 내다보시라고요.

모든 상점이나 사람들, 자기 소임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들 모이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상점에 가도 끼리끼리 모여 있고 금방에 가도 금방이기 때문에 금이 모여 있고 넝마전이기 때문에 넝마가 모여 있고 무쇠전이기 때문에 무쇠가 모여 있듯이, 갖은 각색으로 찰나찰나 바뀌면서 끼리끼리 모여 있는 인연법 이 자체가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찰나생활이라는 이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라는 걸 아셔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자기로부터 세상이 생겼고 자기로부터 상대가 생겼고 자기로부터 가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자기 없으면 모든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로부터 자기를 먼저 믿고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모든 오신통 재료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심안으로 보는 거, 과거를 아는 거, 남의 마음을 아는 거,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줄 아는 거, 또 듣는 사이 없이 온 누리의 모두를 다 들을 수 있는 거, 이것을 바로 오신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오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성신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보려고도 안 하고 항상 남이 밥을 먹여 주지 않을까 해서 위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서 그저 화두나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은 예전의 부처님 당시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발전이 되고 천체물리학으로서 또 과학으로서 공학으로서 천문학으로서 이렇게 가는 시점에서, 또 진리를 본다 하더라도 찰나의 생활이며 바로 우리가 평등 진리며



그림 · 최주현

그런데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하고 항상 남에게 끄달려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 그것이 나올 리가 있나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학교에 나가서 교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학생이나 또는 상업을 하는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해 놓고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오늘 가져 봅시다. 어때요? 질문하실 거 없어요?

질문자1(남) 지금 조주 무자를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스님께 말씀드렸듯이 안양에 계실 때 제가 한번 찾아가서 조주 무자에 대해서 여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제가 뉴욕에 와 가지고 『무』라든가 그런 책도 읽어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 본 결과 모든 것은 한마음의 결과다, 한마음에 놓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스님 우리가 지금 여기 걸어왔죠? 차 타고 와서 또 여기 걸어 들어왔죠?

질문자1(남) 예.

큰스님 발자취를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들고 오셨습니까?

질문자1(남) 생각 없이 했습니다.

큰스님 생각 없이 했죠? 또 신발을 벗어 놓고 들어오실 때에 신발을 들고 오셨습니까, 신발을 '저거 내가 여기다 벗어 놓으면 안 되는데….' 하고 들어오셨습니까? 걷기는 분명히 걷고 있는데 발자취는 끌어안고 다니는 게 없죠. 그러면 지금 남편이 됐을 때, 댁이 남편이죠? 그런데 자식이 와서 "아빠!" 그럴 때는 무엇이 됩니까?

질문자1(남) 아빠가 되겠죠.

큰스님 예. 그렇게 자꾸 찰나찰나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거기에 조주 화두가 붙어야 하고 무자 화두가 붙어야 하고 꼬고 앉아 있어야 하고 이럽니까? 내가 여유가 있어서 앉고 싶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서고 먼 데 내다보려면 내다보고 또 생각나면 생각하고,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바로 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벌어진 거니까 댁이 화두며 세상 돌아가는 게 바로 참선 아닌가요?

찰나찰나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또는 평등한 진리에서 우리가 그걸 탐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내 몸이 있으니까 상대가 있다는 걸 모르고 또 거기다가 남한테 화두를 받아 가지고 그거 끊어질까 봐 24시간 애를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댁에서 가고 오는 것이 전부 고정된 게 있습니까? 보는 게 고정된 게 있습니까? 듣는 게 고정된 게 있습니까? 만남이 고정된 게 있습니까?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요, 먹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것도. 이 생각을 금방 했다 저 생각 또 하게 되고 저 생각 금방 했다 이 생각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찰나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여여하다고.

그래서 저기 '본래 내 자성이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네 구절을 써 놨죠. 불(佛)이라는 것은 핵과 같은 겁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데 중심자, 중심, 심봉과 같고요.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그 심봉에 의지하고 힘에 의지해서 기계가 돌아가는 그 자체를 볼 때 그 심봉이 꿰지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차를 타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에게도 그런 핵과 같은 심봉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거는 움죽거림이 없이도 아주 광대무변하게 힘을 낼 수 있는 자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거길 따라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그게 돌아가는 거죠. 그걸 에너지라고 하죠. 에너지는 바로 핵을 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움죽거리는 바람에 바로 물질인 나의 이 기계는 돌아갑니다. 그래 삼위일체가 구성돼 가지고 계합이 돼서 같이 길고 짧음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쪼그만 거 하나를 우리가 볼 때도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리가 터지는 거죠.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면, 정맥 동맥이 동시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 속에서 그 생명들이 수억 마리가 세포나 오장육부의 모든 소임을 맡아서 운행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움죽거릴 수가 없습니다. 속의 의식들이, 즉 마음들이 전부 한마음이 돼서 움죽거려 주지 않는다면 지금 죽은 송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들과 내 악업 선업이 한데 뭉친 이 자체, 바로 그 속에서 악도 나오고 선도 나오고 가난도 나오고 안 되는 것도 나오고 아이 글쎄,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될 만하면 안 되고,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또 될 때는 또 되고. 이런 것이 다 이것을 한데 합쳐서 전자에 내가 한 거만치 인연을 가지고 나온 바로 인과입니다.

그러니 그 인과를 내 마음과 더불어 같이 한마음을 만들려면 다 거기 놓아야 합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한테서, 거기서 형성시킨 거고 나온 거니까 다 거기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과 더불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도요, 어머니 아버지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몸 하나가 나와요. 그럴 때 예전 말로는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 이 세상에 탄생하니 20, 30이 당도해도 철이 없어서 부모의 생각을 못 했다는 얘기가 회심곡에 있듯이 말입니다.

그랬듯이 여러분이 모두 피를 받고 또는 살

☞ 22면으로 계속



우주 천지의 모든 생명의 근본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

☞ 21면에서 계속

을 받고 뼈를 받은 게 엄마 아빠에게서 몸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지금 생명들이 있는 거는, 인으로 인해서 과가 된 것은 댁네들이 예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살면서 행해 온 행적이란 말입니다. 행적의 인연이야. 인연들이 모두 같이 이렇게 지금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가 되맡겨 놓고 이전에, 과거에 거기서 내가 저지른 거니까 나로 인해서 인연이 된 그쪽에서 한마음으로 모든 것을 녹일 수밖에 없고, 거기서 병도 낫게 할 수밖에 없고 잘되게 하는 것도 거기요, 못되게 하는 것도 거기니 못되게 하는 것을 잘되게 또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공부하셔서 다 아시겠죠? 나도 아는데 여러분이 모르시겠어요? 지구가 여러분을 모시고 어디로 돌고 있습디까? 지구를 벗어나야 그걸 알죠. 그렇듯이 내 몸에서도 내가 벗어나야 나를 맘대로 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은하계에 별성들이 있듯이 이 몸속에 지금 하나하나 생명들이 돌고 있어요, 혹성을 위해서. 그래야 혹성이 움죽거리죠. 혹성이에요, 이게. 별성들이 있는 집합소죠,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 한마음이 돼서 모든 걸, 내 주인공밖에는 믿을 곳이 없고 내 주인공밖에는 나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그 믿음과 더불어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큰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 놓고 '거기서밖에 해결 못 해!' 하는 그 믿음을 진실하게 가져야 일체 만법을 다 들이고 낼 때에 거리낌 없이 들이고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화두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탓이고. 안 되고 되는 것이 모두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이지, 자기가 있는데. 만약에 언덕이 없거나 소가 없어도 소가 언덕에 비비지 않을 겁니다. 언덕이 있기 때문에 소가 가서 비비거든.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 상대가 있는 거고 부딪치는 거고 또 잘못되는 일도 있고 잘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자성, 바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은 왜 주인공이라고 그랬느냐. 이 우주 천지의 모든 생명의 근본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는 그 사실. 그러니 내 주인공에 이 세상 우주 천지를 다 집어넣어도 결국은 그릇이 좁지 않다는 점. 다 내놔도 줄지 않는다는 점. 영, 영, 영, 영 수만 개를 써 놔도 영은 영이지, 그게 없단 말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벽도 없고 봇장도 없고 허공이야, 다. 이 허공도 공했어, 전체가. 그런데 뭐가 어지러울 게 있습니까. 그 마음을 모르시면 여러분이 사시는 집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서. 어디에 뭐가 놓여 있고 어디에는 뭐가 놓여 있고 그런 사실을 여기 앉아서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다면 그와 같이 어떠한 혹성이든 어떠한 별성이든 어디든, 또 어떠한 사람의 마음이든 꽃의 마음이든 이걸 읽을 수가 있고 이것이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고등 동물이고 또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기는커녕 만날 그냥 뜬구름처럼 헤어졌다가 모였다가 하면서 이 물바퀴 소용돌이 속에서 거기에 그냥 부딪치고 부딪치고 부딪치고 그러니까 항상 고통스럽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의사도 있고 관세음도 있고 지장도 있고 칠성도 있고 산신도 있고 지신도 있고 용신도 있고 거기 다, 약사도 있고 그 주인공 안에 일체제불이 다 계신 겁니다. 또 일체 중생이 다 거기 있고, 일체 의사가 다 거기 있고 간호원도 있고 전부 있어요. 그런데 왜 딴 데 가서 찾습니까? 보이지 않는 데 약이 수두룩하고 보이지 않는 데 의사가 있고 아니, 별게 다 있는데, 가난하면 가난을 극복하고 일으켜 세워 줄 수 있는 관세음이 있고, 바로 그 주인공 안에 전부 다 있는데 왜 따로따로 찾습니까?

그림을 보고 찾고 그림을 보고 믿고 말을 듣고 믿고 또는 이름을 보고 찾고, 칠성에 가서 빌어야 명이 길고 약사한테 빌어야 병이 낫고 또 좋은 데로 가려면 지장을 찾아야 하고, 명이 길려면 칠성에 가서 빌어야 하고 또는 무슨 사건이 나면 산신에 가서 빌어야 하고 어린애를 못 낳아도 산신에 가서 빌어야 하고….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아니, 만물의 영장이기 이전에 귀신들이지, 그게 사람이 귀신 노릇을 하니까 귀신이 있는 거지 사람이 귀신 노릇을 안 하고 사람 노릇을 하는데 무슨 귀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걸어오실 때 넘어지면 여러분이 일어나지 누가 일으켜 줍디까? 그리고 대신 먹어 줍디까, 대신 아파 줍디까, 대신 죽어 줍디까, 대신 자 줍디까, 대신 똥 눠 줍디까? 아니, 대신 누가 해 줍디까? 이 세상에 자기가 혼자 왔다가 가을이 되면 혼자 낙엽 떨어지듯이 갑니다. 그랬다 다시금 이 세상에 나올 땐 봄이 와야 다시 잎이 피듯이 잠시 중지됐다가 또 나오거든.

그런데 잠시 중지가 아니라, 의식에 끄달리고 물질에 끄달리던 의식이 그냥 남아서 들어간 사람은 어디로 자기가 갈 바를 몰라. 그래서 저런 나무한테도 지접을 하고 또는 어디 집 짓는 데 가서 지접을 하고 대감도 되고 거기 그냥 어떤 약한 사람한테, 그렇게 그냥 기복으로 믿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야. 그 집으로 들어가고 저 집으로 들어가서 괴롭히는 거지. 이래도 그렇게 기복으로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중심을 두지 않고 자기 주인공을 모르는 사람 앞에는 집이 빈집과 같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자. 오고 가는 사람이 다 들어와서 자면서 거기서 그저 집이 헐어지건 말건 들어와서 그냥 북덕거리고 있다가 또 나고, 또 북덕거리고 있다 나고 그렇기 때문에 집이 그냥 얼른 망그러지지. 그런 셈이나 같아, 이 몸뚱이가.

> **언덕이 있기 때문에 소가 가서 비비듯이**
> **내가 있기에 상대가 있는 거고 부딪치는 것이며**
> **잘되는 일도 있고 잘못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자성,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이 몸뚱이 속의 그 생명들이, 즉 말하자면 의식 자체가 딴 데서 들어오는 유전성이나 세균이나 이런 것도 여기 주인이 없어 가지고 뭐, 다스리지 않으니까, 즉 부모가 없어 가지고 고아들이 한데 모여서 저희들끼리 북덕거리는 거와 똑같아요. 지배인이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는 바깥에 있는 거 다 끌어들여서 서로 춤을 추니 이 몸뚱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몸뚱이가 집과 같은데.

그러니 여러분이 '저이는 뭐, 말만 했다 하면 항상 저렇게 말이 많은데 저 말이 어디서 저렇게 나오나?' 이러겠지만 이게 진리라, 전부. 내가 없는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첨단을 넘어가는 공부들을 하신 분들인데 아니,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찰나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게 한 바가 없이 그냥 자꾸 자동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아, 이걸 왜 몰라요? 그러니 거기 업이나 운명이나 팔자나 이런 거 붙을 사이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도리를 알아야죠. 한생각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얕보여서 주먹으로 한 대 맞는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정말 아주 너그럽고 저 사람은 참 사람다운 사람이다 할 때는 거기 손 못 댑니다. 그러나 덤벙덤벙하고 그저 사기나 치고 이러는 사람들은 주먹 아니라 발길에 차이고 그냥 모가지도 눌리고 그런다고. 그런 거와 같이 그렇게 주인 없이, 주모가 없이 내가 흔들린다면 보이지 않게, 보이게 사방에서 끄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빠져도 코가 깨지지. 그러니 될 듯해서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냐? 그게 과다 이거야. 인으로 인해서, 내가 나오기 이전의 인으로 인해서 지금 현상에서 과로 뭉쳐 있다.

이걸 다 녹이려면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다 놔야 그것이, 전자의 그 인으로 인해서 과가 된 것이 다 녹아서 마음이 전부 한마음으로 뭉쳐져서 천백억 화신으로 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뚱이 속에 있는 마음들이 보살로 화한다 이거지. 그럼으로써 내 이 혹성 하나에 '나'가, 보살들이 수호하고 다니죠. 보호하고 다니니까 누구 하나 나한테, 강도가 온다 하더라도 강도가 칼을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그 수호신이 수호하고 다니죠. 그래서 보신 화신 수호신, 그 모두가 나한테 있어서 천백억화신이 보호하고 다니다가 내가 한생각을 냈다 하면 그냥 한 찰나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즉 말하자면 법설을 하시곤 그냥 한 찰나에 나시는 거라. 그러니 어느 국토에, 즉 말하자면 어느 혹성에도 나 아닌 데가 없고 나 아님이 없고 내 집 아님이 없어요.

지금 과학자들은 태양이 타 버리면 지구도 집어삼킬 수 있고, 또 팽창되면 집어삼킬 수도 있고, 타 버리면 다 타 버리고 뭐,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럽디다만 우주의 모든 물질, 형성된 모든 별성,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나 하나 별 하나 이러듯이, 내 몸 하나 그 혹성 하나 이러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지금 이 지구에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너무 팽창되면 조절할 수 있고 또는 타 버리게 되면 타 버리지 않게 조절할 수 있고 항상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이 영원히, 이것이 모든 게 돌아가면서 나 아님이 없이 될 수 있어야 둘 아닌 도리를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글쎄, 조주 화두를 나한테 묻다니, 자기가 공했다는데 조주 화두가 어디 있어, 음? 자기가 공해서 없는데 조주 화두가 어디 있느냐고? 만약에 이게 조주 화두라면 고정되게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나? 때에 따라서는 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덮기도 하는 게 이게 바로 찰나 생활이야. 여러분이 학술로다가 다 읽고 문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문을 찾아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물질만이 문을 찾고 물질만이 문을 찾아 들어오려고 하지 체가 없는 마음이 무슨 문을 찾고 무슨 문을 찾아 들어오려고 하겠느냐 이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금방이 주인공에 맡겨 놓으면 금방 여기에서 거기에 알맞은, 몸이 아파서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금방 자기 속에서 약사가 그리로 그냥 통신하면서, 바로 광력이 빛보다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그 몸으로다 찰나에 들어가서 찰나에 해결하고 찰나에 나. 이러한 도리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물 한 그릇을 이렇게 먹어야 할 때 우주 천체가 먹고도 이 물 한 그릇이 되남아요. 그래서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또 남아.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 먹는 밥 한 그릇을 놓고도 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물질로서만 촛불을 켜 놓고 향을 피워 놓고 위패를 써 놓고 하기보다도 내 마음의 향을 피우고 내 마음의 촛불을 켜고, 그것이 인등이거든. 그걸 켜 놓고서 가만히 그 은공을 갚는 마음, 그 은혜를 갚는 마음, 모든 걸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관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위로는 바로 묵은 빚을 갚는 일입니다. 또 아래로 햇빛을 주려면 그런 능력을 길러야만이 아래로 햇빛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 역시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모두가 다 그렇죠.

몸으로, 위로는 모시고 아래로는 이 육신 안에 들어 있는 생명들을 제도하면서 이렇게 가지만 우리가 바깥으로는 부모를 모시고 있죠. 그런데 육의 부모나 법의 부모나, 부처님 조상이나 육의 조상이나 둘이 아닌 겁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부처님이 중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둘로 보지 마세요, 그것도. 왜 구차하게 삽니까? 왜 그렇게 얼기설기해 놓고,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고달프게 삽니까? '주인공' 하면 그 안에 부처도 중생도 또는 육의 부모의 조상도 다 같이 응하고 계신데.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12월 16일 국외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끼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가톨릭 법계도 왜곡과 예술윤리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종교상징 활용한 예술
종교화합 바탕서 가능
일방적 폄훼나 훼손은
사회갈등 요인 중 하나

법계도, 천주교 성화 사용
불교 대한 몰인식 드러나
불교 대한 예의조차 없어
한국천주교 공식사과해야

미국축구협회가 이란과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11월 30일)을 앞두고 이슬람공화국 문장을 삭제한 이란 국기(國旗)를 산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1979년 이슬람혁명을 일으킨 세력이 국기에 추가한 이 문장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뜻이다. 이란 반정부 시위대가 시위 과정에서 이 문양이 삭제된 국기를 쓰고 있으며, 미국축구협회가 이를 소셜미디어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축구협회를 국제축구연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반발했다. 한 나라의 국기 문양을 임의대로 변형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지다.

종교에서도 이러한 점은 적용된다. 종교에서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성인이나 교리를 신도에게 교육시키기 위해 그림으로 부각시킨다. 종교행위를 묘사한 종교적 미술품을 우리는 '성화(聖畵)'라고 부른다. 문제는 자신의 종교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종교적 상징을 훼손하는 경우다. 이웃종교의 상징과 문장을 소도구나 하위 소재로 묘사한다면 이웃종교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로 종교 간에 심각한 갈등과 반목 요인이 된다.

그래서 종교예술에서도 종교윤리가 있다. 모든 공동체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성원이 최소한 지켜야 할 양심에 입각한 도덕의식과 윤리가 있다.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난장판이 되고, 미개한 집단으로 평가받게 된다.

다종교 사회에서 국민 화합을 위한 '종교 간 공존, 존중, 화합'은 중요한 종교윤리다. 유럽에서는 종교전쟁까지 발생한 역사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종교들이 상호 존중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광주시 가톨릭 순례길, 서울시 순례길에 늘어진 가톨릭 성지화 시설물과 이정표, 신안군 천사섬 성역화 등 종교적 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종교 간의 반목과 갈등이 되고 있다.

서소문 역사박물관(서울시 박물관으로 천주교단에 위탁 운영하는 박물관) 벽에 '일어나 비추어라'는 제목의 초대형 나전칠화가 걸려있다. 이 작품의 중앙에 한국불교 의식에서 신행의 대상이 되는 의상대사의 법계도(法界圖)의 문양이있다. 위로는 아기 예수처럼 이미지화한 그림이 있다. 얼굴은 십자가 문양으로 묘사하고, 팔은 천사의 두 날개를 십자가 형상으로 벌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언하는 모습이다. 아래는 법계도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또 맨 아래에 태극기 문양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아기 부처 탄생불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아래서 안정되게 떠받치는 법계도의 모양은 네모진 210개 한자를 대신해 둥근 묵주알 모양으로 변형, 천주교의 묵주로 형상화하였다. 이 나전칠화는 3점이 제작되어, 여주 옹청박물관, 우르바노대학(로마 교황청 건립) 로비에 전시되어 있다.

만약 불화(佛畵) 삼존불도를 제작할 때 십자가를 부처님 발바닥 아래에 깐다면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석가모니 본존불을 모시고, 양쪽 협시불을 모시는데, 이웃종교의 성자도 보살이라며 예수상이나 베드로, 바울의 존상을 추상화해 그려 넣는다면 어떻게 보일까?

물론 예술작품은 모방에서 시작하고, 아름다움의 창신(創新)이 생명이다. 하지만 표절이나 왜곡은 예술적 가치가 없다. 종교적인 그림, 즉 성화는 어느 누가 보아도 순수해야 하며 성스러워야 한다. 그러나 보는 사람이 짜증이 나고 분노하는 그림이라면 성화로서 실패한 작품이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아라한과 입전수수

입전수수(入廛垂手),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사슴동산에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 속박에서 벗어난 비구들과 함께 전법선언을 하셨다. 영실의 아라한들도 그 가르침을 따랐다. 이은상은 1937년 한라산을 등정하는 그 초입에 아라동 산천단 소림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한라산신제단법당'이라는 간판이 붙어있고 그 건물 안에는 치성광여래와 독수선정나반존자의 위패를 모시고 있었다. 이곳의 유래는 조선 성종 때 '목사이약동선생한라산신단기적비'에 새겨놓았다고 한다. 예로부터 국태민안을 비는 중요한 나랏일의 하나로 한라산신제는 백록담에서 봉행 되었는데, 그때마다 적설과 한풍으로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아 이곳에 제단을 마련하여 받들게 하고 비를 세웠다. 지금 이 비는 마멸되고 내력만이 전해진다.

은하수와 가까운 흰사슴동산 백록담은 바닷가 사람들에게 너무 먼 성스러움이다. 그 성스러움이 민간으로 내려오는 과정은 조선 중기 이후 불교가 모든 권위를 내려놓은 것과 맞닿아있다. 그 예를 영실 나한의 수행동에서 오백장군동(洞)으로 바뀌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명소승〉에서 임제는 1578년에 한라산 영실기암을 유람하고 중국 전국시대 전횡오백사(田橫五百士)을 언급한 시를 남겼다. 이후로 민간에서 오백장군 설화가 만들어져 오백나한과 혼용되었다. 이는 다시 제주의 창조여신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결합한다.

"설문대할망에게는 5백 명의 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할망은 아들들을 위해 죽을 끓이다 그만 발을 헛디뎌 빠지고 말았다. 저녁에 돌아온 형제들은 죽을 먹으며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다며 아우성이었다. 막내만은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게 이상해 죽을 먹지 않았다. 죽을 다 먹고 나서 밑바닥을 본 후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막내는 어머니의 살을 먹은 형제들과는 같이 살 수 없다며 고산리 앞바다로 내려가서 슬피 울다 차귀도의 장군석이 되었다. 나머지 형제들은 그 자리에 늘어서서 한없이 울다 지쳐 몸이 굳어 기암괴석의 군상이 되었다. 이 바위들을 '오백장군'이라고 한다."

이때 막내가 내려간 곳이 서귀포 외돌개 또는 성산 일출봉, 신양리 장군바위라고도 한다. 제주 주민들은 각자 자신들이 사는 터전의 큰 바위에 한라산의 신령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내려온 한라산신은 현신적으로 제주 사람을 보호한다. "중국의 황제는 호종단에게 탐라국 땅의 기운을 누르라고 명하였다. 이에 동쪽 종달리로 들어온 그는 혈맥을 자르며 제주성과 가까운 화북리에 이르러 '수수못행기물'의 혈을 뜨는 데 실패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한라산신의 동생은 죽어서 매로 변해 그를 쫓아 서쪽 고산리에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닻을 올린 호종단의 배를 북풍과 함께 몰아쳐 난파시켰다. 돌아가는 것을 막았다고 해서 그 섬을 차귀도(遮歸島)라 하고, 조정에서는 그 신령스러움을 포상해 광양왕(廣壤王)으로 봉하여 해마다 향과 폐백을 내려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고 한다."

이렇게 어머니 산 한라의 기운은 제주민의 물, 땅, 온기, 숨이었다. 국립제주박물관에 소장된 작자 미상의 '영곡, 탐라십경'(18세기)에 잘 그려져 있다. 이 기운을 곁에 두고자 하는 바람으로 제주에 '절오백 당오백'이 생겨났다.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동국대 건학장학제도 활성화 기대

동국대는 최근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2년 연속 9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 명문대학 반열에 올라섰다. 이 같은 변화에는 음과 양으로 지난해 발족한 건학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건학위원회는 고문 자승스님이 '등록금 걱정, 취업 걱정 없는 동국대'를 발원하며 발족됐다. 그만큼 장학제도를 개발하는데 발족 이후 많은 노력을 했다.

건학위원회의 대표적 건학장학제도는 '동국건학장학'과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을 꼽을 수 있다. '동국건학장학'은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제도로, 서울캠퍼스 30명, 경주캠퍼스 3명, 의료원 2명 등 35명이 1기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지역 사찰이 동국대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에게 직접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이는 사찰스스로 '우리가 선발한 특별한 장학생'이라는 애정을 갖게 하고, 학생들 역시 '출신 지역 사찰에서 선발된 장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긍정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건학위원회의 장학제도는 인재육성과 신행을 통한 불교 포교를 모두 이루고 있어 눈길을 끈다.

12월 1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수계법회가 이를 잘 보여준다. 113명 장학생들이 수계를 받았고, 이중에는 첫 수계를 받는 학생들도 상당수 였다. 사찰과의 결연을 통해 불교와 인연을 맺고, 학교에서 꾸준히 신행생활을 유도하니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청년 불자가 되어갔다.

사찰 전각 불사가 아무리 훌륭하게 진행되며 그 안에서 수행하고 신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사찰불사보다 인재불사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불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건학장학제도 활성화를 기대한다.

회장 취임 계기로 인천불교 비상 나서야

11월 29일 영종도 국제도시 인천 용궁사에서는 인천불교총연합회 제 32대 회장 취임법회가 열렸다.

지난 7월 19일 단독 출마해 추대된 한국불교태고종 인천교구 종무원장이자 인천 용궁사 주지인 능해 스님이 본격 취임한 것이다. 능해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다양한 놀이문화 확산 등 종교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 이럴 때 일수록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찾아가는 포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 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은 지역 특성상 개신교의 교세가 강한 곳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개화기를 거치며 서구문명이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이기도 하다. 도서지역이 겹친 지역 특성상 개신교회가 자리잡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내서 활동하는 사찰은 수십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조계종과 태고종 등 여러 종단으로 나뉘어져 그동안 화합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인천불교총연합회는 16개 종단 380여 사찰이 손잡은 인천 최고의 불교 연합 조직이자 지역의 대표단체로 75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행정력과 수행력, 포교 경험을 두루 갖춘 능해 스님의 회장 취임을 계기로 오랜 내공을 쌓아온 인천불교총연합회가 소통과 화합으로 다시 뭉쳐 인천불교의 재건에 앞장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한국불교 특히 지역불교는 지금 침체기를 겪고 있다. 특히 젊은 청년층 불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한국불교의 허리가 끊기는 일이다.

능해 스님이 이번 취임사에서 청소년과 다문화 등 계층 포교 활성화를 공약했듯이, 인천 청년불교 포교의 새바람도 아울러 함께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20년

마음을 더하다

마음을 더해온 20년, 인연을향한 100년

템플스테이 20주년
2002-2022

템플스테이
20주년

대한불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조 계 종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